2018 경기도문화자원아카이브사업

2018
경기도문화원연합회
Annual Report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8 경기도문화자원아카이브사업

2018
경기도문화원연합회
Annual Report

경기도문화원연합회

Contents

프롤로그 | 6

Chapter 1
일반현황 | 14
회원현황 | 16
사업현황 | 17
조직운영현황 | 21

Chapter 2

경기도단위문예진흥사업

1) 제5회 경기도문화원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 | 28
2) 제12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in 동두천 | 44
3)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 58
4) 경기향토사학 제23집 발간사업 | 70
5) 온라인문화원만들기 고도화사업_경기도문화원미디어센터구축사업 | 74
6) 웹진)경기문화저널 | 84
7) 경기도인문학네트워크사업 제8회 시가예찬 2018 in 오산 〈기억의 상상〉 | 94
8)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미래유물전 in 부천〉 | 1046
9)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Ⅱ〉 | 116
10) 지역특성화프로젝트 〈동네한바퀴〉 | 130
11) 경기도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 | 140
경기도시,군문화원장 연수 | 142
경기도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 148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 164
경기향토문화대학 2기 | 170
12) 제20회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 178

Chapter 3

경기문화재단 협력사업

1) 경기천년장인발굴단 | 188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2기 | 200
3)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8 학술심포지엄 | 210

보도자료 | 220

에필로그 | 226

프롤로그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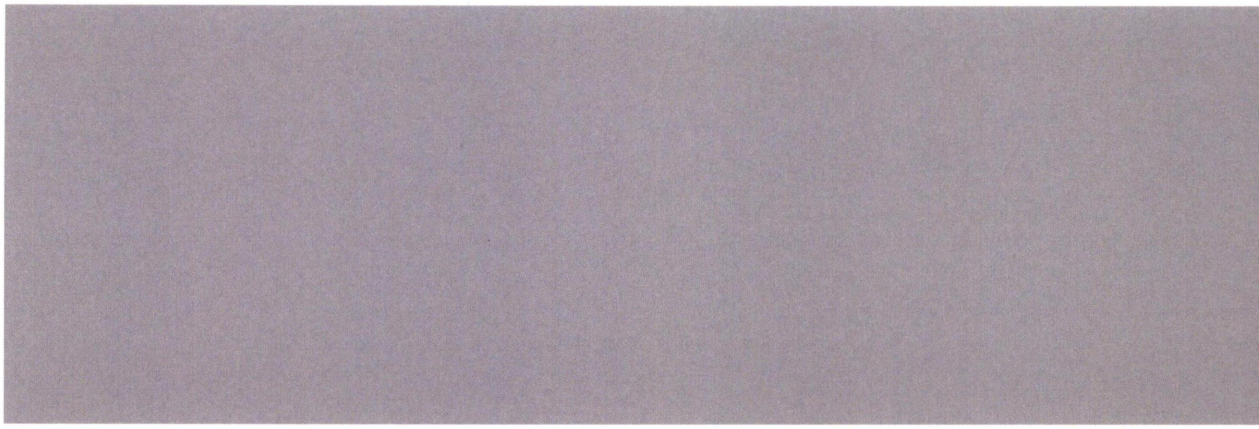
2018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방향 찾기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다!
그 '발전'이라는 맥락을 지역 특성의 축소, 왜곡, 변화의 과정을 거친 동일화 과정으로 이해해보면 어떨까.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발전'이라는 개념을 '완성된 어떤 사회'를 상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지점에서 기존에 존재해 왔던 지역, 사람의 다양한 성향과 성격을 단일한 사상과 정신, 설정된 하나의 폿대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했다.
때문에 당시 설정된 폿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질서에 편입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식이 전제되어야 했다. 세계 질서에 편입된다는 것은 서구 중심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적, 전통적, 향토적인 것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했고, 개선해야 할 어떤 것으로 인식시켜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질적인 것, 특이한 것, 다양한 것들은 축소, 왜곡, 제거하는 형식의 매커니즘이 전사회적으로 작동해 왔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이었고, 지금 한국의 현재를 만들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발전'이라는 개념은 이전보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완성된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동일성이 확대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리해 보자면 '발전이란 이질성의 지대가 해체되고 이질성의 폭이 축소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동안 한국 정치와 법은 이러한 발전의

과정–다시 말하면 동질화의 과정–을 촉진하고 가속화하는데 복무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지역에서 중심으로, 시골에서 도시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통적 가치, 예를 들면 증여, 호의,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관계공동체는 해체되고 아파트공화국으로의 길을 걸어왔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는 '잘 살아보세'라는 한 가지 목적 아래 모든 것이 흡수되던 '산업화'시대였다. 그 산업화 시대의 문화적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징적인 것을 '문화원'이라고 본다면, 이제 한국사회는 '문화원의 시대'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미 산업화 시대가 아닌 민주화를 겪고,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적 측면 보다 문화적 측면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
지금 지방문화원이 사업을 추진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모양은 이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기 투자를 하고, 보다 민주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산업화 시대'적 가치를 들고 '나를 따르라!'하는 모양새다.
그러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구태의연한 모양새고, 구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문화원은 비합리주의적 아비투스로 구성된 연고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행정과 조직의 강점이 기획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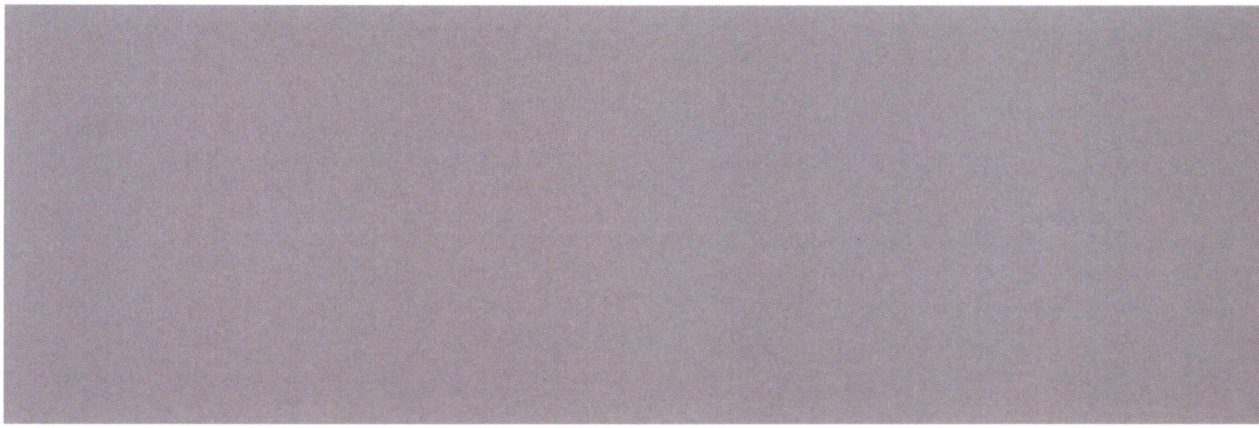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이 '발전'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것들이 해체되고, 이질성의 폭이 축소되어 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은 지역특성, 지역공동체, 지역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한국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물신화된 사회에서 하는 이 주장은 발전된 사회, 즉 '동질화'하는 과정과의 대결을 뜻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보편적 가치를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권력'과정과의 대결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앞으로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을 부각시켜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다른 지역사람들과 다른 색다른 점들이 '내가 이 곳에 살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중앙중심이 지역중심으로, 동일한 것들에서 특수한 것으로, 끊어진 관계를 공동체 회복으로, 공급자 중심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에 대한 고민을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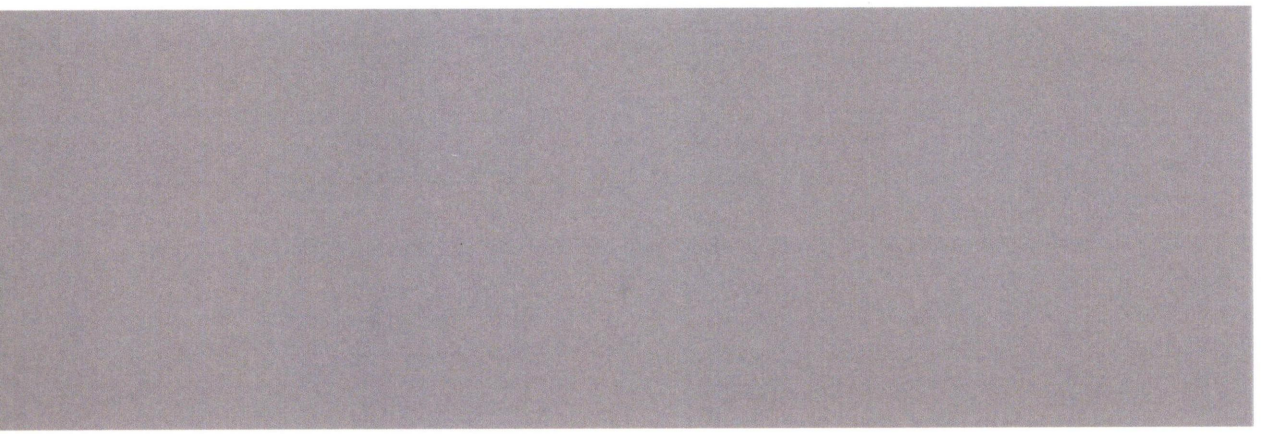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2018년 이후 문화정책 키워드를 5가지로 정리했다.
1. 지역특성화
2. 생활문화
3. 문화다양성
4. 문화재생
5.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이 그것이다.

첫 번째 키워드인 '지역특성화'는 중앙집권적 문화인프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문화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자의적, 주관적이 아닌 보편적, 객관성을 담보한 기획이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두 번째 주요키워드인 '생활문화'의 맥락은 '문화생활'지원이냐 '생활문화'지원인가의 관점에서 봐야하며 이것은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은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한다.
하나는, 지방문화원은 문화생활지원이 아닌 생활문화지원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또 다른 측면은 지방문화원을 생활문화커뮤니티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세 번째 주요키워드인 '문화다양성'의 맥락은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역정체성이라는 맥락이 아닌 개별성, 특수성의 차원에서 지역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네 번째 키워드인 '문화재생'의 맥락을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논쟁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문화를 재생한다는 것에 대한 독해가 필요하다.
'재생'한다는 것은 '다시 살려낸다'라는 뜻으로 보면 '문화를 재생한다'는 것은 기존 문화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이 아닌 문화재생을 '문화로 재생한다'라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때 현재 추진되는 일련의 사업들이 읽힌다. 즉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유휴공간 활용에 포인트를 둘 수 있게 되고,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이라는 개념 구별이 가능해진다.
또 지방문화원이 그동안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예술인과의 접점구조를 마련하는 '레지던시'사업이 지역문화활성화에서 맥락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키워드인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은 지방문화원의 사업추진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즉 지역주민의 자발적, 창의적, 주체적 관계커뮤니티형성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문화원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의 길만을 합의하고자 함이 아니다.
문화원 마다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 특색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의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문화원이 발전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돌맹이 하나,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의미 지어지고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핵심은 지방문화원이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연합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중심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여 백

Chapter 1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 일반현황
2. 회원현황
3. 사업현황
4. 조직운영현황

2018_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 2018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일반현황

1)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우편번호 16488)
- 연락처 : 전화_ 031-239-1020 | FAX_ 031-239-3785
  홈페이지 : www.kccfgg.org | E-Mail : kccf-kg21@daum.net

2) 설립목적

민속문화발굴·보존 및 발전, 문화 학술조사 및 연구, 지역문화 행사개최, 향토사 연구, 책자 발간, 지역전통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3) 단체연혁

- 1985. 1. 1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창립
- 1991. 7. 10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지부 설립 승인
- 2013. 2. 26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개칭
- 2013. 7. 1 8대 염상덕 회장 취임
- 2015. 2. 10 현 9대 염상덕 회장 취임

4) 주요사업

- 지속발전가능한 문화원만들기 액션플랜
  - -키움 프로젝트
  - -향토문화대학
  -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 제12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 제5회 Festival 31
-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미래 유물전〉
- 제8회 시낭송의밤 〈시가예찬〉
-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 경기향토사학 제23집 발간
- 역량강화 사업
  -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
  - -시,군문화원장 워크숍
-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 온라인문화원만들기
- 웹진)경기문화저널 발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원사업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사업
- 경기문화재단 협력사업

2. 2018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원현황

직책	성명	소속	비고
회장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회장	박형재	부천문화원	
	조수기	의정부문화원	
	김봉식	안산문화원	
감사	김문영	여주문화원	
	이보긍	남양주문화원	
운영위원	장재찬	양평문화원	
	양장평	안성문화원	
	조명호	이천문화원	
	김은호	평택문화원	
	이하준	김포문화원	
	박계일	군포문화원	
	정원철	시흥문화원	
	김대진	성남문화원	
	유병기	하남문화원	
회원(가나다 순)	김문경	구리문화원	
	양윤택	포천문화원	
	고정석	화성문화원	
	이용석	과천문화원	
	김만종	가평문화원	
	공창배	오산문화원	
	조길생	용인문화원	
	한봉우	의왕문화원	
	정경철	동두천문화원	
	홍성준	양주문화원	
	안성근	광명문화원	
	정변규	안양문화원	
	이창희	광주문화원	
	이승엽	고양문화원	
	우관제	파주문화원	
	이준용	연천문화원	

3. 2018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현황

사업현황			
사업명	시기 및 기간(수)	시작년도	장소
〈경기문화저널〉발간사업	연중	2011~	
〈경기향토사학〉발간사업	연중	1995~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매년10월중	1996~	경기지역순회
경기도문화가족한마당〈페스티벌31〉	연중	2014~	경기지역순회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12월	1999~	경기지역순회
경기도문화예절교육사업	연중	2011	5개지역지원
경기도문화원 지속가능발전 정책사업	연중	2016~	
경기도문화원 향토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정책 및 사업화방안연구	연중	2012	
경기도문화원네트워크구축사업	연중	2012~	
경기도문화원사례연구Ⅰ 〈문화원에서 놀자〉	연중	2012~	
경기도문화원사례연구Ⅱ 〈이제는 지역이다〉	연중	2013~	
경기도문화원욕구수요조사사업	연중	2011	
경기도문화원정책토론회	11월	2011~	
경기도문화원중장기발전방향연구	연중	2013	
경기도문화원형개발토론회	9월	2010~	
경기도문화자원아카이브사업	연중	2014~	
경기도사라져가는마을조사사업	연중	2013~	경기도 내
경기도시낭송의밤〈시가예찬〉	매년10월	2011~	경기지역순회
경기도역사문화콘텐츠제작사업 〈경기음악 Ⅰ,Ⅱ〉	연중	2011~	
경기도우수전통민속단체지원사업	연중	2015~	10개지역지원
경기도지방문화원 지원사업	연중	2016	성남,경기북부,파주
경기도지방문화원사무국장연수	상,하반기(2회)	2011~	경기지역순회
경기도지방문화원직원연수	상,하반기(2회)	2011~	경기지역순회
경기도지방문화원총람발간	연중	2015~	4년 단위
경기도청소년리더캠프	연중	2012	여주시
경기도토속소리발굴제작사업	연중	2011	

사업명	시기 및 기간(수)	시작년도	장소
경기도학생풍물경연대회	10월	2013	광명시
경기천년장인발굴단	연중	2018	
경기향토문화대학	연중	2017~	
다문화인과함께하는전통문화체험	연중	2010	5개지역지원
문화원형도시브랜드사업Ⅰ 〈문화원형이 브랜드다〉	연중	2013	
문화원형도시브랜드사업Ⅱ 〈사람의 삶이 역사다〉	연중	2014	
생활문화공동체사업〈미래유물전〉	매년10월	2015~	경기지역순회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 〈마을큐레이터되기프로젝트〉	연중	2017~	
선진문화교류국제네트워크사업	2회	1997~	해외연수
온라인문화원만들기사업	연중	2017~	
원천콘텐츠발굴지원사업	연중	2017~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지원사업	연중	2017~	
한문연 문화자원봉사 시군본부지원사업	연중	2014~2017	
한문연 지역별거점사업(기획자,권역별)	연중	2015~	

발간물 현황 (2011년 ~ 2018년)

도서명	발행목적 및 주요내용	형태
경기문화저널	경기도지방문화원 정책담론 생산과 홍보마케팅	연1회(매거진, 단행본)
경기향토사학	도연합회부설<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논문집	연1회 (단행본)
경기음악 Ⅰ,Ⅱ	경기도역사문화콘텐츠제작보급사업의 일환	단행본
경기토속소리	경기도 토속소리 발굴 제작 사업	CD
이규보 평전	경기도 고대문화인물 재발견 사업의 일환	단행본
경기도지방문화원욕구, 수요조사보고서	경기도문화원발전방향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1차년도 사업	자료집
경기도문화원 중, 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 집적 및 활동 보고서	경기도문화원발전방향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차년도 사업	자료집
경기도문화원 향토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정책 및 사업화방안 연구	경기도문화원 향토조사자료 아카이브사업	자료집
경기도문화원중장기 발전방향 수립3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경기도문화원발전방향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3차년도 사업	자료집
경기도문화원형 사업결과보고서	경기도시군문화유산원형개발토론회 결과자료모음집	자료집
문화원형이 브랜드다	경기도문화원형브랜드개발 1차년도 사업	DVD
사람의 삶이 역사다	경기도문화원형브랜드개발 2차년도 사업	DVD
문화원에서 노올자	경기도지방문화원 홍보마케팅 1차년도 사업	단행본
이제는 지역이다	경기도지방문화원 홍보마케팅 2차년도 사업	단행본
다산이 그리워한 마을 <마재마을>	경기도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사업	단행본
옛길을 품은 마을 <오리골>	경기도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사업 2차	단행본
경기도지방문화원총람	경기도지방문화원 경영, 사업, 조직 총람	단행본(3년 단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애뉴얼리포트	2015~18년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총괄 보고서발간	자료집

도서명	발행목적 및 주요내용	형태
경기도문화원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결과보고서	페스티벌31 결과보고서	자료집
<미래유물전> 도록	경기도생활문화공동체 전시기획	도록
<경기도우수전통보존단체지원사업>결과보고서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선정단체운영 결과보고서	자료집
<기획자교류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5,16어르신문화프로그램 지역별거점사업 결과보고서발간	자료집
<문화자원봉사시도운영지원 본부활성화사업>결과보고서	2016,17년도 문화품앗이안 양성프로젝트 결과보고서발간	자료집
생활문화동아리<심포지움>	경기도 생활문화 담론형성 및 발전방향수립	자료집
생활문화 다시보기	2016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단행본
<경기도지속가능발전정책사업> 결과보고서	경기도문화원 조직, 법제, 운영, 사업 발전방향수립을 위한 담론형성결과보고서	자료집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주년 기념백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간의 조직 역사 및 사업기록	단행본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 결과보고서	2017, 18년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사업 -키움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자료집
로컬 지향의 지역문화운동	2018년 웹진)경기문화저널 통합본	단행본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2017, 18년 의왕,하남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자료집
<동네한바퀴>결과보고서	2018년 지역특성화프로젝트 동네한바퀴 결과보고서	자료집

부설기관

단체명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인 원 | 24

주요사업 및 활동내용 | 경기도31개시,군지방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대표로 구성된 도단위 향토사학연구기관 | 조직: 소장 1/ 부소장 1/ 총무 1/ 연구위원 21

4. 2018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조직운영현황

1) 운영위원회

〈2018년 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18년 1월 26일 (금) 14:00
-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6층 회의실
- 안건 :
    - 제1호 안건 : 2017년도 사업결과보고 및 결산(안) 심의의 件
    - 제2호 안건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件
    - 제3호 안건 :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件
    - 제4호 안건 : 제27차 정기총회 개최의 件

〈2018년 2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18년 3월 22일 (목) 11:00
-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6층 회의실
- 안건 :
    - 제1호 안건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제규정 제정의 件
    - 제2호 안건 :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件
    - 제3호 안건 : 2018년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계획 보고

〈2018년 3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18년 8월 23일 (목) 11:00
-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6층 회의실
- 안건 :
    - 제1호 안건 :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件
    - 제2호 안건 : 2018년도 하반기 사업추진 현황 보고
    - 제3호 안건 : 2019년 사업계획(안) 보고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018년 제27차 정기총회〉

- 일시 : 2018년 2월 23일 (금) 11:00
- 장소 : 수원 호텔캐슬
- 안건 :
    - 제1호 안건 : 2017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의 件
    - 제2호 안건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件
    - 제3호 안건 : 임원 선임의 件
    - 제4호 안건 : 기타안건

〈2018년 하반기 임시총회〉

- 일시 : 2018년 10월 29일 (월) 11:00
- 장소 : 부천 송내어울마당 채움늘
- 안건 :
    - ○ 제1호 안건 : 2018년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件
    - ○ 제2호 안건 : 2019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개최지 선정의 件

3)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운영위원회

- 일시 : 2018년 4월 26일 (목) 11:00
- 장소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 안건 :
    - ○ 제1호 안건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임원 선임의 件
    - ○ 제2호 안건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사업계획(안) 승인의 件

이 용 선
김 만 종
유 병 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8년도 제27차 정기총회

여 백

Chapter 2

경기도단위문예진흥사업

제5회 경기도문화원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
제12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in 동두천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경기향토사학 제23집 발간사업
온라인문화원만들기 고도화사업_경기도문화원미디어센터구축사업
웹진)경기문화저널
경기도인문학네트워크사업 제8회 시가예찬 2018 in 오산 <기억의 상상>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미래유물전 in 부천>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Ⅱ>
지역특성화프로젝트 <동네한바퀴>
경기도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
    경기도시,군문화원장 연수
    경기도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경기향토문화대학 2기
제20회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2018 제5회 경기도문화원생활문화축제_
페스티벌31
별별화성4.9.13

1. 기획의도

페스티벌31의 당초 기획 의도는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모아 문화원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문화원이 제대로 '놀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기획이라고 생각했다. 축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4회에 걸쳐 진행한 페스티벌31의 자체 평가 결과, 개최 문화원의 성과가 드러나고 생활문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함께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구조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화의 첫 시작은 워크숍이었다.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동아리들과 함께 하기위해선 그들의 요구와 상황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두 차례의 사전 워크숍으로 문화원 외 타 기관에서 활동하는 30여개 동아리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다. 그들의 주된 요구 사항은 동아리 기량 향상 및 네트워크 지원이었다. 따라서 공연과 전시의 방향을 이들의 요구에 맞추어 새로 기획 하였다.
사전 워크숍을 통해 몰랐던 동아리들과 인사하고, 콜라보 공연을 위해 같이 만나고, 전문연주가들의 조언으로 새로운 작품에 도전해보는 등 관계를 맺기 위한 일들을 도모했다. 기존 콜라보레이션 공연은 전문연주자와 동아리가 콜라보 하는 형태로만 진행되었지만 이번 축제에서는 동아리간 콜라보를 시도했다. 콜라보레이션이 부담스러

운 동아리는 자체 쇼케이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꼭지를 마련했다. 전시가 가능한 동아리는 단순 작품 전시를 넘어 시민 참여형 체험부스를 운영하도록 했다. 참여가 확정된 18개 동아리와 연습, 리허설, 영상촬영 등 일련의 과정을 함께하였고 동아리들의 스토리와 소개를 담은 '동아리북'을 제작하여 동아리가 공연을 하기위해 온 손님(guest)이 아닌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체(cast)로서 축제에 온 마을 사람들과 만나길 바라며 축제를 준비했다.

그리고 10월 3일(수),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을 개최하였다. 별별화성4.9.13이란 네이밍은 별-화성(火星)이 다시 화성(火星)-화성(華城)으로 이어지면서 동음이어의 효과와 별이라는 어떤 특별함을 연상하도록 단어를 조합했다. 또한 별별=별의별이라는 언어적 의미를 빌려와 일상과 다른 갖가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4.9.13은 화성시를 이루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읍면동 개수이다. 화성시 전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활동이 모두 모여지기를 기대한 표현이다.
최종적으로 '〈별별화성4.9.13〉은 화성시 생활문화동아리들의 활동으로 화성지역 사람들의 '따로 또 같이'의 삶을 표현'한 것이며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은 개최지역 일상생활의 문화적 요소와 지역 특성을 극대화시켜 지방문화원과 생활문화동아리, 전문가가 협력하여 동아리 중심의 지역특성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구체적으로 표현한 축제'이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제5회 경기도문화원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_별별화성 4.9.13〉
- 기간 : 2018년 3월~12월 (축제기간 : 10월 3일(수))
- 장소 : 화성문화원, 화성시 궁평항 광장 일대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화성문화원

2) 추진배경

-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의 향토문화를 보존, 보급해 온 화성문화원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마련
- 향토문화의 일상성을 재해석, 생활문화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통-지역성-향토문화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줌

■ 지역과 지역 주민이 문화사업의 배경이 되어왔던 것에서 탈피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의 장을 지방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함

3) 목적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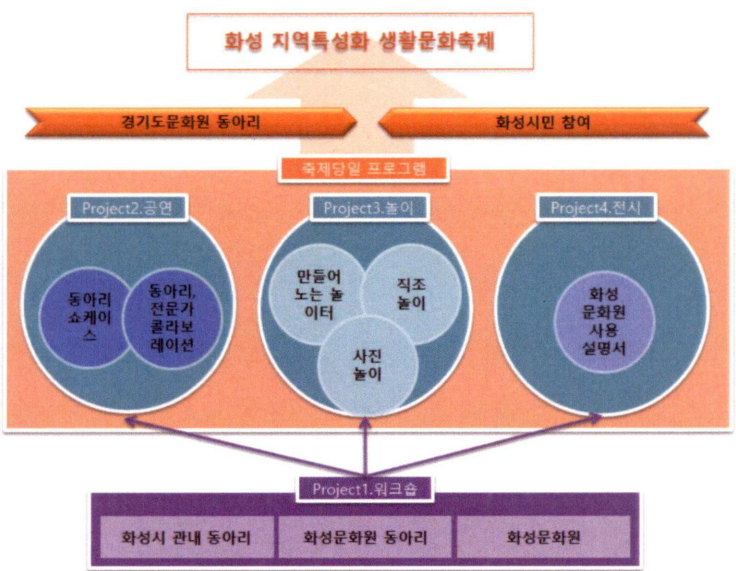
■ 지역의 향토문화를 이어가는 유관기관 및 동아리들과 협력하여
■ 한국의 전통과 화성의 향토문화가 드러나는 자리를 마련
■ 시민들의 참여로 전통과 향토문화가 창작, 놀이로 펼쳐지는 축제 마련, 화성 지역의 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함

4)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보편적 인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재현하는 자리를 마련, 문화원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
■ 지역성을 구체화시키는 마을의 일상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축제로 구성, 전문기획자, 큐레이터, 예술가들이 협력은 하되, 지방문화원 및 문예동아리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장 - 전문가(예술가, 큐레이터)와의 협력, 동아리간의 협력 과정에 중심을 두고 동아리 중심의 수준 높은 지역 특성화 콘텐츠로 개발
■ 사전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 축제 주체가 되도록 과정마련
■ 개최지역 일상생활의 문화적 요소와 지역특성을 극대화시켜 공연, 체험이 가능하도록 기획

B. 추진내용



■ "마을 일상성=향토문화=지역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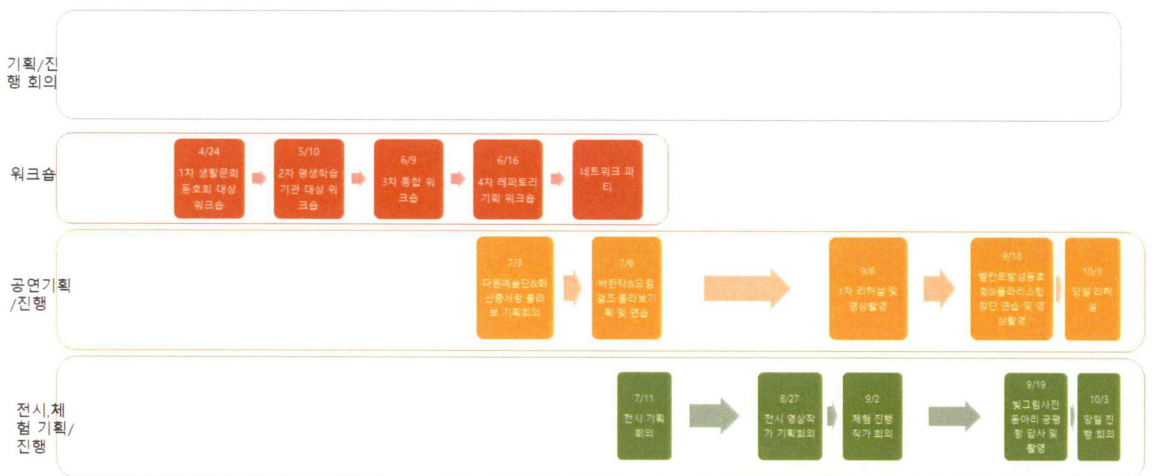
지리적 환경적 요인과 지역의 인물 등 유무형의 자원이 지역의 특성을 만들고 향토문화가 형성된다고 볼 때 일상문화는 지역의 특성이며 향토문화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음. 마을의 향토문화 요소로 축제를 구성, 화성만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행사이고자 함

■ "화성人의 연결방식"

동아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개인들의 연결된 조직. 개별적으로 살기를 강요하는 도시의 삶에서 화성 지역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살펴보고자하며 화성의 향토문화로 화성사람을 연결하는 것을 시도해 보고자 함

C. 추진체계

D. 추진일정



5) 세부프로그램

■ 교류 프로그램

구분	횟수	내용	일시 및 장소
1,2차 생활문화동아리 의견수렴 워크숍	1	화성문화재단, 생활문화동호회 대상 축제공지 및 의견 수렴	4. 24(화) 13:00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1	복지관, 평생학습기관 동아리 대상 축제공지 및 의견 수렴	5. 10(목) 14:00 화성문화원
3차 통합워크숍	1	축제 기본계획(안) 공지 및 동아리 소개	6. 9(토) 12:00 화성문화원
4차 동아리+예술가 워크숍	1	참가 동아리 선정 및 콜라보레이션 공연/전시 협의	6. 16(토) 12:00 화성문화원
콜라보레이션 조율	3	동아리 콜라보레이션 조율 및 연습	6월~8월 세부일정 : 팀별 조율
1차 리허설	1	공연 리허설 및 세부 레퍼토리 결정 무대 안전 및 성인지 교육	9. 6(목) 10:00~17:00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사후 워크숍 (평가회 및 네트워크파티)	1	축제 평가 및 네트워크 다지기	10월 22일(월) 10:00 경기상상캠퍼스

■당일 프로그램

구분	내용	내용
특★한 전시 _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展	11:00~18:00	화성문화원 역사와 활동 영상 전시
만들어노는 별★놀이터	11:00~18:00	노는 사람이 만드는 놀이터 - ○○을 빼고 노는 놀이터 - ○○과 나누는 노는 놀이터 - ○○에 더해서 노는 놀이터 - ○○를 곱해서 노는 놀이터
직조짜기 별별체험	11:00~18:00	폐현수막을 이용한 직조 짜기 체험
人★사진체험	11:00~18:00	화성빛그림 동아리 활동가가 축제 풍경 촬영 및 전시 전시된 사진 속 '나'를 찾으면 사진을 가져갈 수 있는 전시회
별別공연 _뭔가 다른 공연	13:00~14:30	화성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쇼케이스
별別공연 _뜻밖의 공연	16:00~17:30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예술가 콜라보레이션 기획 콘서트

특★한 전시_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展

만들어노는 별★놀이터

직조짜기 별별 체험 / 人★사진체험

별別공연_뭔가 다른 공연

별개공연_뜻밖의 공연

페스티벌31
I.O.F CREW

페스티벌31
별별화성
4.9.13
특★한 전시
11:00~18:00
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展
화성문화원 역사와 활동 영상 전시

포스터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
별별화성
2018.9.13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광장
2018. 10. 3. (수) 11:00~18:00
별별공연 - 뭔가 다른 공연
13:00~14:30
화성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쇼케이스
別별공연 - 뜻밖의 공연
16:00~17:30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과 펼치는 콜라보레이션 기획 콘서트
만들어 노는 별★놀이터 11:00~18:00
노는 사람이 만들어 놀자!
직조짜기 별별체험 11:00~18:00
온가족이 함께! 손으로 생각하기
人★사진체험 - 노상 사진 교실
1차 11:00~13:00 2차 14:30~16:00
人★사진체험 - 짝히는 자가 임자 11:00~18:00
특★한 전시 11:00~18:00
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展
화성문화원 역사와 활동 영상 전시

신나라실버밴드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광장
2018. 10. 3(수) 11:00~18:00
별별화성
4.9.13

의왕문화원 팬오카소리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광장
2018. 10. 3(수) 11:00~18:00
별별화성
4.9.13

동아리 초대장

동아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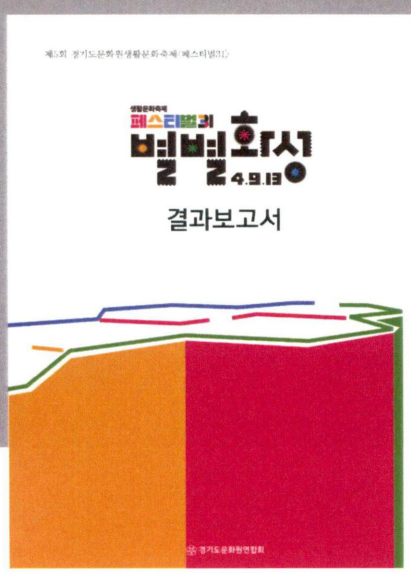
화성시생활문화예술동아리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
별별화성
4.9.13
에서 이렇게 논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화성문화원

리플렛

결과보고서



이번 '페스티벌31'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동아리 간 네트워크였다. 축제 전, 후 워크숍 참석도가 매우 높았으며 참여자 만족도 역시 가장 높았다. 화성문화원을 거점으로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및 연계 사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리간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기획자, 예술가 협업으로 콜라보레이션 동아리의 경우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가져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 타 축제나 무대에서 공연하는 교류 성과가 있었다.

축제는 기존 동아리 및 문화원 회원 중심의 문화원 한마당 축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과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개최지 문화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빠레트를 이용, 심미성, 안전성을 감안한 5각형 벌집구조를 제작하여 전시한 〈특★한 전시_화성문화원사용설명서展〉에서는 문화원의 활동과 역사를 애니메이션화 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방문화원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의 기회 마련하였으며 전문 도슨트가 관련 성과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체험프로그램인 만들어 노는 별★놀이터, 직조짜기 별별체험, 人★사진체험을 통해서는 전통문화에 치우쳐 있던 문화원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상에서 시민들이 문화원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홍보하였으며 특히 가족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별별공연(뭔가 다른 공연, 뜻밖의 공연)에서는 공연/전시를 통해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활동 결과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뷰 영상 촬영으로 개별 동아리별 과정과 이야기를 보여주었으며 모든 동아리가 마지막 무대에 서는 커튼콜을 기획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추진 방식인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의 자발적, 창의적, 주체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의 초석을 형성하였다. 또한 개최지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졌다. 다만, 개최지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생활문화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원의 의지와 역할이 담보되어야 한다. 지역 내 생활문화 네트워크의 목적과 활용 방안은 향후 축제 추진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2018 제12회_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in 동두천

1. 기획의도

격년으로 경연이 치러지는 민속예술제와 청소년민속예술제는 각 지역의 고유하게 남아있는 생업, 의례, 연희, 놀이, 춤, 음악 등 모든 전통 민속을 포괄한다. 지자체별 각 1작품씩을 출품할 수 있고, 운영규정을 통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다음연도와 차년도의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의 출품을 작품을 선정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전체적인 시스템 흐름은

개최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 참가신청 » 세부계획 수립 » 추진 위원회 » 시,군관계자 회의 » 세부계획 확정 » 청소년민속 예술제 개최 » 평가

이를 바탕으로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고 차질 없는 행사를 만들고자 했다.

올해는 청소년민속예술제로, 출전인원이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참여자 학생들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다. 주요한 점은 이들이 전통민속을 보존하는 활동에 대한 진학에서의 특기요인이 되느냐였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교육청의 인가를 받기 위한 별도로 다양한 방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담론형성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 의견제시를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그 외의 개최지 지역의 관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정조율과 함께 지역방송을 통한 지속적 홍보와 짧은 클립영상제작으로 조금은 누구나가 지향하는 청소년민속예술제를 바랬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제12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 기간 : 2018년 9월 13일(목)~9월 14일(금)
- 장소 : 동두천시민회관 실내체육관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공동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동두천문화원
- 후원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동두천시, 동두천의회

2) 목적 및 의의

- 경기도내 각 시·군의 민속예술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여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계기 마련
- 각 지역의 고유한 민속예술 교류를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모두 함께 어울리며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

3) 추진내용

A. 운영방침

- 경연종목은 경기도 각 지역의 민속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통성 유지 및 계승을 위한 내용으로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속극, 소리 등 장르의 구분 없이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함
- 참가작품은 인위적 연출을 자제하고 향토 민속예술의 원형 재현에 충실해야 함
- 객관적인 심사규정으로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 확보
- 대상, 최우수 팀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경기도 대표로 참가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접수창구의 단일화(시군 문화원을 통해서만 접수)

B. 추진내용

- 경기도 민속예술 발전을 위한 경연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살림
-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체험부스 및 부대행사를 마련, 경연참가자 및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참가자 및 관람객에게 최상의 문화서비스 제공
-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경기도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

C. 추진일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0	11~20	21~31	1~10	11~20	21~31	1~12	13~14
기본계획 수립	■	■									
실무자 회의	■	■	■	■	■	■	■	■	■	■	
행사장 및 주변 조사	■	■									
보도자료			■	■	■				■	■	
신청서 접수			■								
홍보물 제작								■	■	■	행사
홍보물 배포										■	
관계자 회의									■		
세부계획 수립			■	■	■	■					
섭외 및 계약							■	■	■	■	
행사장 설치										■	
최종리허설										■	

D. 추진위원

No.	구분	소속	이름	직위	비고
1	대회장 (당연직)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	연합회장	
2	추진위원장 (당연직)	동두천문화원	정경철	원장	
3	부위원장 (위촉직)	부천문화원	박형재	연합회 부회장	
4	부위원장 (위촉직)	의정부문화원	조수기	연합회 부회장	
5	부위원장 (위촉직)	안산문화원장	김봉식	연합회 부회장	
6	위원 (위촉직)	김포문화원장	이하준	연합회 운영위원	전년도 개최지
7	위원 (위촉직)	동두천문화원	이미라	부원장	
8	위원 (위촉직)	동두천문화원	홍재설	부원장	
9	위원 (당연직)	경기도청	안동광	문화정책과장	
10	위원 (당연직)	동두천시청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11	위원 (당연직)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최영주	사무처장	실무 추진단장
12	위원 (당연직)	동두천문화원	박용철	사무국장	실무추진 부단장 현장총괄

E. 실무추진단

구분	역할	소속	직위	이름
실무 기획단	축제 총괄(실무단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영주
	현장 운영 총괄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박용철
행사팀	경연대회 및 행사 관련 행정지원, 입장관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팀장	진숙
			주임	박소현
	심사위원 관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연구원	오다예
	부대행사/일정관리/행사 확인지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팀원	신봄
			연구원	최지호
		동두천시청	팀장	권영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박용철
	임차·시설설치 진행 교통진행/관리	동두천시청	주무관	이득만
		동두천문화원	팀장	최지호
홍보팀	광역단위 홍보:보도자료 배포, SNS 등 홍보물 제작 및 발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팀원	신봄
	현장 진행(홍보)/관리	동두천시청	주무관	이득만
	동두천 관내 홍보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박용철
후생 및 지원	자원봉사 조직/배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팀원	신봄
	실비보상 관련	동두천문화원	팀장	설윤옥

4) 주요프로그램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의전행사	개막식	9. 13(목) 11:00	메인무대	도연합회 동두천문화원
	폐막식	9. 14(금) 17:00	메인무대	도연합회 동두천문화원
경연대회	1일차 경연: 14개 팀	9. 13(목) 9:30~19:00	메인무대	도연합회
	2일차 경연: 12개 팀	9. 14(금) 9:00~16:30	메인무대	
전시 체험행사	전통 체험부스	9. 13(목) ~9. 14(금) 10:00~17:00	시민회관마당 특별부스	동두천문화원
	먹거리 부스			
후생지원	의료, 미아, 안내, 자원봉사자 및 행사 인력 관리		종합안내소	

5) 제12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경연순서표

9월 13일(목)_개막식			
번호	공연시간 (30분)	지역명	참가작품명
1	09:30 ~10:00	포천	틀못이 동홰세우기
2	10:00 ~10:30	부천 (시연팀)	중리풍물놀이
3	13:30 ~14:00	평택	파일난장 등대굿 놀이
4	13:30 ~14:00	고양	고양두레농악
5	14:00 ~14:30	남양주	삼봉농악
6	14:30 ~15:00	이천	이천시용줄다리기
7	15:00 ~15:30	가평	봉산탈춤
8	15:30 ~16:00	군포	군포군웅제 민속마당
9	16:00 ~16:30	광주	광지원농악
10	16:30 ~17:00	여주	봉산탈춤
11	17:00 ~17:30	의왕	사근행궁 앞 의왕백성들의 격쟁
12	17:30 ~18:00	수원	수원고색농악
13	18:00 ~18:30	하남	웃다리 사물놀이
14	18:30 ~19:00	시흥	시흥월미농악

9월 14일(금)_폐막식			
번호	공연시간 (30분)	지역명	참가작품명
1	9:00 ~9:30	동두천	웃다리 풍물의 향연
2	9:30 ~10:00	연천	수레울 두레놀이 한마당
3	10:30 ~11:00	구리	웃다리풍물
4	11:00 ~11:30	성남	오리뜰농악
5	11:30 ~12:00	의정부	둔뱀이 북놀이
6	13:00 ~13:30	안성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7	13:30 ~14:00	양평	양평두레농악
8	14:00 ~14:30	안산	안산 와리 풍물놀이
9	14:30 ~15:00	파주	무령지곡 & 두드림
10	15:00 ~15:30	양주	양주 큰오미집터다지는소리
11	15:30 ~16:00	오산	오산외미거북진놀이
12	16:00 ~16:30	광명 (시연팀)	철산리두레농악

6) 경연대회 시상 결과

시상구분	훈격	지역명	출전작품명
대상	경기도지사	시흥	시흥 월미농악
최우수상	경기도의회의장	양주	양주 큰오미집터다지는소리
우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오산	오산 외미 거북진 놀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광주	광지원농악
	동두천시장	양평	양평 두레농악
공로상	동두천시장	평택	파일난장등대굿놀이
예술상	동두천시장	성남	오리뜰농악
		안성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포천	톨못이 동해세우기
민속상	동두천시의회의장	여주	봉산탈춤
		의왕	사근행궁 앞 의왕백성들의 격쟁과 군사훈련
		남양주	삼봉농악
장려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수원	수원고색농악
		가평	봉산탈춤
		이천	이천시 용줄다리기
		군포	군포 군웅제 민속마당
		파주	무령지곡&두드림
		의정부	둔뱀이 북놀이
		동두천	웃다리 풍물의 향연
		하남	웃다리 사물놀이
		구리	웃다리 풍물
		안산	안산 와리 풍물놀이
		고양	고양두레농악
		연천	수레울 두레놀이 한마당
소품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오산	오산 외미 거북진 놀이
지도상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시흥	김원민
연기상		양평	김태수(소리꾼)

7) 축제 이모저모

포스터/ 결과보고서

e Kyeonggido Youth Folk Art Festival
제12회
경기도
청소년민속
예술제
2018.9.13목~9.14금 (2일간)
동두천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일대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동두천문화원
후원 : 한국문화원연합회 | 경기도의회 | 동두천시 | 동두천시의회

제12회

경기도
청소년민속
예술제

제12회
경기도
청소년민속
예술제

제12회
경기도
제12회 경기도청소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동두천문화원이 공동주관한 올해의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는 전체적으로 도민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체험부스를 설치해 도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주고자 했으며, 도와 지역홍보에 큰 힘을 쏟았다. 행사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와, 안전요원, 동두천경찰서와 동두천시 방범순찰대 연합대, 보건소 협조 등 각 부스에 배치하였다. 스탭과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사전교육을 필두로 해, 행사의 완벽한 숙지로 행사당일에는 전반적 사항을 각 부스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청소년팀의 경우 24개팀이 참가하여 경연을 치뤘으며, 2개팀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여팀으로 시연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농악, 민속놀이, 민속, 소리 등 도내 각 지역 민속문화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춰 새롭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역색을 담아 경연을 펼쳤다. 그 결과 경기도지사 훈격의 대상은 시흥문화원의 '시흥 월미농악'이 차지, 2019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자격을 동시에 획득했다. 최우수상은 경기도의회의장 훈격으로 양주문화원의 '양주 큰오미집터다지는소리'가 받아 2020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경기도 대표 출전권을 따냈다. 또 우수상에 오산문화원'오산외미 거북진 놀이', 광주문화원'광지원농악', 양평문화원'양평 두레농악'를 비롯해 장려상, 공로상과 예술상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공동주관한 문화원의 힘이 더해진, 이번 청소년민속예술제는 문화원의 임원 및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진행이 원활하였다. 주관단체인 동두천문화원을 중심으로 동두천시청 소속 공무원의 협력과 동두천시 문화예술단체의 개·폐막 공연이 그 예다.

반면, 경기도민속예술제가 관계자들에게는 큰 사업이지만 민속 경연대회라는 특성에서 오는 무료함은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일말의 관심이 남아있는 성인분야에서도 이러한데, 청소년민속예술제는 더 큰 숙제이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써,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을 한 출전문화원들의 애로사항이었다.

2018년 전국민속예술제 추진회의에서 50년 동안 수많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 민속들을 모두 발굴했고, 이제 더 이상의 것은 발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이러한 토론과 담론들이 실제 민속예술제에 조속히 반영되어, 전통보존을 넘어 창작의 범위까지 일정부분 수용한다면, 고루하고 홀대받았던 전통에 대한 가치 재인식과 함께 참여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민속예술제의 확장을 통한 신·구전의 조화를 바란다.

2018 _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사업

1. 기획의도

전통민속보존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민속보존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까지는 대상,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단체를 지원하다 2015년부터는 전국민속예술제에 출전하는 대상, 최우수상팀에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어 대상, 최우수팀 제외,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입상한 상위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전통 민속을 보존하고자 했다.

운영규정에 따라 동일작품은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최대 3년까지만 지원가능하며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문화원이 1개 단체 선정하여 도연합회에 접수하며, 선정된 1개 문화원 1개 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지방문화원으로 교부한다. 교부금은 공연비, 경연대회 참가지원비, 정기연습비, 기타운영관련 경비 등으로 지원된다.

문화원이 정산과정까지 진행함으로써 자체 행정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부터 향토문화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으며 향후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지속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중이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 기간 : 2018년 4월 ~ 12월
- 지원대상 : 2017년 경기도민속예술제 입상 10개 지역
  (고양, 광명, 광주, 김포, 동두천, 시흥, 양주, 용인, 의정부, 평택)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0개 지역 문화원

2) 목적 및 의의

전통 민속 보존을 위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민속보존단체 중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여 전통 민속예술 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철저한 사업평가와 사후관리로 책임성 제고(전년도 사업성과와 연계지원)
- 중복 교부 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 체계적 관리
-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민속예술 활성화 및 결과자료집 제작
- 지역문화원을 통해 단체선정 및 시행, 정산토록 함
- 전년도 대회 입상작품 우선 지원

  단, 해당 지역 민속보존단체 선정은 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B. 추진내용

- 경기도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10개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

■ 지원 대상

지역문화원	지원규모	비고
고양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우수상
광명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우수상
광주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민속상
김포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예술상
동두천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예술상
시흥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민속상
양주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예술상
용인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공로상
의정부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민속상
평택문화원	3,500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우수상

■ 지원 절차

지원계획 수립·사업 공고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심의 → 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시행 및 정산	성과분석 및 공시
도연합회	대상문화원	도연합회	도연합회	해당문화원	해당문화원	도연합회

■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협력을 통한 수행상황 모니터링

- 목적 :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결과자료집 반영, 효과적인 지원방안 도출
- 주관 : 도연합회 모니터링단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 중 선발)
- 진행방법

모니터링단 구성 ⇨ 모니터링 ⇨ V 평가 V 자료집

→ 해당문화원의 사업 수행날짜를 공시, 도연합회 모니터링단이 참여하여 현지 모니터링 후 도연합회에 정해진 양식으로 제출

→ 해당문화원은 도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모니터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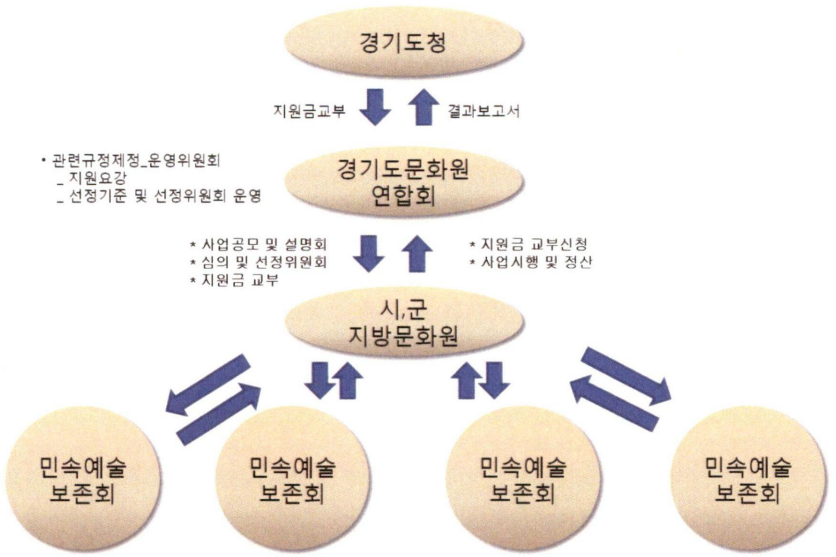
→ 민속보존지원단체 운영 현황 예)연혁, 자산규모, 회원수, 활동내역 등

→ 공연 or 전수프로그램 참여 예)참여인원, 홍보방법 등

→ 단체 대표 또는 회원과의 인터뷰 예)운영방안, 지원방향, 요구사항 등

C. 추진체계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 추진체계



D. 추진일정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1~5일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설명회 및 신청서 접수	사업비 교부	사업진행 각 문화원별 사업진행 기간 파악 후 모니터링 진행					정산서 접수	
6~10일										
11~15일										평가회
16~20일										
21~24일									결과 자료집 발간	
25~28일										
28~31일										

4) 세부내용

■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 지원 현황

문화원	작품명	지원 보존회
고양문화원	진밭두레 농사소리	성석농악 진밭두레 보존회
광명문화원	철산리 두레농악	광명농악보존회
광주문화원	엄미리 장승제	엄미리 장승제 보존회
김포문화원	조강치군패놀이 및 대명항배띄우는소리	김포조강치군패 보존회, 대명항배띄우는소리보존회
동두천문화원	탑동상여회다지소리	탑동상여회다지소리 보존회
시흥문화원	시흥향토민요 전승사업	시흥향토민요 보존회
양주문화원	양주들노래	양주들노래보존회
용인문화원	포은 정몽주 천장행렬 재현	포곡민속보존회
의정부문화원	녹양동 버들개농요	의정부녹양동버들개민속보존회
평택문화원	평택 어업요	평택민요보존회

성 석 진 발 두

■ 사업 모니터링 현황

문화원	날짜	장소	사업명	모니터링 요원
고양문화원	8/10	진밭마을회관 지하연습실	진밭두레 농사소리	차문성
광명문화원	10/28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	철산리 두레농악	정하완
광주문화원	.	엄미리 마을	엄미리 장승제	정창래
김포문화원	10/2	김포함상공원 야외무대	조강치군패놀이 및 대명항배띄우는소리	양경직
동두천문화원	11/3	소요산 야외공연장	탑동상여회다지소리	최영희
시흥문화원	.	정왕동 전수소	시흥향토민요 전승사업	백도근
양주문화원	.	상여회다지 전수회관	양주들노래	정창래
용인문화원	10/12	포곡읍 경안천변	포은 정몽주 천장행렬 재현	황수근
의정부문화원	11/7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녹양동 버들개농요	최창근
평택문화원	9/8	평택호 예술회관 앞	평택 어업요	염상균

정택민요보존

결과보고서

지방문화원이 주관하여 각 지역의 전통민속예술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활보할 수 있었다. 규정에 근거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토문화연구위원으로 구성된 모니텅링단 운영을 통해 지원사업의 예산 활용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상실적에 따라 지원 유무가 결정되는 형태이기에 보존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우므로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 매칭사업으로의 재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보존단체에 단순 지원하는 구조에서 행정적인 부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원의 기획역량이 결합된 사업으로의 전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지역과 지역 간 민속문화예술 교류 네트워킹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향토문화연구소의 경우 연구위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선정된 지역의 문화원과 민속보존단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도연합회 차원의 교육과 컨설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18 _ 경기향토사학 제23집

1. 기획의도

올해 새로운 연구위원으로 구성하여 출발한 경기향토문화연구소는 연구위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향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을 통해 '경기향토사학'의 3년간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경기 정명 10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천년 역사 속의 중심 사상인 유학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기유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시·군 지역별로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해 논문을 집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제 선정 취지는 경기도가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개성 외곽 지역을 경기로 칭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원동력의 배후 지역이었다. 그 천년 세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은 유학 사상으로서, 경기도 유학은 제자백가의 공맹 유학과 훈고학으로 이어져 오다가, 고려 말에 안향이 성리학을 도입한 이래 조선 중후기까지 성리학 국가라고 말할 정도로 흥하였는데, 특히 경기도는 명나라 때 발흥한 양명학과, 청나라 때의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실학이 꽃 피었으며, 일제 강점기 시절 의병의 발흥지로서, 충신, 효자, 효부가 지속 출현하였다. 경기도의 유학은 경기 천 년을 맞이한 현재도 전승이 멈추지 않고 있다. 31개 시·군 지역의 향교, 서원 등의 유교 유적이 잘 보존되고, 최근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향교나 서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유교 정신의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현대인의 인성 교육의 수단으로 유학을 새롭게 조명되면서, 인의예지신 오상과 친의별서신의 오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는바, 2018년에 발행하는 경기 향토사학 23집에는 31개 시·군 지역의 전통 유교 문화 유적이나 인물의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고, 효제충신의 미풍 양속이 현대 지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래에 유학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김포 이하준 문화원장이 의병장으로 유명한 중봉 조헌의 사상을 정리하였고, 남양주 김세호 연구위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하였다. 파주 차문성 연구위원은 경기도 유학의 본산인 파주 자운서원에 대해, 안산 신대광 연구위원은 안산향교에 대한 논문을 실었다. 또한, 연천 이준용 원장은 연천지역 효자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집필했으며 조선 후기 화성지역민의 충효사상에 대해서는 화성 백도근 연구위원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포천 최창근 연구위원은 포천지역의 위정척사 활동을 연구하였다. 더불어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인 시흥 정원철 원장은 양명학자 정제두를 근간으로 한 시흥유학의 회고와 전망을 집필했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경기향토사학 제23집 발간사업
- 기간 : 2018년 4월 ~ 12월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 목적 및 의의

- 경기도내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료를 조사·연구함으로서 경기향토문화 연구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야 할 내용을 집필함으로써 사라져가는 향토문화예술을 복원하고 보존하는데 일조
- 각 지역의 향토사학을 연구, 조사하면서 지방문화원과의 네트워크 형성

3)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각 지역의 향토문화 전문가들로 구성

- 31개 시,군문화원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및 연구위원들의 역할과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현재진행형의 향토사 재조명

B.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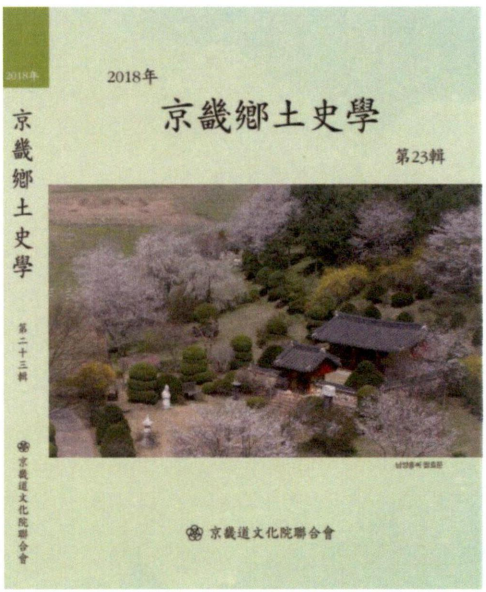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총회를 통해 논문 주제 설정
- 논문계획서 제출
- 자료조사 및 집필
- 논문발표회
- 발간물 평가 및 보고

C. 추진일정

시기	내용	세부일정
3월	사업계획 수립	경기향토사학 제23집 발간 관련 사업계획 수립
4~7월	총회 논문계획서 제출	2018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운영위원회 및 23집 연구방향 설정 (4월 26일, 목요일, 11시, 경기문화재단 강의실) 논문계획서 - 주제,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 등을 포함한 A4 2매 내외 (7월30까지 제출)
8월	심사 및 계약서 작성	접수된 계획서를 토대로 심사(8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갑)과 집필위원(을) 저작권 저촉여부(도상자료-사진, 그림, 각주처리)
8~9월	자료조사 및 논문 집필	논문 계획서 토대로 집필
9월	논문마감 및 제출	A4 30매 내외 사진자료 : 인쇄 가능한 고화질 jpg 파일 9월 30일까지 제출마감 인쇄소 컨텍(9월 중순)
10월	논문 시안 확인	서식통일, 목차, 발간사 작성 1차 시안 수신 후 편집회의(오탈자 수정) 2차 시안 수신 후 추가수정 원고료 지급
11월	편집 및 교정 논문발표회	오탈자, 참고문헌 등 최종수정 및 검토 논문발표 및 피드백
12월	경기향토사학 23집 발간	발간물 배포

4) 세부내용

■ 경기향토사학 제23집 발간



〈경기유학의 어제와 오늘〉
이하준 / 重峯 趙憲의 '忠'의 實踐과 儒學思想 硏究
김세호 / 다산 선생이 노년에 남양주에서 살았던 행적과 사상 조명
정원철 / 시흥 유학(儒學)의 회고와 전망
신대광 / 안산 향교지의 발굴과 현대적 계승
이준용 / 연천의 효자·효부·효녀 가문들
차문성 / 화석정의 역사적 유래와 문화가치 연구
최창근 / 포천의 유학파 화서학파(華西學派)
백도근 / 화성시의 충, 효, 예 인물 및 전통과 그 현재적 의의

〈경기향토사학〉은 경기도 전 지역의 세세한 역사적 기초자료이자 고대에서 근세까지의 경기도 향토사에 대한 총체적 연구서로 평가받고 있다. 매년 연구서적을 발간함으로써 경기지역 향토문화 아카이브와 향토사의 저변 확대를 이끌고,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도민의 애향심 증가에 기여하였다.

올해 경기향토사학 23집은 '경기 유학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각 지역의 유학 관련 내용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발간 전 논문 발표회를 통해 상호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검증 과정을 추가하였다. 이는 아카이브로써의 의미와 향토연구서로써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지난 7월 2~3일 진행된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워크숍에서는 향후 3년간 경기 향토사학에 게재할 주제를 선정하였다. 2018년도는 '경기 유학의 과거와 현재', 2019년은 '경기도 3·1운동, 과거와 현재', 2020년은 '지역 유·무형 문화재 전승 실태 및 발전 대안'이다. 3년간의 주제를 정함으로써 연구기간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연구서적을 발간할 것으로 보인다.

2018_

온라인문화원만들기 고도화사업
경기도문화원미디어센터 구축

1. 기획의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도 지역 문화원, 부설 기관 등은 경기도 내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찾고 경기도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지원 사업을 기획 주관하여 '경기도 문화사'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예술기관과 지역 기반 공동체, 유관 기관 등의 등장으로 전통문화보존에만 집중하거나 동네 어르신의 공간이라는 선입견을 쌓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온라인문화원만들기'는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 세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현실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문화원은 오프라인 사업에 집중해 왔다. 사업을 잘 추진해 놓고도 오프라인 평가 형식인 평가회의 또는 책 발간의 형태로만 성과를 내다보니 이제 외부에서의 시선 혹은 젊은 청년세대들에게 문화원의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기존 문화원 사업의 오프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활용의 한계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문화원의 사업홍보를 청년층까지 다양한 세대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수많은 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기록했다. 이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며 내, 외부 소통 창구이자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SNS 채널 구축을 추진했다. 2017년 온라인문화원만들기에서는 뼈대를 갖추었다면, 2018년에는 온라인문화원만들기 고도화사업으로 미디어센터 페이지를 구축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했다. 특히 기존 문화원의 오프라인 소비계층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연령대의 스펙트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젊은 청년세대의 감각으로 영상물들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20대 도연합회 사업 담당자와 젊은 청년으로 구성된 영상제작사가 함께 함으로써 청년층과 문화원이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문화원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을 하는 한해가 되고자 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2018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사업이다. 앞으로 더 확대되어갈 청년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사업 중 하나가 온라인문화원만들기이다. 오프라인 홍보는 그동안 잘 해오던 것처럼 진행하되, 온라인 홍보를 통하여 청년세대와 소통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다. 지역특성화 프로젝트 동네한바퀴,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의 청년기획자들과 함께 온라인문화원만들기 사업까지 모두 연결된 구조의 형태로 문화원 소비연령대의 스펙트럼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9년에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온라인문화원만들기 고도화사업(경기도미디어센터 구축)
- 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장소 : 경기도 일대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 추진배경

- 현대 세계는 두 차원의 세계가 존재(오프라인&온라인)하며 현실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문화원은 오프라인 사업에 집중해 왔음
- 기존 문화원 사업의 홍보 방식(오프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개제)의 한계
- 창의적이고,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 문화원의 사업을 다양한 세대(청년층)에 홍보

3) 목적 및 의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경기도31개 시·군 문화원의 효과적 홍보 극대화
- 경기도문화원에서 생산된 자료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자료 이용 활성화
- 경기도민, 경기도문화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간의 소통의 장 마련
- 광역단위인 경기도차원에서 각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자료 및 사업현황을 한눈에 보기 위함
- 기존 문화원의 오프라인 소비계층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연령대의 스펙트럼 확대

4)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경기도 문화원의 활동을 PC보다 모바일에 적합한 형태로 콘텐츠 홍보
- 일회성 행사 자료들을 미디어콘텐츠[1]로 압축 및 재구성하여 영구보존
- 콘텐츠 확산을 통한 구독자 참여유도 및 댓글, 1:1문의사항 등 직, 간접적 소통
- 자료의 효율적 관리, 사업현황 등 정보 이용을 위한 업데이트 및 시스템 유지보수
- 미디어콘텐츠 활용을 통한 문자의 한계를 넘어 방대한 정보를 압축 및 전달

B. 추진내용

- 홈페이지
  - 홍보
    - _ SNS활용 지속적 콘텐츠 노출
    - _ 네이버 지식인 활용 유입경로 확보
  - 데이터 뱅크
    - _ 문화원 매뉴얼 전달 및 2017 데이터 수집
      (2019년도 2018년 데이터 업데이트 (업데이트 주기 1년)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요사업 현황 아카이브
    - _ 각 사업별 행사소개/행사일정/행사결과 지속 업데이트
    - _ 도연합회 신규 보유 자료 pdf 업로드 및 신규 콘텐츠 업로드
  - 커뮤니티
    - _ 1:1 문의사항 페이지를 통한 도민들과의 교류 및 피드백 활성화
    - _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공지사항 업로드

1) 미디어콘텐츠 재구성
1) 인쇄물 → 디지털PDF 자료 변환
2) 영상물 → 2차 재가공(자막, 정보 압축, 다양한 관점의 콘텐츠 재생산 등)
3) 사전 → 영상제작 또는 2차 수정 편집본
4) 보도자료 → 디지털 파일로 변환

■ 미디어센터

- SNS)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홍보 및 콘텐츠 업로드
- 영상미디어센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유투브 채널에 경기도 문화원 콘텐츠 제작, 편집 및 업로드
- 콘텐츠제작)

① 기존 아카이브 자료 활용 콘텐츠 제작

1) 인쇄물 → 디지털PDF자료 변환
2) 영상물 → 2차 재가공(자막, 정보 압축, 다양한 관점에서 콘텐츠 제작 등)
3) 사진 → 영상제작에 사용 또는 재가공
4) 보도자료 → 인쇄보도자료 디지털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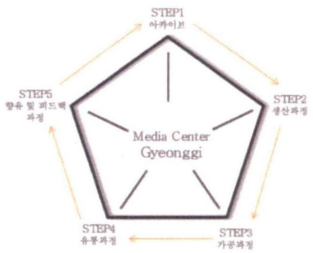
② 신규콘텐츠 제작

1)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영상 제작
①민속예술제 ②향토대학 ③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 ④마을큐레이터 ⑤시낭송 ⑥미래유물전
2)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소개 영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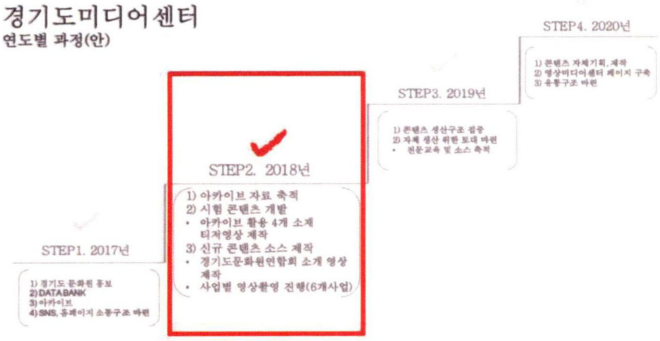
C. 추진체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계획 및 진행 아카이브 입력 콘텐츠 선별 및 기획
콘텐츠 제작 용역	콘텐츠 제작, 편집 및 업데이트
촬영 용역	신규콘텐츠 촬영 및 소스 관리
사이트 유지보수 용역	세부기능 수정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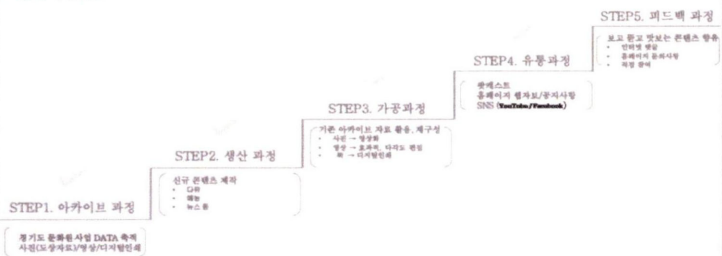
경기도미디어센터
순환구조



경기도미디어센터
연도별 과정(안)



경기도미디어센터
순환과정(안)



D. 추진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문연	사업 기획 및 구성	기본 계획 수립	1차회의 /아카이브	2차/ 콘텐츠 기획/ 아카이브완료	데이터 뱅크업 데이트	3차/ 콘텐츠 기획/ 관리	4차/ 콘텐츠 기획/ 관리	콘텐츠 기획/ 관리	경기문연 홍보 콘텐츠, 결과보고 콘텐츠 기획/ 관리	사업 정산
사이트 유지보수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착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콘텐츠 제작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착수	세부 일정 계획/ 콘텐츠 선별	콘텐츠 기획/ 선별	콘텐츠 제작(2)/ 홍보	콘텐츠 제작/ 선별	콘텐츠 제작(2)/ 홍보	콘텐츠 제작(2)/ 자료선별	경기문연 홍보 콘텐츠, 결과보고 콘텐츠 제작	평가 보고회
신규 콘텐츠 촬영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착수	세부 일정 계획	신규콘텐츠 촬영						평가 보고회

5) 사진자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2018. 09. 13 - 09. 14
경기도 동두천시민회관 실내체육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동두천문화원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귀와 몸을 즐겁게 해주는 소리
"우리 마을이 그렇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시가예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소소한 일상에서

2018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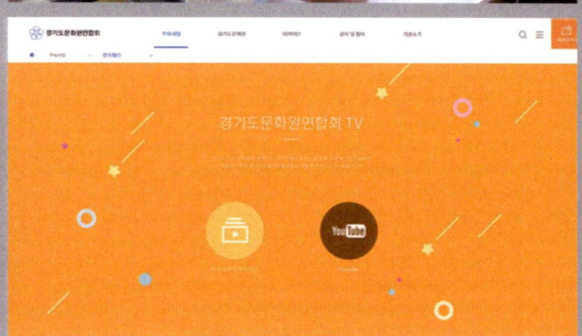
그리고
보 존

이양우 취업준비생
Q. 가장 인상깊었던 강의내용이나 교육을 통해 변화된 것은?
문화기획자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를 밀접하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

2018
경기향토문화대학
경기향토문화유산의 이해
2차년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1개 지방문화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있는 곳!


경기도문화원연합회 TV

올해 온라인문화원만들기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나누고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를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로 발휘했다. 이는 문화원의 역할을 공고화하는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도민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문화원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유사한 시도가 이뤄졌으나 종합적인 접근이 아니었거나 준비 과정 중에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문화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뒤쳐지는 분위기에서 좌초된 것과는 대비된다.

완성된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상의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채널별 주요 타깃층을 설정해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젊은 감성의 영상콘텐츠제작은 일회성으로 끝날 개연성이 높은 강의형, 축제, 세미나 등의 사업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러나 문제는 운영이다. 새로운 정보의 주기적 업데이트, 다양한 인터넷 이벤트를 통한 관심 제고, 도연합회와 유관기관 및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 등 온라인문화원이 그 성과를 내려면 전담 인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네이버 블로그까지 추가로 오픈했고, 페이스북, 유투브채널, 미디어센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공지, 문화원 소식, 데이터뱅크 등 모두 관리하려면 전문인력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그렇다고 업무를 줄이기에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내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문화원과 도민소통의 빠른 피드백을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지역문화원들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를 통해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에 힘을 실어야한다. 향후에는 도민들의 접근성도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서버 확장 및 보안강화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폭 넓은 세대층이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2018 웹진_
경기문화저널

1. 기획의도

일반적인 '문화 소식지'와는 다르게 지방문화원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리를 담고자 했다. 모두가 '지방문화원 위기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은 저마다 다르다. 답을 내리기보다 각자가 생각하는 '솔루션'들을 모아 합의의 장(場)을 만들고자 했다.

3회에 걸쳐 웹진을 발행하기 까지 주제 선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 먼저는 지방문화원을 둘러싼 현안인 지방과 지역, 향토사, 지역사, 전통, 생활문화 등의 개념에 대한 의견을 학술, 현장, 문화원 내외에서 듣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개념 정의라는 완벽한 합의는 이룰 수 없을지라도 차후 심도 있는 토론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16호는 지방문화원인가, 지역문화원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자치분권 시대에 '지역'과 '지방'사이의 경로 설정은 향후 문화원의 사업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향점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시대적 패러다임이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정책적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명칭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더라도 문화원의 정체성과 사업의 방향은 '지역'을 지향해야 하기에 지역과 지방의 학술적 의미 차이, 지방문화원이 지역(Local) 중심의 사고를 하기위한 방향 제언 등을 각계 전문가의 칼럼으로 실었다.

17호는 문화원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 사업이기도 한 '향토문화'의 개념 재정립을 위

한 방향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향토문화가 지역문화인지 전통문화인지', '지역학연구인지 향토문화연구인지', '전통과 역사, 향토와 민속은 어떻게 다른지'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지방문화원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방문화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코뮤니타스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고,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지역학, 민속학, 문화원형의 활용적 측면에서 향토문화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18호는 '생활문화'를 주제로 문화원이 생활문화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재단, 문화의집과 달리 문화원은 생활문화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사업에 접근해야할지 경기, 인천, 춘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문화원 내부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경기도문화원 사무국장 연수에서 '생활문화 집담회'를 개최해 문화원 국장, 문화의집 관장, 외부기획자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윤색하여 저널에 싣기로 하였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웹진)경기문화저널
- 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 목적 및 의의

- 문화예술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문화원 발전방향 수립 및 공론화
- 문화원 사업의 당위성 부여 및 현장 상황 수렴
- 문화원 내·외부 사업 공유로 문화원 기획자의 기획력 제고
-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발전

3)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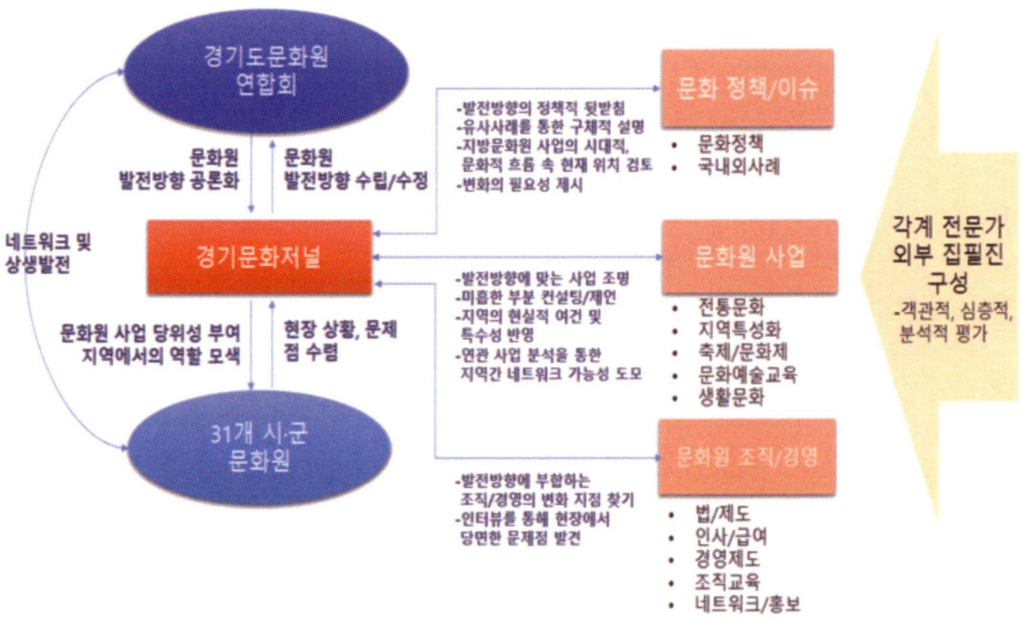
A. 추진방향

- 도연합회, 외부 편집장 기획으로 웹진 3회 발행
- 시의성, 연관성, 가치성을 고려한 주제 및 집필진 선정
- 연1회 통합본 책자 발간

B. 추진내용

- 웹진 사이트(http://www.ggjournal.or.kr) 운영 및 관리
- 웹진)경기문화저널 발행
  - 발행주기 : 웹진 3회(16,17,18호), 책자발간 1회(특별호)
  - 배포방법 : 도연합회 웹진 사이트 게재
  - 배 포 처 :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원연합회, 경기도 및 지자체, 문화예술과 담당자, 경기도 내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관리자,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회원 e-메일, 메일링 서비스 신청자
- 통합본 책자 발간

C. 추진체계



D. 추진일정

<table>
<tr><th></th><th>3, 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h>11월</th><th>12월</th></tr>
<tr><td>01~5일</td><td rowspan="6">사업계획</td><td rowspan="3">사업계획</td><td rowspan="3">편집회의</td><td rowspan="2">편집회의</td><td>16호발행 /뉴스레터 발송</td><td rowspan="3">17호집필 /웹진 사이트 수정 보완</td><td>17호발행 /뉴스레터 발송</td><td rowspan="5">녹취윤색 및 교정교열</td><td>녹취윤색 및 교정교열</td></tr>
<tr><td>6~10일</td><td>편집회의</td><td>편집회의</td><td rowspan="2">18호발행 /뉴스레터 발송</td></tr>
<tr><td>11~15일</td><td rowspan="4">16호집필</td><td rowspan="3">17호집필/ 웹진 사이트 수정 보완</td><td rowspan="3">녹취윤색 및 교정교열</td></tr>
<tr><td>16~20일</td><td rowspan="2">편집회의 /유지보수 계약</td><td rowspan="2">사이트 수정보완</td></tr>
<tr><td>21~24일</td><td rowspan="2">책자발행 / 정산</td></tr>
<tr><td>25~28일</td><td>7호 편집/ 디자인</td></tr>
<tr><td>29~31일</td><td>편집회의</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 세부내용

■ 주제별 웹진 및 뉴스레터 3회 발행

• 16호 :로컬 지향의 문화원을 위하여

구분	제목	집필자	기사별	내용별
1	로컬지향의 문화원을 위하여	고영직 | 문학평론가, 경기문화저널 16호 편집장	칼럼	정책/ 이슈
2	[기획대담] 지역문화 분권시대에 지방문화원을 고민하다 _ <문화비전 2030>의 지역문화정책과 지역의 준비 태세를 논하다	차재근 | 문체부 직속 제2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인터뷰	정책/ 이슈
3	지방문화원인가, 지역문화원인가 _ 자치분권 시대 문화원이 나아갈 길	염신규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인천대 겸임교수	칼럼	조직/ 경영
4	지방문화원, 이제 지역문화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랑 |문화기획자	칼럼	사업
5	'삶터'가 '일터'가 되는 로컬을 고민하다 _ 일본 아와지시마 <하타라쿠 가타치 연구섬>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현장	사업

• 17호 :부류하는 향토문화의 개념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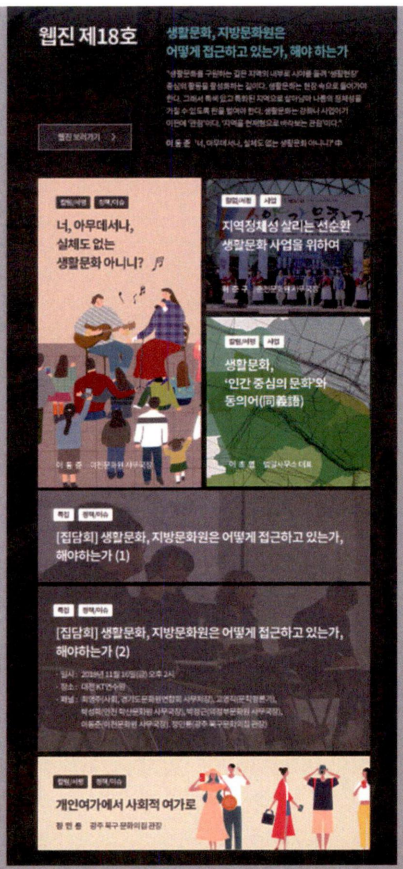
구분	제목	집필자	기사별	내용별
1	향토학의 지방주의를 넘어서	구모룡 |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특집	정책/이슈
2	[대담] 경기지역 향토문화의 발전 방향 모색	신동호(코뮤니타스 대표)	인터뷰	조직/경영
3	전통문화인가, 향토문화인가 _ 경기 향토문화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하여	최영주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칼럼/서평	정책/이슈
4	박제된 향토사를 소생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 — 부산 지역의 지리와 역사를 되살린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이상섭 | 소설가	칼럼/서평	사업
5	지역에서 향토문화연구를 한다는 것	신대광 | 안산 향토문화연구소장,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현장	사업
6	'향토음식', 과연 존재하는가?	주영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민속학 담당 교수	칼럼/서평	정책/이슈

•18호 :생활문화, 지방문화원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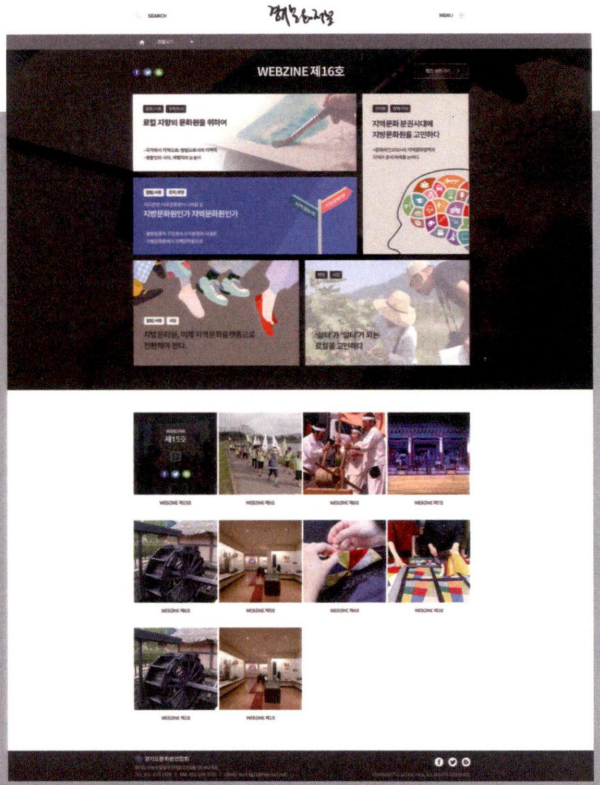
구분	제목	집필자	기사별	내용별
1	너, 아무데서나, 실체도 없는 생활문화 아니니?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칼럼/서평	정책/이슈
2	지역정체성 살리는 선순환 생활문화 사업을 위하여	허준구(춘천문화원 사무국장)	칼럼/서평	사업
3	생활문화, '인간 중심의 문화'와 동의어(同義語)	이초영(별일사무소 대표)	칼럼/서평	사업
4	[집담회] 생활문화, 지방문화원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해야하는가 (1)	사회: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패널: 고영직(문학평론가) 박성희(인천 학산문화원 사무국장) 박정근(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정민룡(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특집	정책/이슈
5	[집담회] 생활문화, 지방문화원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해야하는가 (2)	사회: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패널: 고영직(문학평론가) 서교송(파주문화원 사무국장) 오민영(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병권(시흥문화원 사무국장) 정민룡(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6	개인여가에서 사회적 여가로	정민룡(광주 북구문화의집 관장)	특집	정책/이슈

웹진 제16호
로컬 지향의 문화원을 위하여
웹진 보러가기
로컬 지향의 문화원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인가 지역문화원인가
지역문화 분권시대에 지방문화원을 고민하다
지방문화원, 이제 지역문화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삶터'가 '일터'가 되는 로컬을 고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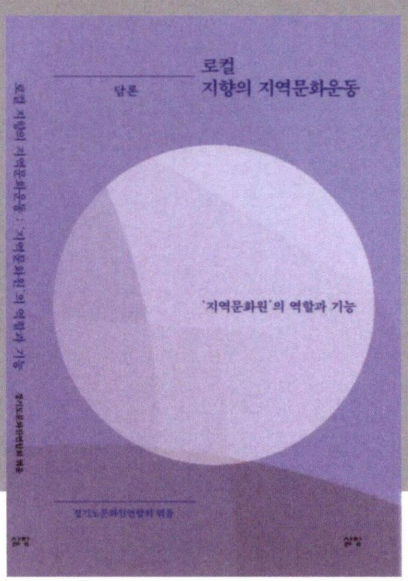
웹진 제17호
부류하는 향토문화의 개념을 찾아서
웹진 보러가기
향토학의 지방주의를 넘어서
[대담] 경기지역 향토문화의 발전 방향 모색
전통문화인가, 향토문화인가
박제된 향토사를 소생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
지역에서 향토문화연구를 한다는 것
'향토음식', 과연 존재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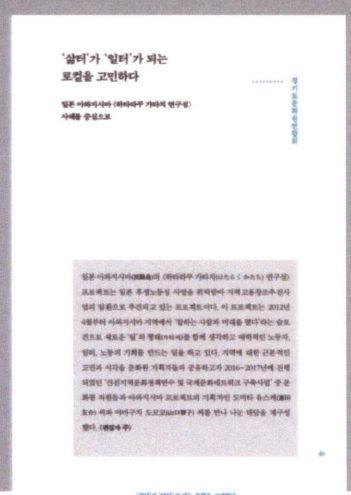

웹진 제18호
생활문화, 지방문화원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해야 하는가
웹진 보러가기
너, 아무데서나, 실체도 없는 생활문화 아니니?
지역정체성 살리는 선순환 생활문화 사업을 위하여
생활문화, '인간 중심의 문화'와 동의어(同義語)
[집담회] 생활문화, 지방문화원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해야하는가 (1)
[집담회] 생활문화, 지방문화원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해야하는가 (2)
개인여가에서 사회적 여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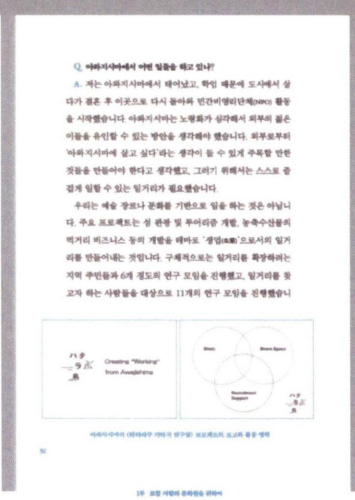
■웹진 사이트 디자인 변경 및 사이트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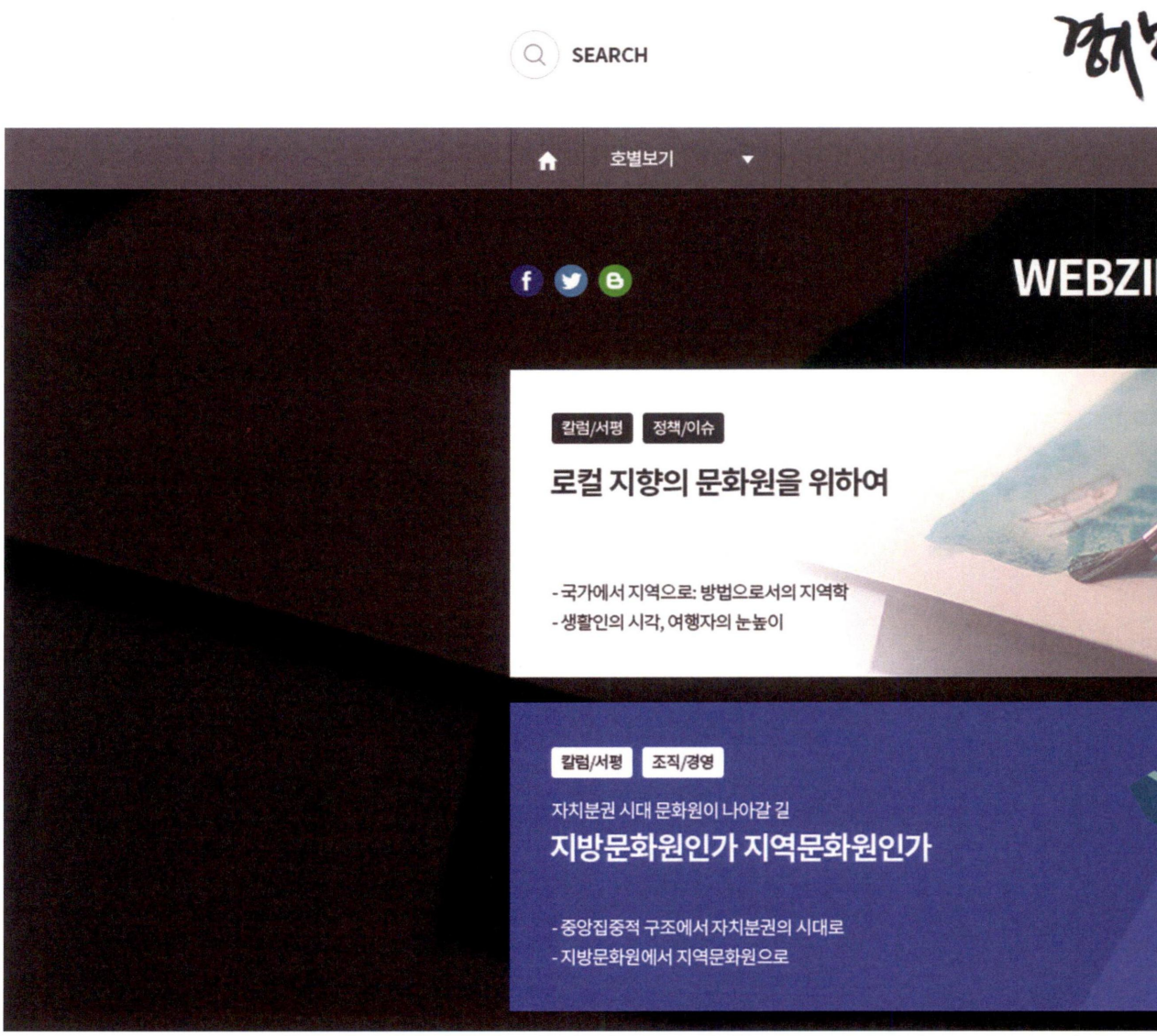
■통합본 '로컬 지향의 지역문화운동'발간 (232쪽, 삶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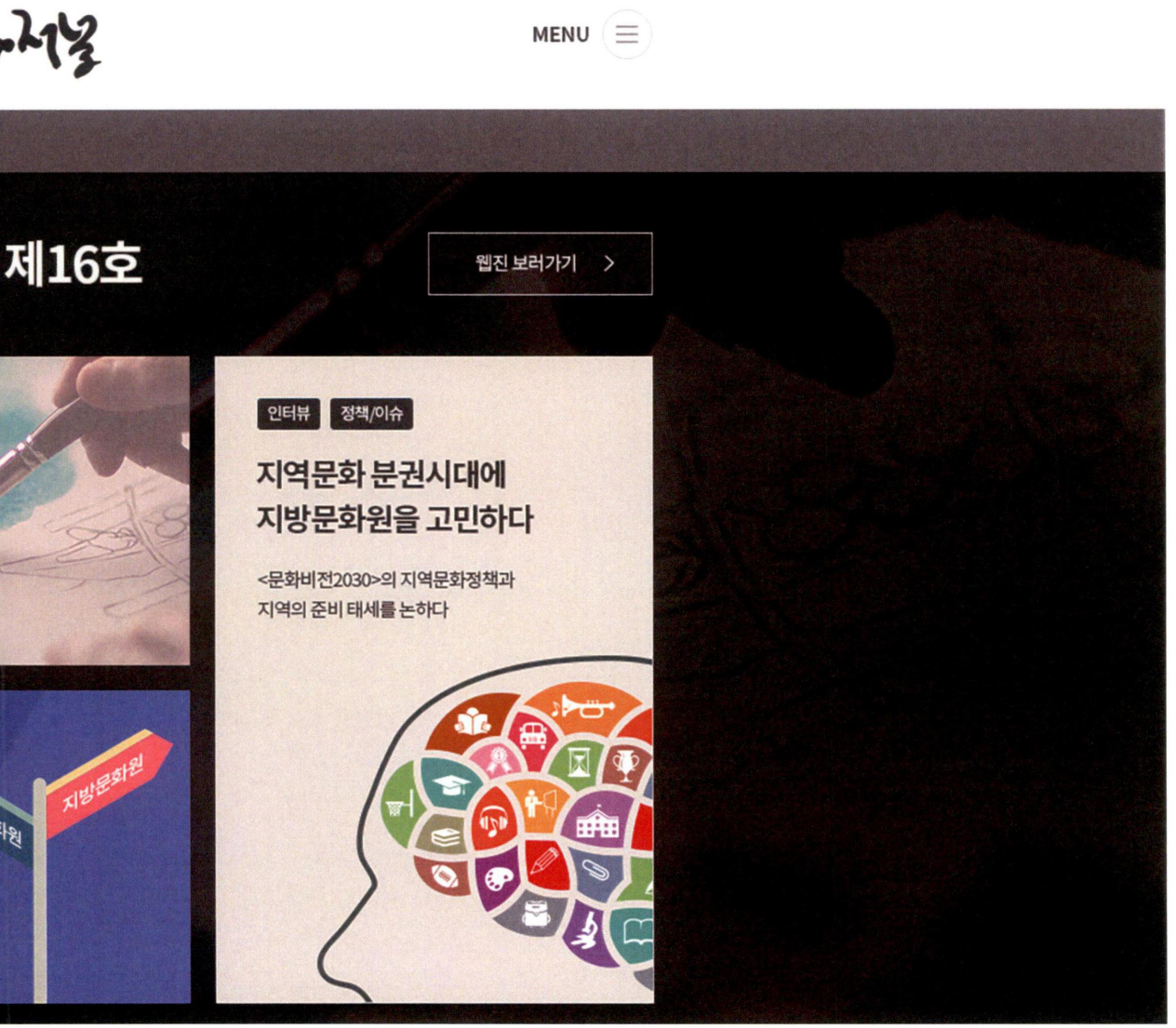


'지역문화', '향토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재정립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방문화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연합회의 입장으로써 하나의 개념어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경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웹진)경기문화저널 사업으로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개념 논의부터 방향 제언까지 주제를 선정하여 짜임새 있는 웹진을 발행하였다. 연 3회라는 적은 횟수지만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학계, 현장, 문화원 내외 필진들을 구성하여 하나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문화원 내 공론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사를 보여주는 플랫폼인 '경기문화저널'사이트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브메인을 추가하여 최신호 업데이트 상황과 주제별 보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사보기의 편집 디자인을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구독자 신청란을 추가함으로써 구독자관리가 유용하고, 정량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성 필진의 참여가 저조한 점과 기사에 대한 커뮤니티 기능이 없는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온라인상에서 진정한 공론장(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18 경기도인문학네트워크사업_
제8회시가예찬 in 오산
"기억의 상상"

1. 기획의도

시가예찬은 "지방문화원이 지역인문학적 가치의 중심에 서자!"는 슬로건으로 8년 전부터 진행해오는 사업이다.
올해는 오산지역의 가치를 인문학적으로 재조명해보는 기획으로 추진했다.
시(詩)는 세상을 읽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했다.
본 행사를 통해 낭송될 시에 묘사된 오산 시민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탄생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
시인 김정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게 시의 문제는 사회성과 서정성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서정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이다"라고. 그리고 시인 김수영은 "역사라는 기차는 억압받는 자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질주한다"고 했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자신이 바라는 꼭 그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어진, 물려받은 환경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철학자 강신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파르타쿠스, 스텐카 라친, 도척, 전봉준 모두 실패했다. 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삶은 끝내 불가능한 것일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저항을 극복하려는 자유정신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비록 뜻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분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산지역의 역사와 3.1운동 독립운동가의 역사는 자유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 기억되어야 한다. 시가예찬을 통해 오산을 만들어 낸 사람들의 기억이 과거와 어떻게 삼투압하여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그려보고 싶었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　칭 : 경기도인문학네트워크사업 제8회 시가예찬 2018 in 오산
  〈기억의 상상〉
- 기　간 : 2018년 10월 10일(수) 16시 ~18시
- 장　소 : 경기도 오산시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공동주관 : 오산문화원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오산시, 오산시의회
- 참여대상 : 경기도 관계자 및 경기도민 300여명

2) 목적 및 의의

- 경기도 인문학적 정체성의 중심에 문화원이 있음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함
- 경기도의 정체성 및 저력을 발견하는 인문학축제로의 지향을 가지고자 함

3)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경기도 출신 역사문화인물 및 시인의 작품 재조명
- 자치단체장, 경기도의원 및 문화예술인들의 시낭송 및 시노래 콘서트
- 경기도의원 및 문화원장의 시낭송은 출신 지역구에서 배출된 시인의 詩를 선정, 낭송
- 지역문화공간의 활용으로써 무대의 다변화를 꾀함 → 조명과 음향의 효과적 배치·사용

B. 행사 구성 콘텐츠

- 시낭송 : 약 17 편
- 시퍼포먼스 : 약 2 팀 (실버합창단 외 1팀)
- 영상구성 : 주제영상 별도 제작 및 상영
- 시 콘텐츠 제작 및 발표 : 시노래 제작 및 발표 (대중가수)
- 하우스밴드 구성을 통한 BGM 최소화

구분	내용	비고
의전 (20)	경기도지사, 도의회, 오산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등	
오프닝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다. <오산의 역사와 현재 영상구성>	
첫째마당	기억의 풍경 : "시간의 껍질" _ 조석구 <오산인터체인지> 중에서 ·정조의 목민사상과 목민관의 시 세계에 대한 조명 ·조석구 시인이 경험한 오산사람들에 대한 인문학적 조명 "경기도 지역 문화원장의 오산사람에 대한 헌정" ·정치인의 애송시를 중심으로 한 시낭송 중심의 마당	
둘째마당	기억의 은유 : "브라보 폭탄주"_ 조석구 <뿌리가 깊은 강> 중에서 ·시(詩)라는 언어예술이 소리(音)와 만나 구현되는 예술적 구현에 대한 조명 ·오산지역시인이 조명한 삶의 풍경을 음악콘텐츠로 제작 및 상연 ·영상구성, 시 노래의 재즈로의 변주, 콘서트 중심의 마당	
셋째마당	기억의 상상 :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_ 조석구 <오산인터체인지> 중에서 ·3.1운동을 통한 자유를 향한 민족정신의 인문학적 조명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개념임을 선언하는 마당 ·영상구성, 시극, 시낭송 등을 중심으로 한 집체극 형식의 퍼포먼스 중심의 마당	

C. 추진일정

시기		내용	비고
8월	1	기본계획	
	2	세부계획, 홍보 및 인쇄물 기획, 장소대관	
	3	음향 및 조명·무대, 홍보물 업체 선정, 출연자 섭외	
	4	1차 홍보물_현수막, 초청장 제작 완료	
9월	1	영상 제작	
	2	출연자 섭외 완료, 초청장 발송, 1차 큐시트 작성	
	3	참가자(출연자) 공지	
	4	영상제작 완료, 프로그램북 제작 완료	
10월	1	최종 큐시트 작성	
	2	사업 시행	
	3~4	정산 및 평가	

D. 역할분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원
·사업 총괄 및 기획 ·광역 홍보 ·예산 집행 및 정산 ·출연자 섭외	·장소 대관 ·음향, 조명, 홍보물 업체섭외 ·출연자 섭외 ·사업 진행 ·지역 홍보 ·지역 인문학동아리 조사 및 협조

4) 세부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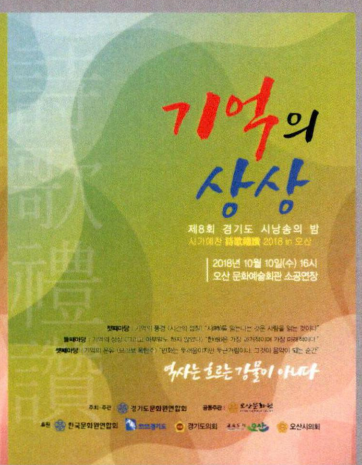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의전 순서	1부 의전행사 (약 20분 소요예정)		
	내빈소개	사회자	
	개회사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인사말	공창배 오산문화원장	
	격려사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환영사	곽상욱 오산시장	
	환영사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환영사	안민석 국회의원	
첫째 마당	2부 본행사 (약 80분 소요예정)		
	기억의 풍경 "시를 읽는다는 것은 사람을 읽는 것이다"		
	조석구(초대원장)	"늦가을의 현주소"	
	곽상욱(오산시장)	"마을버스"	
	이미라(동두천문화원)	"어느 정년 퇴직자의 하루"	
	장인수(오산시의회 의장)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길생(용인문화원장)	"소금꽃"	
	안민석(국회의원)	"가을우화"	
	김문영(여주문화원장)	"코스모스이야기"	
	김명철(오산시의원)	"가장동"	
	강한석(오산예총회장)	"초전비를 지나며"	
	공창배(오산문화원장)	"무봉산 친구"	

구분	내용		비고
둘째 마당	기억의 상상 "역사는 흐르는 강물이 아니다. 한(恨)은 가장 과거적이며 가장 미래적이다"		
	꿈의학교 아이들	시노래 "엄마야누나야"	
	조충현(시낭송협회)	안중근 "장부가"	
	박종순(시낭송협회)	유관순 "유언"	
	시낭송퍼포먼스	현대무용가 이정은	
	남기선(아나운서)	이상화"빼앗긴들에도봄은오는가"	
	영상퍼포먼스	윤봉길과 김구 일화 영상구성	
	조은주(시낭송협회)	이육사 "광야"	
	공창배	윤동주 "별 헤는 밤"	
	황석연	한용운 "님의 침묵"	
셋째 마당	기억의 은유"변화는 두려움이지만 두근거림이다. 그것이 음악이 되는 순간"		
	재즈보컬리스트 "리마"	시노래 <가을편지>, <봄날은 간다>	
	하모니싱어즈 "에코"	시노래 <모란동백>, <서시>	
	성악가 "김준호/이진원"	시노래 <향수>	
	오산시니어물향기합창단	시노래 <고향의봄>, <새야새야>	
	커튼콜		

YAMA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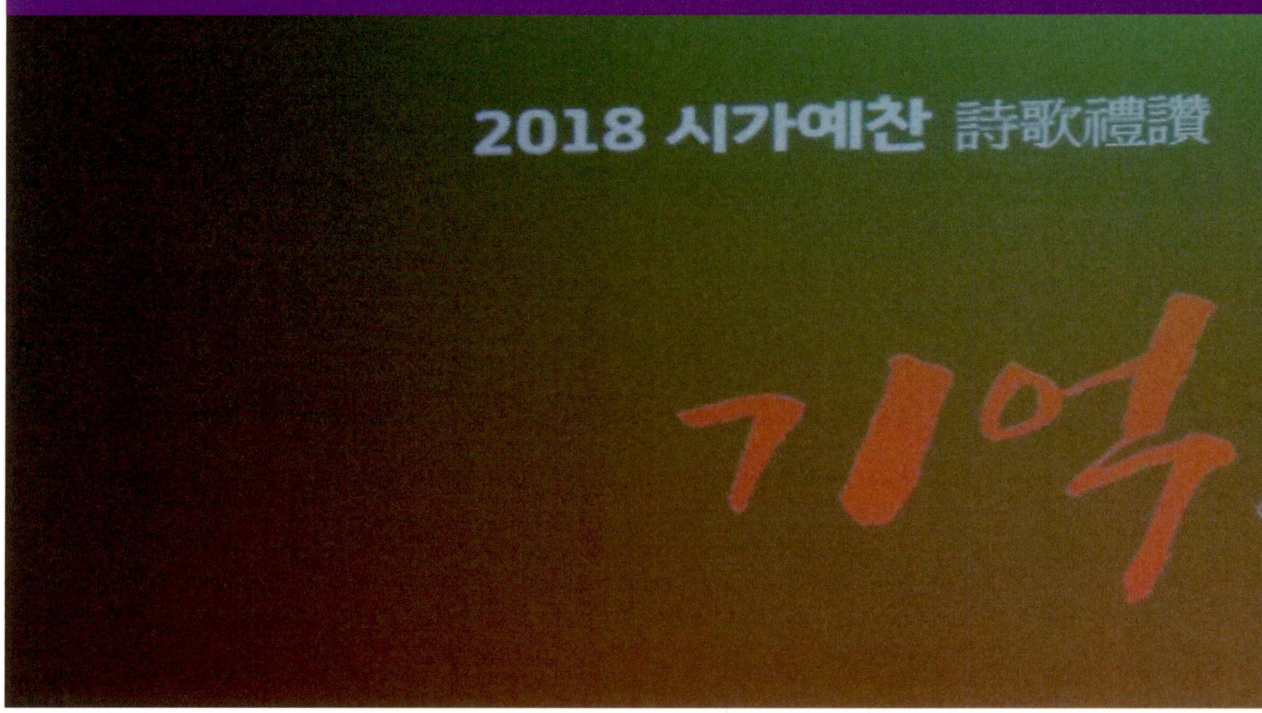
YAMAH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기억의
상상
제8회 경기도 시낭송의 밤
시가예찬 詩歌禮讚 2018 in 오산
2018년 10월 10일(수) 16시
오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오산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의회
오산시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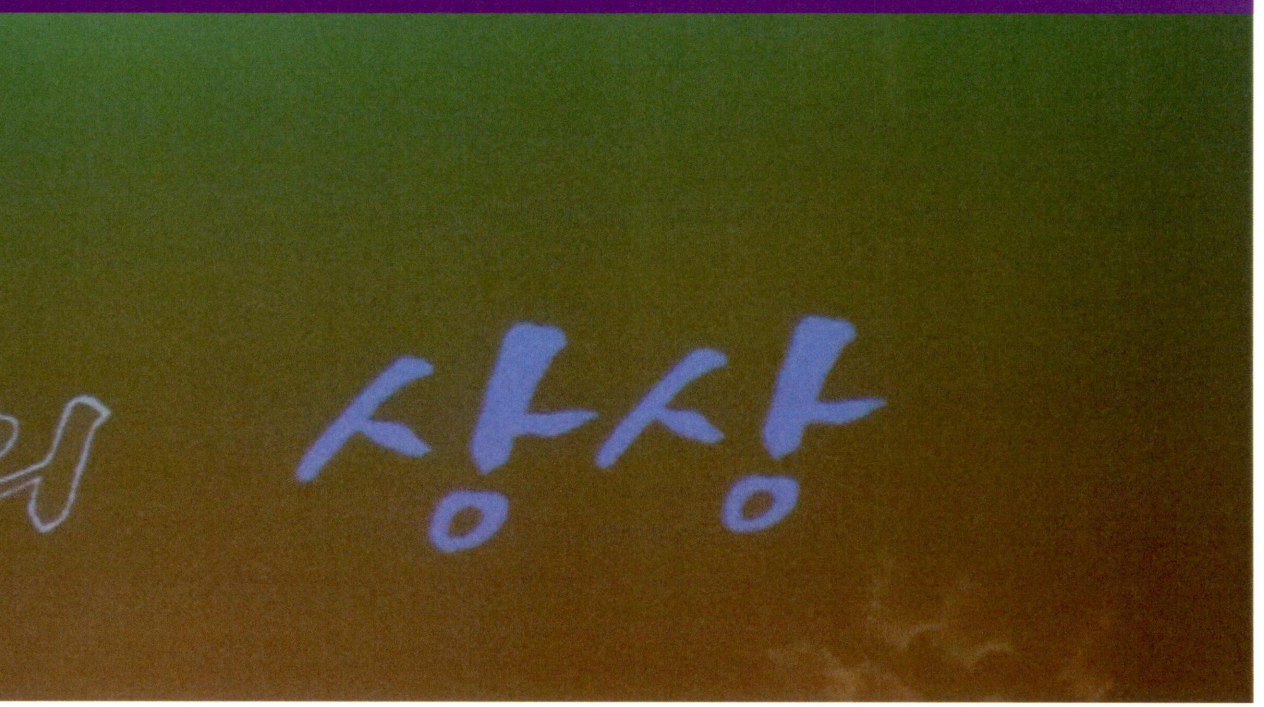
프로그램 북

인문학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낯설게 만들어 기존의 가치와 의식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하기에 중요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글로 표현될 때 그것을 시(詩)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힘을 '감수성'이라 정의해봤다.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의 언어보다 기계의 말을 더 많이 배우고 자란다.
현대사회는 언어의 의미가 과잉되고, 정보화되고 기계화된 소통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를 통해 시각보다는 청각에, 청각보다는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작은 떨림을 감지하는 '감각의 회복'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 이 행사는 '경기도지방문화원이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의 중심에서 지역을 일깨우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들어가겠다'선언하는 자리이고자 했다.
본 사업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오산문화원이 공동주관한 제8회 경기도시낭송의 밤 '시가예찬 2018in오산〈기억의 상상〉'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첫째마당 〈기억의 풍경〉은 "시를 읽는다는 것은 사람을 읽는 것이다"라는 타이틀로 오산문화원 초대 원장이셨던 조석구 시인이 경험한 오산사람들의 삶을 인문학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으로 총 10편의 시를 경기도지역 문화원장들이 오산사람에 대한 헌정 시를 낭송했고 이어서 오산시장과 오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오산시의원과 기관장들이 답시를 낭송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둘째마당 〈기억의 상상〉은 "역사는 흐르는 강물이 아니다. 한(恨)은 가장 과거적이며 가장 미래적이다"는 부제로 퍼포먼스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우선 오산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과거에 집중했다. 그리고 과거 민중들의 삶을 상상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자유정신을 찾아보고자 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경기도 시낭송의 밤 〈시가예찬〉은 "이제는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의 중심에 서자!"는 슬로건으로 장기적으로 인문학축제로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단순히 애송시를 낭송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역다움'을 문화원에서 인문학적으로 다시 관찰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였고, 이러한 결과물들이 오늘 낭송한 시를 통해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 번째 마당 〈기억의 은유〉는 "변화는 두려움이지만 두근거림이다. 그것이 음악이 되는 순간"이라는 부제로 콘서트 중심의 마당으로 기획되었다. 과거를 담은 시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하모니로 은유를 갖고, 그 은유에 힘입어 발산되는 '새로운 감성'에 주목하고 싶었다. 이곳에서 울려 퍼진 한마디 한마디의 '시어'가 오랜 그리움을 깨우는 잔향으로 머무르길 바란다.



2018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_
미래유물전 in 부천

1. 기획의도

지역 매칭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문화원의 역량과 여건이 큰 영향을 준다. 때에 따라서는 도연합회 주도로 진행되기도 하고, 문화원의 기획을 적극 수용하기도 한다. 이번 미래유물전을 함께하는 부천문화원에선 하고자 하는 주제와 방향이 명확했다. 지역의 문인과 문학을 중심으로 전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도연합회는 미래유물전에 대한 큰 방향 제시와 컨셉회의를 함께 하면서 최대한 문화원의 기획과 방향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4회째 맞이하는 〈2018미래유물전in부천〉에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문학부문)로 지정된 부천 지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천지역 문인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전시를 기획했다. 부천의 문인들을 발굴,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현재'를 들여다보도록 했다. 한국 신시(新詩)의 선구자이자 민족시인 변영로, 한국 대표아동문학가인 목일신, 여성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 정지용, 1980년대 한국 현대소설을 대표하는 「원미동 사람들」의 양귀자 등 수많은 문인들이 부천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이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하였고, 현재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을 네트워크 하여 작품을 소개하고,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전시가 오픈되는 10월 29일에는 문화공연과 함께 부천문학에 대한 강의를 마련하여 전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기획하였다.

〈미래유물전〉은 단순,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지금(현재성)'을 조사함으로써 '여기(장소성)'가 갖는 의미를 재발견하는 전시이다. 지역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역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의 삶을 조사하고, 발견하고, 의미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의 '현재'를 나타내는 주제가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다. 가능하면 주관적인 감정은 제외하고, 지역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전시가 되었으면 했다. 이로써 느끼는 감정을 통해 지역의 '앞으로'를 저마다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는 미래의 유물이 되지 않을까? 상상하며 〈미래유물전〉을 준비했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생활문화공동체네트워크사업 〈2018미래유물전 in 부천〉
- 기간 : 2018년 3월 ~ 12월/ 전시기간 10월 29일(월)~11월 5일(월)
  *오픈행사: 2018년 10월 29일(월) 13시
- 장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천문화원

2) 목적 및 의의

-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고유성(정체성) 발견
- 지역의 재구성과 네트워킹 확대 가능한 구조 형성
- 문화예술로 지역의 문제를 공동 해결하는 소통의 장 조성

3)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부천문화원과 공동주관 형태로 진행
- 부천의 문학인을 조명하고, 문학을 통해 부천의 현재를 재구성하는 전시 진행

B. 추진내용

- 워크숍 및 조사, 연구 활동
- 〈2018미래유물전 in부천〉 개최
- 미래유물전 도록 제작

C.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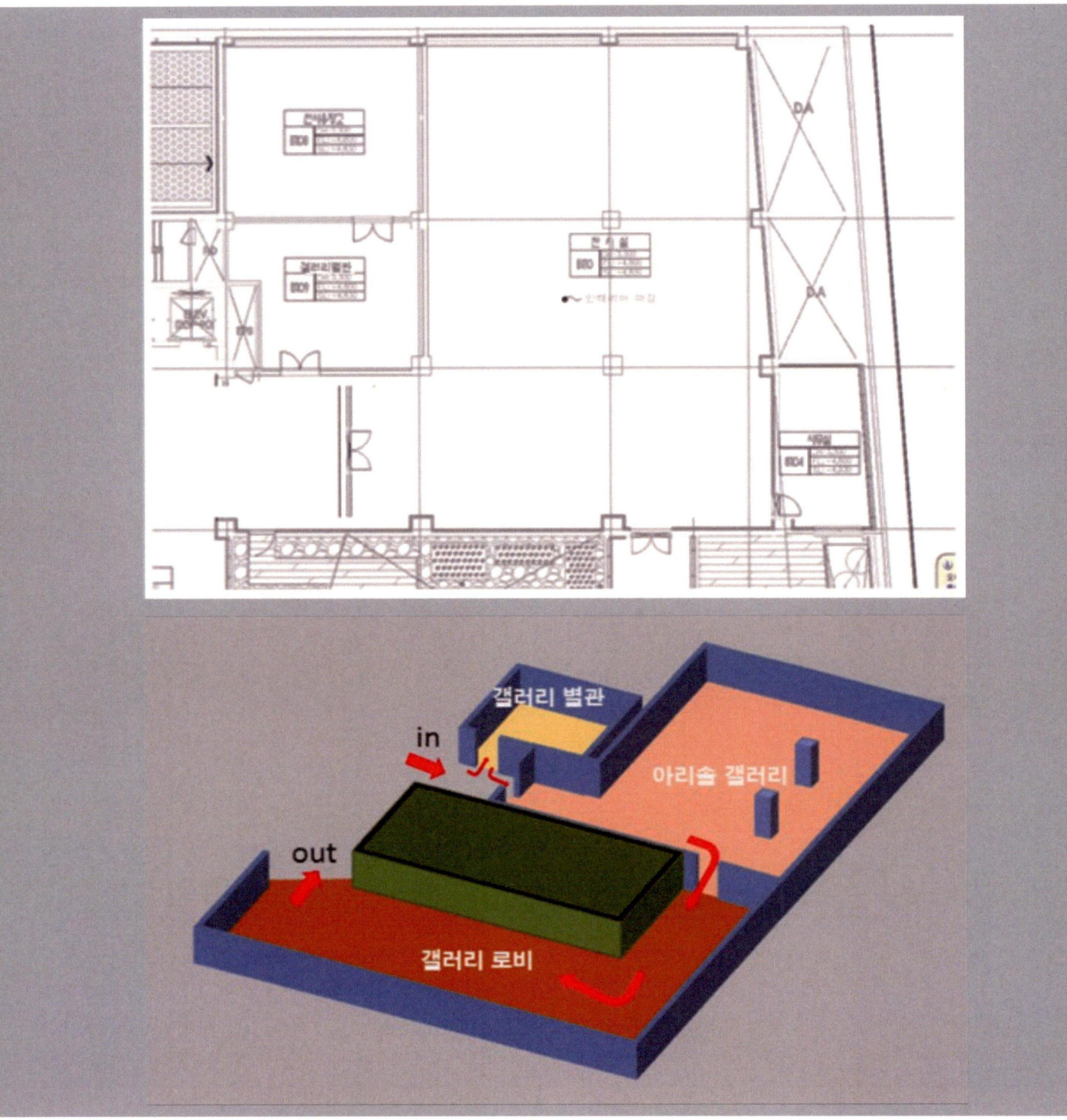
기본계획	세부계획	워크숍 및 조사, 연구	작품 및 전시 준비	미래유물전 개최/진행	도록제작	평가 및 결과보고	정산

D. 추진일정

월 / 진행내용		6	7	8	9	10	11
사업공유기획회의		■	■				
컨셉조정			■	■			
진행팀 구성			■	■			
인터뷰 및 전시품수집			■	■	■		
전시내용정리	지역조사, 스토리텔링 작업			■	■		
	영상작업			■	■	■	
	텍스트, 이미지 조정 및 전시방안확정			■	■	■	■
전시설치작업						■	■
전시						■	■
도록제작						■	■
정산							■

4) 주요구성

- Part Ⅰ : 문학 : 기억, 복사골을 노래하다
- Part Ⅱ: 인물 : 복사골에 살다
- Part Ⅲ: 창의 : 복사골의 미래를 꿈꾸다



[아리솔 갤러리 도면]

5) 세부프로그램

■오픈식

축하공연 (축시, 재즈공연, 아프리카타악기 공연)

컷팅식

전시라운딩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전시

part1. 복사골을 기억하다

돌아가신 작가들과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조화있게 배치, 곡사골을 기억하며 노래한 그들을 예우하고, 기림

part2. 복사골에 살다

부천을 대표하는 여러 문인 중 대표적인 5인(번영로, 펄벅, 목일신, 정지용, 양귀자)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문학작품에 녹아든 생각을 소개

part3. 복사골의 미래를 꿈꾸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으로 선정되어 향후 어떤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인지 영상을 통해 엿봄

도록 발간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2018.
10.29.(월)
|
11.05.(월)
개막식
10.29.(월)
13:00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
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
2018 미래유물展 in 부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목일신

경기도 31개 지역을 순회하며 각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경기도 생활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미래유물전은 올해 4회째로 이천, 평택, 의정부를 거쳐 부천에서 전시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부천문화원과 협력하여 진행하되 부천문화원의 기획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다만, 과거 향토유물전시가 아닌 지역의 '현재'를 재조명한다는 미래유물전의 취지는 놓치지 않고자 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부천지역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고, 펄벅, 목일신, 번영로 등 부천지역의 문학인들의 삶과 부천과 관련된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부천시민과 경기도민에게 부천의 또 다른 모습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부천문화원은 지역의 문학단체(부천문인협회, 복사골문학회, 부천여성문학회, 한국작가회 부천지부)와 부천 문인들을 네트워크 함으로써 부천의 문화를 알리고, 계승하는 지역문화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학'을 소재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동체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2018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_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II

1. 기획의도

2016년도에 시작된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는 문화학교에서 파생되었거나 기존에 문화원과 관계 맺으며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지원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핵심은 강사중심, 문화원 의존이 아닌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지방문화원에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방문화원은 사업의 구조를 플랫폼 형식으로 변화시켜야할 필요가 있었다. 경기도 31개 지역문화원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활동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 되는 구조이다. 플랫폼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보를 제공하며 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내가 가진 것을 기반으로 한 활용, 확장이 아닌,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문화원 내에서 자체적인 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지역문화원과 지역사람(활동가)이 어느 수준 까지 협력할 수 있을지, 협력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일종의 실험적 프로젝트였다. 또한 향토사를 과거의 영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현재형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여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연결점을 찾고자 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화원과 함께 일할 10명의 마을큐레이터를

양성하는 것이며 이들과 최종적으로 전시 또는 축제, 문화원 관련 사업, 콘텐츠 등으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활동가들의 지역 조사 결과물들을 재구성하여 전시프로젝트인 〈미래유물전〉으로 연결하고자 했다.

전반적인 목표와 참여자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끌어내 자신이 사는 마을을 조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되, 구체적인 진행 프로세스나 대상, 방식 등은 최대한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하남과 의왕의 실행 방법과 구체적인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남은 연계 가능한 지역 활동가나 동아리가 적어 새롭게 사람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모였고, 2년차 역시 문화원과 연결고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찾기 위해 신규모집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기존 참여자 일부 참여) 연령대는 5~60대가 대다수로, 방식은 이들이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와 '지역'의 이야기가 중첩되는 '이야기 찾기'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의왕은 활동가들을 재교육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1년차에 의왕시에서 활동하는 향토문화연구회와 청계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 활동가들이 문화원과 처음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 하였으며 이들이 2년차에도 참여를 원해 올해는 의왕시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매핑으로 마을 읽기 심화과정을 진행하였다.
하남은 개별적인 활동가를 문화원에서 발굴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방향으로, 의왕은 기존 활동가, 동호회, 마을 조직과 관계를 맺고 이들과 연계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2년차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2018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Ⅱ〉
- 기간 : 2018년 3월 ~ 12월/ 의왕 6월 1일~8월 24일, 하남 6월 22일~8월 24일
- 장소 : 의왕문화원, 하남문화원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왕문화원, 하남문화원

2) 추진배경

-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중심에 위치하였으나 그 역할이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과 전례의 답습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인식으로 인해 생활문화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 주민들의 삶을 다룬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전통과 역사에 대한 학식 높은 활동가들로 구성된 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음
- 생활문화관련 사업 지원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문화원 목적사업의 일환인 향토문화 보급과 보존이라는 목적사업에 현재성을 담은 생활문화적 버전 필요
- 주민이 직접 현재의 생활문화를 읽어내 지역특성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주민과 문화원이 네트워크 하는 구조 마련

3) 목적 및 의의

- 지역 문화원이 지속적으로 지역소재 발굴 및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 기획을 할 수 있는 지원구조 마련
- 지역을 인문학적 시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로 주민 활동가 양성
- 문화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결망 구성으로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주민 참여와 문화원과 주민 간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 의미 찾기로 지역다움 발견

3)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의왕, 하남문화원과 2차년도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지역 내에서 자발적, 주체적 문화 활동을 하기까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문화원이 지역주민자원과 네트워크하여 지역의 생활문화를 읽어내는 구조 마련

• 의왕문화원 추진 방향: 의왕시 내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활문화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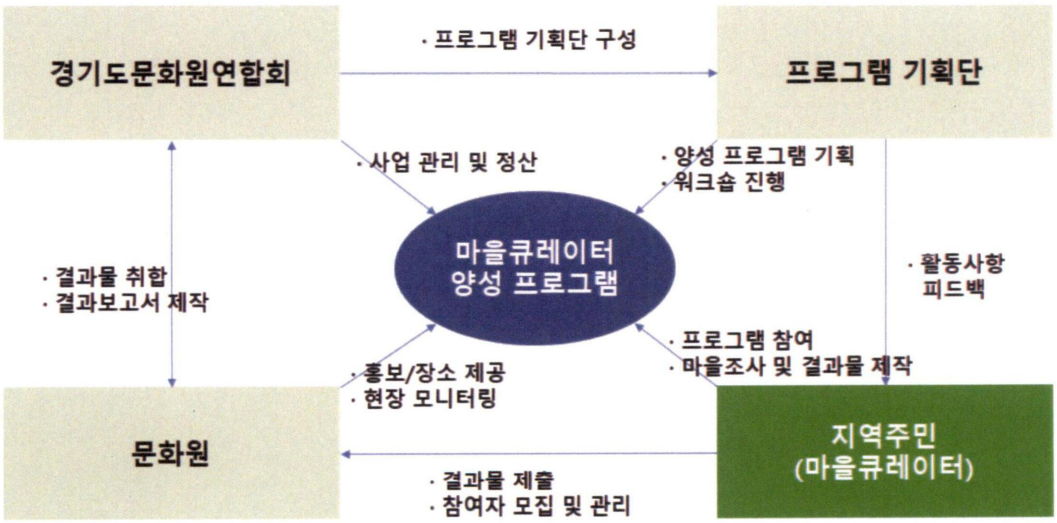
• 하남문화원 추진 방향: 문화원 회원 및 주민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생활문화 읽기

■ 시민 주도의 지역읽기 활동을 통해 3차년도 지역의 현재를 재구성한 전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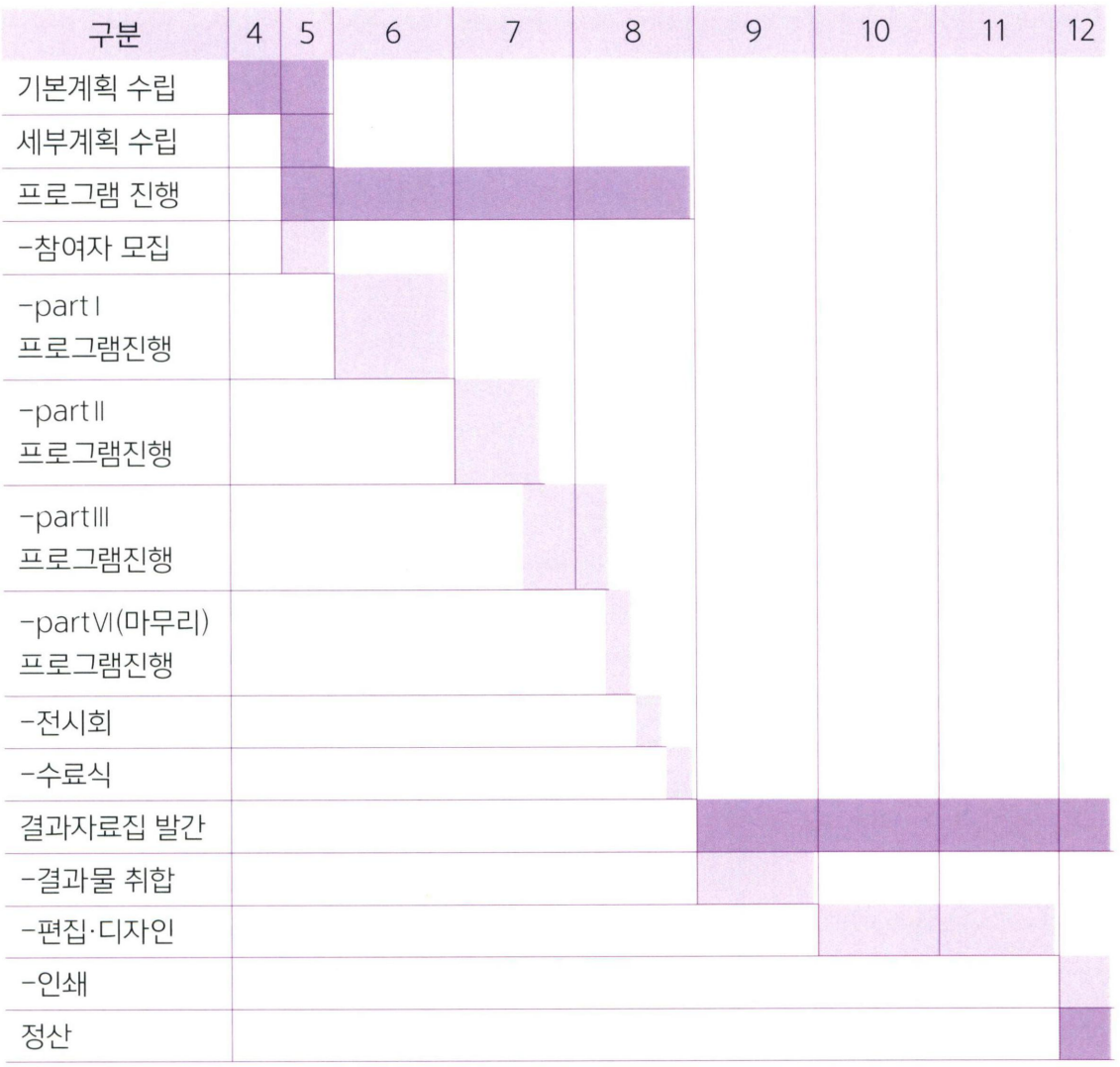
B. 추진내용

구분	의왕문화원	하남문화원
기본 방향	기존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한'매핑으로 마을 읽기'심화과정	신규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로 마을 읽기'기본과정
참여 대상	기존 참여자 60%, 신규 모집 40%	신규 모집 위주(기존 참여자 참여 가능)
참여 일정	6월 1일~8월 24일 (매주 금) 13:30~15:30	6월 22일~8월 24일 (매주 금) 10:00~12:00
보완 및 중점 사항	· 작년 참여자 중 매핑에 대한 방법론을 배워 개인적 활동에 적용이 가능해 좋았다는 의견 많음 · 거주지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길 원함 · 현장 컨설팅 필요 · 문화원의 시민활동가교육(마을큐사업)이 지자체 사업과 중복사업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지자체 협조 방안 모색)	· 조원 중 조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나 멘토 위주로 가길 원함 · 조사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

C. 추진체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프로그램 기획단 구성
프로그램 기획단
· 사업 관리 및 정산
· 양성 프로그램 기획
· 워크숍 진행
마을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 결과물 취합
· 결과보고서 제작
· 활동사항
피드백
· 프로그램 참여
· 마을조사 및 결과물 제작
· 홍보/장소 제공
· 현장 모니터링
문화원
지역주민
(마을큐레이터)
· 결과물 제출
· 참여자 모집 및 관리

D.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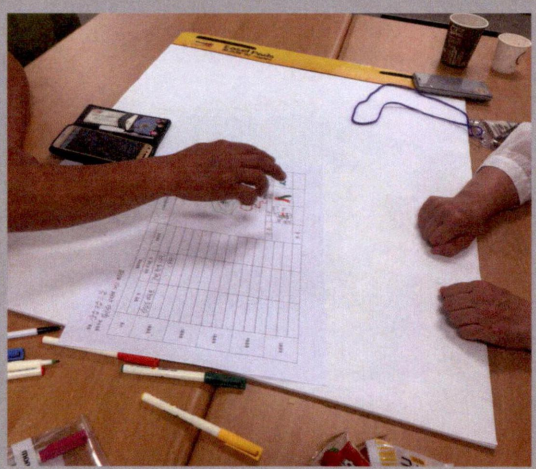

구분
4
5
6
7
8
9
10
11
12
기본계획 수립
세부계획 수립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 모집
-part I 프로그램진행
-part II 프로그램진행
-part III 프로그램진행
-part VI(마무리) 프로그램진행
-전시회
-수료식
결과자료집 발간
-결과물 취합
-편집·디자인
-인쇄
정산

5) 세부프로그램

■ 워크숍

• 의왕 '매핑으로 마을 읽기' 워크숍

구분		일정	내용
part I (사례공유와 방법알기)	1차시	6.1(금)	오리엔테이션_ 프로젝트 소개, 참여자 소개 강의 및 워크숍① 나+요즈음+관심주제±α=프로젝트 주제
	2차시	6.8(금)	강의 및 워크숍② 팀 정하기, '지리적 상상하기'
part II (계획 세우기)	3차시	6.15(금)	강의 및 워크숍③ 매핑계획서 작성하기
part II (계획 세우기)	현장 활동	팀별 일정	팀별 마을조사
	4차시	7.6(금)	현장 워크숍①_ 관찰, 수집, 기록▶버리기와 배열
	5차시	7.13(금)	현장 워크숍②_ 관찰, 수집, 기록▶버리기와 배열
	현장 활동	팀별 일정	조사 보완 및 보고서 작성
part VI (과정 나누기)	6차시	8.3(금)	강의 및 워크숍④ 과정과 결과를 보이게 하는 방법 정하기



후원 :
경기도

• 하남 '일상생활로 마을 읽기'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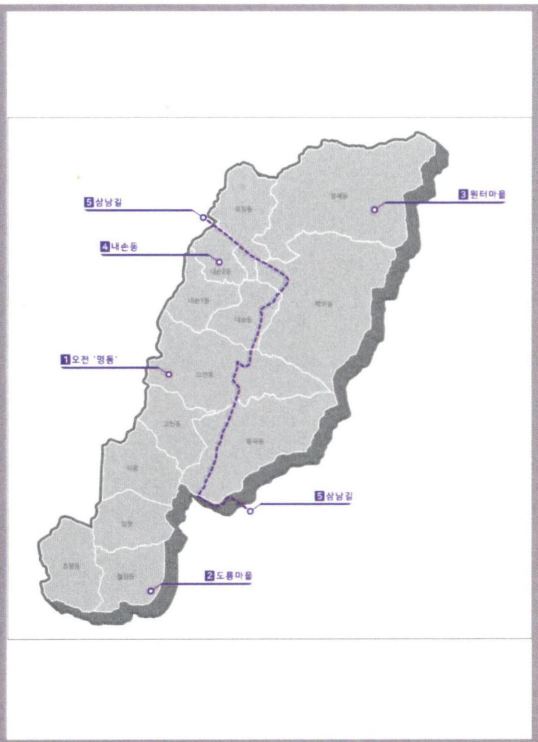
구분		일정	내용
part I (사례공유와 방법알기)	1차시	6.22(금)	오리엔테이션_ 프로젝트 소개, 참여자 소개
			워크숍①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을, 관심주제 나누기
	2차시	6.29(금)	특강① 나로부터 시작하는 글의 힘
part II (계획 세우기)	3차시	7.6.(금)	워크숍② 주제 찾기·조사방법과 팀 정하기
	4차시	7.13(금)	특강② 나로부터 시작하는 글의 힘
part III (계획 세우기)	현장 활동	팀별 일정	조사 및 자료수집
	5차시	7.27(금)	○ 피드백① 중간피드백
	현장 활동	팀별 일정	조사 보완 및 보고서 작성
part VI (과정 나누기)	6차시	8.10(금)	피드백② 조사결과 피드백 & 전시 기획하기

0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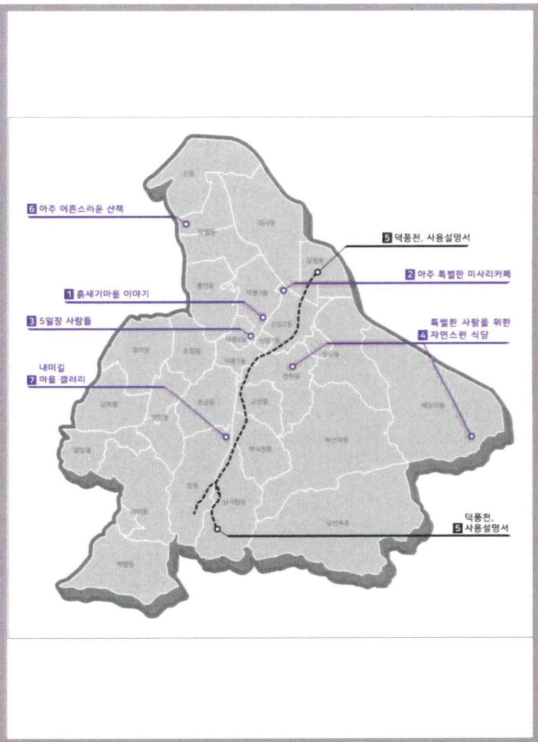
II - 하남편

■ 결과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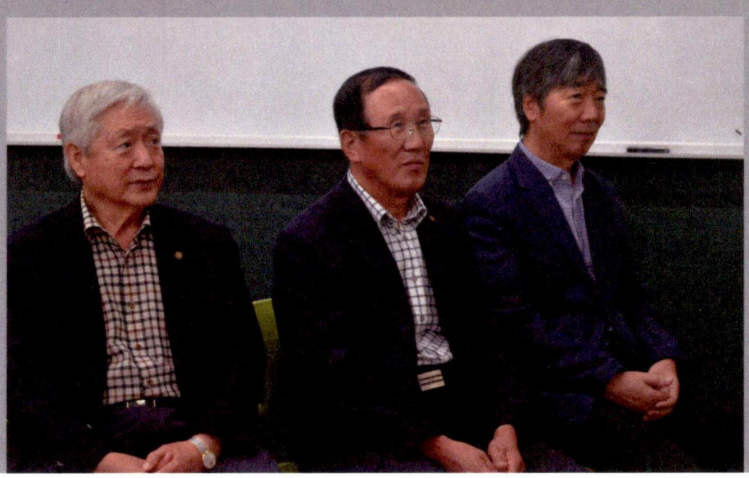
의왕 '매핑으로 마을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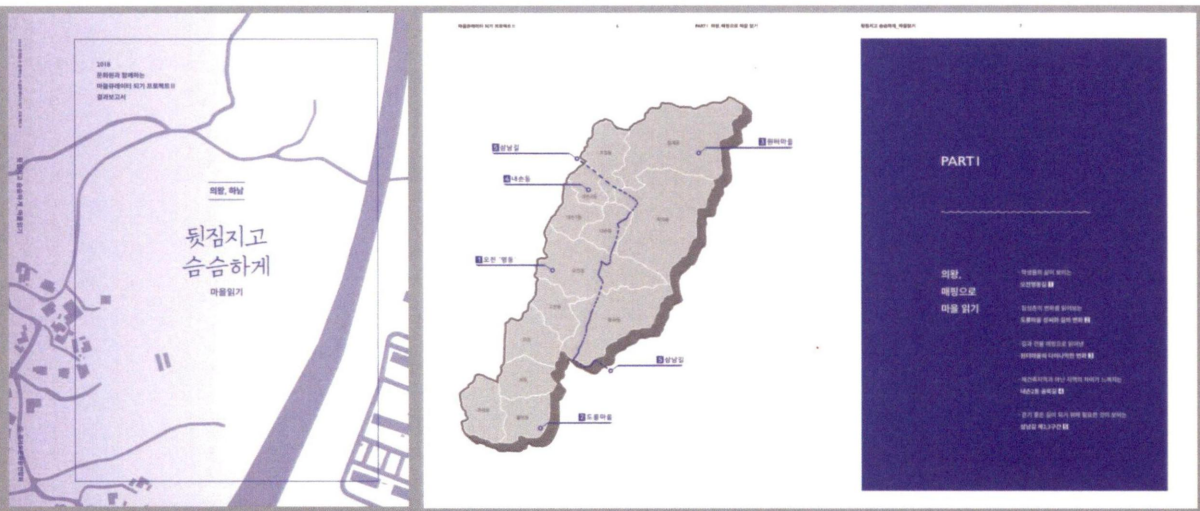
하남 '일상생활로 마을 읽기'



■ 의왕, 하남 통합 수료식 및 네트워크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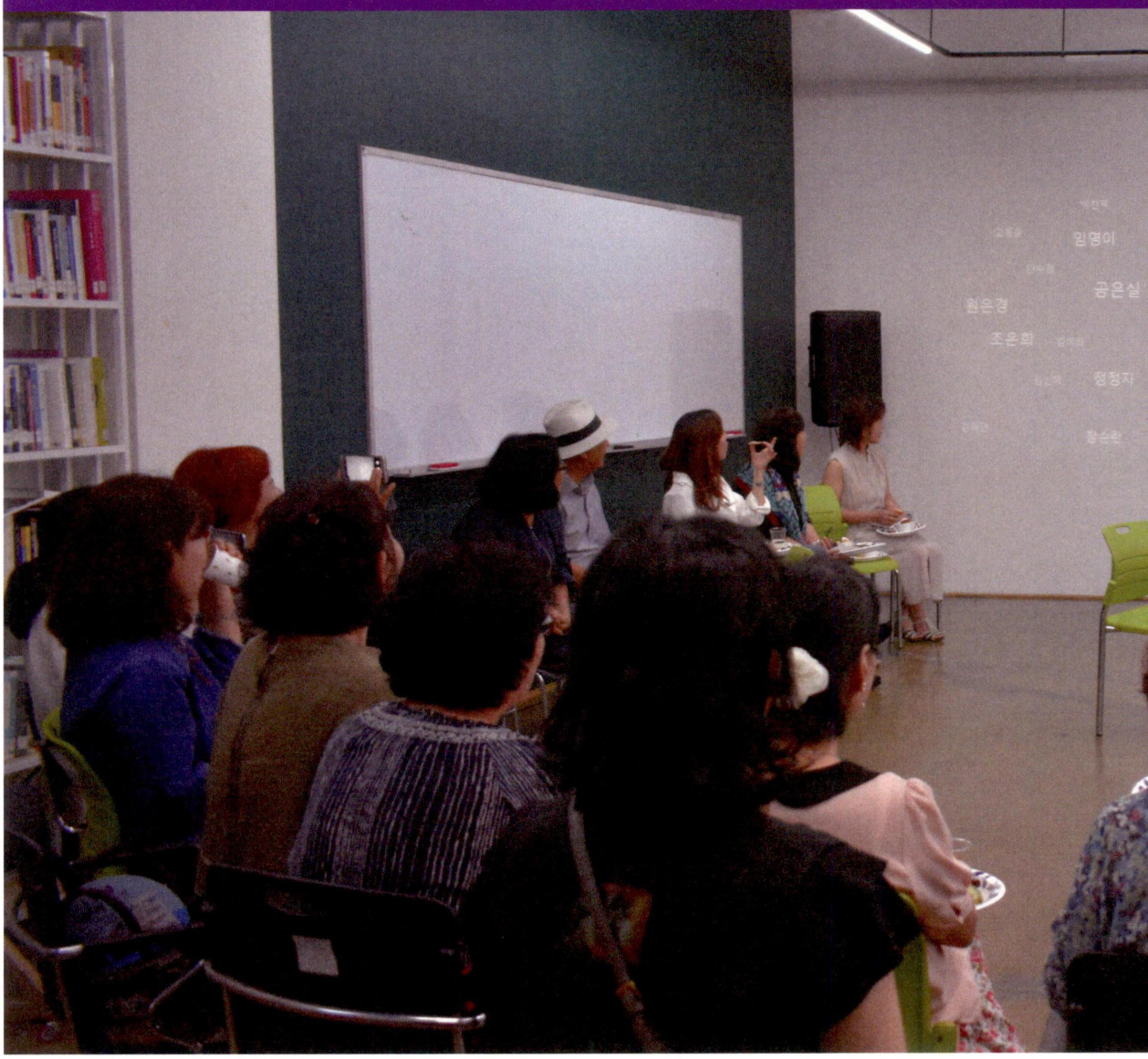


■ 결과보고서(뒷짐지고 슴슴하게_마을읽기) 발간



매 회차시 마다 높은 참석률로 90%이상(하남 18명, 의왕 19명)의 마을큐레이터가 과정을 수료하였다. 2년차로 진행한 만큼 문화원의 필요사항과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다 짜임새 있고, 과정에 충실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했다. 의왕의 현장피드백과 현장조사 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마을큐레이터 명함은 참여자들의 열정을 돋우는 역할을 했으며 참여자 만족도를 높였다. 심화과정의 진행과 경험 있는 마을큐레이터의 참여로 전시와 조사 결과물이 예년보다 깊이 있으며 짜임새와 완성도가 높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전통'과 '전문가'중심이었던 향토문화연구와 문화학교 운영에 그쳤던 '생활문화'영역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현재'의 '지역'을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문화원은 지역을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마을큐레이터가 발견해낸 지역의 소재와 이야기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문화원 사업이 주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플랫폼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양성된 마을큐레이터가 자발적인 동아리 형태로 지속되거나 문화원과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 파트너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겠다.

2018 지역특성화프로젝트_
동네한바퀴

1. 기획의도

지역특성화프로젝트〈동네한바퀴〉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모인 청년들의 창의적 일거리 창출을 위한 3개년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올해는 3개년 중 첫해로 일거리 창출 이전에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모아보고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생각들을 교류하는 장을 통해 향후 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했다.

지역특성화프로젝트〈동네한바퀴〉를 청년들과 함께 한 이유는 지역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원에서는 그동안 청년이 설 자리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기존 문화원 소비계층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고자 온라인문화원만들기사업,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지원사업 등 청년들과 문화원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그러던 중 2018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의 교육과정을 거쳐 준비된 젊은 문화기획자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문화기획자로서 자기전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동네한바퀴를 돌아보자는 콘셉트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획했다.

재미있게 성장하기 위한 청년들의 네트워킹이라는 주제로 파주 헤이리마을에서 '문화청년, 반가워U PARTY'를 개최하였으며, 문화기획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와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파티 행사를 개최했다.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는 청년의 관점을 통해서 향후 지역의 새로운 특성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원의 청년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들의 시각에서 기획부터 실행, 결과보고까지 사업의 전 프로세스를 함께 참여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네트워크연대 구조를 마련하여 향후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로서 스스로 자립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지역특성화프로젝트 〈동네한바퀴〉
- 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장소 : 경기도 일대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 추진배경

-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거쳐 준비된 젊은 문화기획자들을 '문화청년U'로 조직화 함
- 문화기획자로서의 자기전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의 동네한바퀴 돌아보자는 콘셉트로 사업 추진
- 재미있게 성장하고 싶은 청년들의 생각이 섞여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고자 함
- 지역에서 스스로 일거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문제를 자생구조로 해결하고자 함

3) 목적 및 의의

- 지역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에는 현재 청년이 설 자리가 없다.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길러진 청년문화기획자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동네한바퀴를 문화원 사업을 통해 돌아보자는 콘셉트로 청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기존의 지역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청년들이 바라보는 지역이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는 청년의 관점을 통해 향후 지역의 새로운 특성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원의 청년사업을 주도한다.

3)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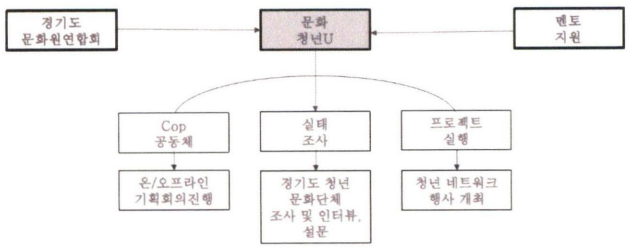
A. 추진방향

- 청년들의 시각에서 기획, 실행, 결과보고의 전 프로세스 경험
-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네트워크연대 구조 마련
- 참여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마련
- 향후 청년들이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로서 스스로 자립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B. 추진내용

- 청년문화단체 조사 및 심층인터뷰 원고 작성
- 온/오프라인의 기획회의를 통한 청년문화의 현주소를 현실적, 객관적 시선으로 파악하는 학습공동체 구성(기획회의 월 2회, 온라인 회의 월 5회 이상)
- 경기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기획에 관심있는 단체 또는 개인과 네트워킹 진행
- 사업진행과정 및 활동결과가 반영된 결과자료집 발간(PDF/책 100부 발간/ 영상 제작)

C. 추진체계



D. 추진일정

구분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기획회의진행										
세부사업기획										
단체구성원 모집 및 조직										
Cop 활동 및 기획 멘토링										
인터뷰 활동(사전조사, 내용 등)										
인터뷰 진행										
내용 취합 및 분석										
행사 준비										
네트워크 행사진행										
설문 진행										
정산/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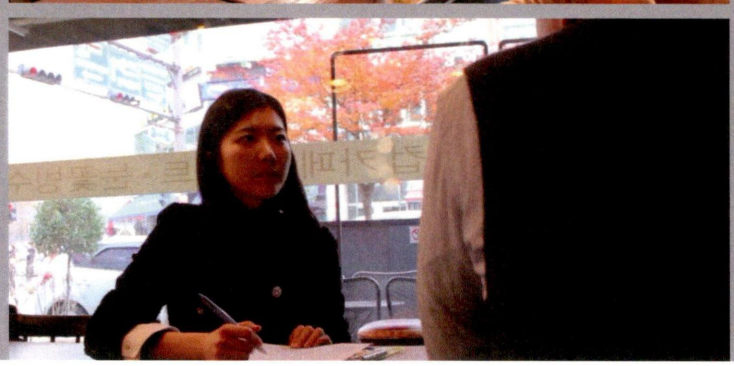
5) 세부프로그램

■ Cop활동 및 기획 멘토링

• 문화청년U 기획회의 및 멘토링(월 2회 이상 오프라인 회의 및 온라인회의 수시 진행)

■ 경기도 내 청년문화기획단체 인터뷰 및 설문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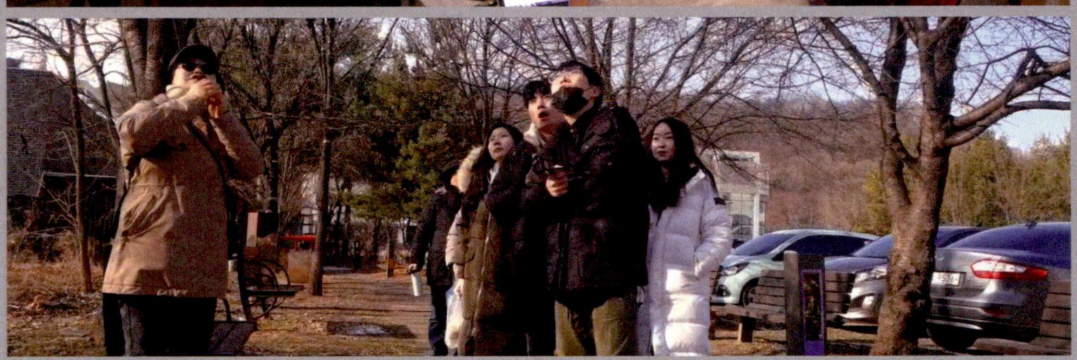
• 인터뷰지 및 설문지 작성, 단체 심층 인터뷰 진행을 바탕으로 취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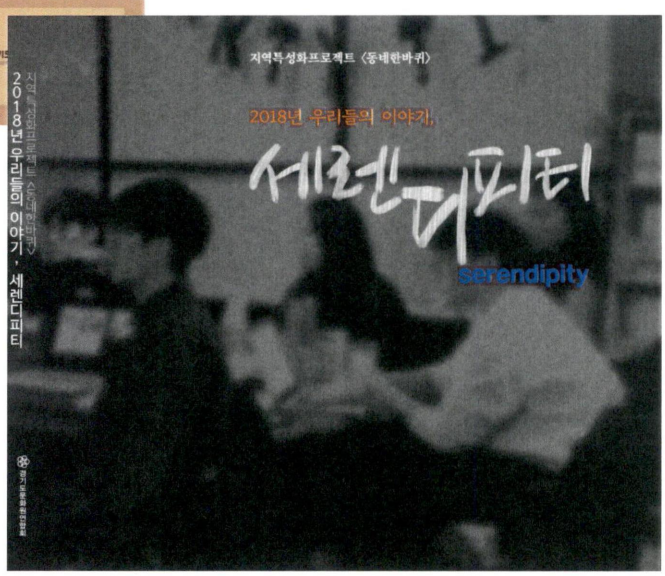
■ 문화청년, 반가워U PARTY

- 재미있게 성장하기 위한 청년들의 네트워크 파티 진행
- 행사 일자: 2018.12.14.~15.(1박 2일)
- 행사 장소: 파주 헤이리 마을 일대

구분	내용	비고
반가워U	1) 반가워U - 행사개요 및 문화청년 U 소개 - 아이스브레이킹	
	2) 톡 투 U - 참여단체 소개 / 질의 응답 - 주제강의 - 주제별 소모임 토크(5개 소모임 동시진행)	
	3) Fix U - 힐링상담소(ex-컨설턴트, 상담부스 등 운영)	
	4) 우리안의 U - 네트워크 파티 - 사망토론_못다한 주제를 무작위 대신 토론	
	5) 또 만나 U - 해장 토크 마지막 속 풀이토크(네트워크를 통한 향후 계획 및 짧은 소감 발표)	
	6) 동네한바퀴 - 동네한바퀴_in 헤이리_ 헤이리 예술인마을 기획 사례 탐방	



문화청년, 반가워U PARTY 홍보 포스터 등



결과보고서

지역특성화 프로젝트〈동네한바퀴〉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했다. 재미있게 성장하기 위한 청년들의 네트워크라는 콘셉트로 '문화청년, 반가워U PARTY'가 개최되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경기도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고, 발칙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또한 사업을 통해 '문화청년U'라는 청년기획자모임이 탄생했다.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지원 사업에서 교육을 통해 인큐베이팅을 거친 청년기획자들이 '문화청년U'를 조직했고 이들이 기획부터 실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행사에서는 '대대손손 지속발전 가능한 청년 네트워크'라는 토크 주제로 경기도내 청년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자발적, 독립적, 창의적 일거리 창출을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
믹스&라이스의 양철모 대표와 동네형들의 박도빈 대표, 경기실학박물관의 김수미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에서 재미있게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힘을 보탰다.
소그룹토크 '톡 투 U', 사업컨설팅 및 고민상담을 위한 'Fix U', 청년들의 속을 풀어주는 시원한 해장토크, 지속적인 만남을 위한 '또 만나U', 실제로 행사개최지 마을을 돌아보는 '동네한바퀴 in 헤이리'프로그램 등 청년들의 시선에서 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에 담았다.

그러나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인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0대라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다름은 활력이 되기도 했으나 의견충돌로 인한 진행의 어려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만남에 비해 촉박했던 행사 준비 과정과 파주라는 외곽 지역의 특수성은 행사당일 참여자 저조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비록 참여자 모집에서는 실패하였으나 기획을 처음 실행해보는 청년들에게 좋은 시도와 경험이 되었다는 평이 있었으며, 이들은 완벽한 실패록이라는 콘셉트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2018년 우리들의 이야기 세렌디피티(뜻밖의 발견) 결과보고서를 통해 '문화청년U'의 프로젝트 실행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앞으로 청년들이 만들어 갈 경기도의 문화지형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크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특성화 프로젝트〈동네한바퀴〉를 통해 청년들과 지역문화를 새롭게 전망하고 문화원의 청년사업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2018 _
경기도지방문화원 역량강화사업

기획의도

1950년 이래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변화들을 겪어 왔고, 현재에 이르렀다. 그 유지됨이 반세기가 넘어, 현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에서는 낡은 것이 되었다. 사회 속에 함께 존재하는 문화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할 목적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되고, 지켜져야 할 것은 지켜지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문화의 비전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이하 도연합회)는 2011년부터 지역문화원의 실무자, 사무국장, 대표자, 회원의 현재지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을 고민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자주 만나 토론하기 힘든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힘을 싣고자 했다. 이 모든 것은 지역문화원이 문화의 구심점에 서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직원연수는 도연합회의 사업이 진행되고, 각 문화원과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종 현안문제와 실무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었고, 2014년 직원교육커리큘럼 5개년 계획을 구성하고, 문화원 직원에 필요한 조직관리, 문화행정, 문화기획, 문화정책의 카테고리를 나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무국장연수는 지방문화원의 각종 현안과 다양한 문화사업 구상에 관한 포럼과 앞

으로의 과제를 진단을 통해, 문화원 스스로 자생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했다. 새정부 시대의 문화정책 흐름 변화를 읽어, 지방문화원에 이로운 다양한 방향을 찾고, 준비하고자 했다.

2016년부터 지방문화원 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원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문화향유와 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했다. 2017년 심도 있는 문화원의 현황을 다뤘었으며, 문화원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각 지방문화원 발전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2018년에는 '시,군문화원장 워크숍'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경기도 문화원의 법, 제도, 운영 사례발표를 통해 '지금, 현재, 우리문화원'의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찾고자 했다.

문화원장, 사무국장, 직원을 포함하여 문화원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임원·회원까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문화가족 합동연수'를 기획했다. 20년 이어져온 이 행사는 문화원의 주인이 누구라 할 것 없이, 한 해 동안 온 힘을 다해 문화향유에 진력해온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축하하고 내년을 '함께 하자'는 데에 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문화원 역량강화 사업은 근 1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지역문화원에도 또한, 도연합회에서도 그 10년에 대한 중요지점을 찾고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18 경기도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 part 01_
경기도 시,군문화원장 연수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경기도시,군문화원장 연수
- 일시 : 2018년 5월 28일(월)~30일(수), 2박 3일
- 장소 : 제주도(서귀포 샤인빌리조트)
- 대상 : 경기도 31개 시, 군문화원장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2) 목적 및 의의

- 경기도 시,군문화원장 간의 소통, 정보공유
- 새 정부 문화정책 흐름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방향 논의
- 지방문화원 관련된 법, 제도, 사업운영에 관한 네트워킹
- 신임원장과 선배원장과의 정보 공유 기회 마련
- 타 지역의 사례를 탐방, 조사하여 각 문화원 사업 활성화 도모

3)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새 정부 문화정책과 지방문화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 강의
- 경기도 문화원의 법, 제도, 운영 사례발표
- 타 지역의 역사와 문화체험을 통한 문화원 발전방향 찾기
- 제주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원형 사례 연구

4) 주요프로그램

▶5월 28일(월), 1일차

구분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집결	11:00		제주국제공항	
이동	11:00~12:00	60	서귀포 대명리조트 이동	
	12:00~13:00	60	중식	
	13:00~13:30	30	등록 및 개회식	세미나실
주제강의	13:30~15:00	90	새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문화원의 대응 방안	
	15:00~15:10	10	휴식	
지역사례	15:10~16:00	50	문화원의 법, 제도 사례발표①	프롬프터 방식
	16:00~16:10	10	휴식	
지역사례	16:10~17:00	50	문화원의 사업, 운영 사례발표②	프롬프터 방식
	17:00~17:30	30	만찬장소 이동	
	17:30~19:00	90	석식	
			숙소 이동(취침 및 휴식)	

▶5월 29일(화), 2일차

구분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08:00~09:00		조식	
	09:00~09:30	60	휴식	
	09:30~10:00	30	조별모임 후 각 이동	
	10:00~17:00	7h	- 자연환경을 활용한 문화원형 사례 연구 -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재 보존 사례 연구 - 관광자원 사례 연구	점심 : 조별식사
	17:00~18:30	90	지역탐방 결과 사례 발표_夜한 토론	
	19:00~20:30	90	석식	
	12:00~		숙소 이동(취침 및 휴식)	

▶5월 30일(수), 3일차

구분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08:00~09:00		조식	
	09:00~09:30	30	폐회	
	09:30~10:00	30	조별모임 후 각 이동	
	09:30~10:00	30	체크아웃	
	10:00~12:00	120	제주 민속문화 아카이빙 사례 연구	
	12:00~13:00	60	중식	
	13:00~14:00	60	제주공항 출발	

경기도 시,군 문화원장 워크
일정 - 2018년 5월 28일(월) ~ 30일(수) (2박 3일)
장소 - 서귀포 샤인빌리조트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원
이 하 근
조 수 기

문화원의

지역문화원 법령·제도
개선 과제
의정부문화원장 조수기

부천문화원
부천문화원

2018 경기도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 part 02_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1차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_직원연수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협력 : 경기도문화원직원협의회
-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2) 목적 및 의의

- 지역문화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지역 문화활동가로서의 전문성 향상
- 교육 마스터플랜 수립과 교육 이력관리 도입을 통한 체계적 교육관리
- 각 지역 문화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 네트워크 추진

3) 추진내용

- **1차 직원연수 사업개요**
  - 일시 : 2018년 4월 12일(목) ~ 13일(금) (1박 2일)
  - 장소 : 김포문화원
  - 대상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 직원

■ 추진방향

- 지방문화원 역량강화 교육커리큘럼에 따른 3년차 교육
- 김포문화원 견학과 원장님의 강의 병행
- 교육이력관리(D/B 프로그램 이용)
- 경기도문화원직원협의회와 공동 협력 추진
- 문화원 직원의 공동의 책임과 목표의식 함양

■ 추진일정

시기		구분	비 고
		2018년 제1차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직원연수)	
4월	3주	기획 완료 및 공지(참가신청)	
	4주	장소 대관 / 강사 섭외 완료	사전답사
	1주	참가마감 / 강의 원고 취합	
	2주	자료집제작 / 큐시트제작 등	
		사업시행(4/12-13)	연수

■ 세부일정

▶4월 12일(목) 1일차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1:00~12:30	90	집결 & 중식	
12:30~13:00	30	등록 및 개회	
13:00~13:50	50	1) 문화정책론 I _문화원형 지역활용 사례 강사: 이하준 김포문화원장	
13:50~14:00	10	휴식	
14:00~15:30	90	2) 문화행정론_원천징수 실무 강사: 박재형(한서회계법인)	
15:30~15:40	10	휴식	
15:40~17:10	90	3) 조직관리론_예술을 활용한 조직의 비전 활성화 강사: 김현정(한국종합교육원)	
17:10~17:20	10	휴식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7:20~18:30	70	4) 문화정책론Ⅱ_문화트랜드 분석 (지역문화분권과 연계한 문화원의 사업방향)	
18:30~19:30	60	석식	
20:00~21:30	90	5) 문회기획론_이벤트기획론Ⅰ (문화기획을 담아 쓰다)	
21:30~		취침	

4월 13일(금) 2일차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08:30~09:30	90	조식 및 자유시간	
09:30~10:00	30	이동	
10:00~11:00	30	5) 지역문화사례 연구Ⅰ _ 김포 함상공원 운봉함의 역사와 재탄생 과정 체험	
11:00~12:00	120	6) 지역문화사례 연구Ⅱ _ 대명항 수산시장 재래시장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과정	
12:00~12:30	30	이동	
12:30~13:30	60	중식	
13:30~15:00	90	네트워크 담론 _ 아주 소소한 말 "새로운 관계 구성"	
15:00~		폐회	

경기도 지역문화천문가 아카데미

2018 경기도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 part 03_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2차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_사무국장연수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협력 : 경기도문화원사무국장협의회
-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2) 목적 및 의의

- 새정부 문화정책 흐름에 따른 문화원의 방향 제시
- 지방문화원 다양한 문화사업 구상에 관한 포럼
- 각 문화원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 네트워크 추진

3) 추진내용

- 2차 사무국장연수 사업개요
  - 일　　시 : 2018년 4월 20일(금)
  - 장　　소 : 김포문화원
  - 대　　상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 사무국장

■ 추진방향

- 주제강의를 통한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방향 모색
- 새정부 문화정책의 진행현황 공유와 자유토론
- 경기도문화원사무국장협의회와 공동 협력 추진

■ 추진일정

시기		구분	비 고
		2018년 제2차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사무국장연수)	
4월	1주	기획 완료 및 공지(참가신청)	
	1주	장소 대관 / 강사 섭외 완료	
	2주	참가마감 / 강의 원고 취합 / 자료집제작	
	3주	큐시트 제작 등	
		사업시행(4/20)	연수

■ 세부일정

▶4월 20일(목)

구분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등록	11:00~11:30	30	연수 등록 및 접수	강의실
개회	11:30~12:00	30	개회식	강의실
	12:00~13:00	60	중식	
강의	13:30~15:00	90	문화다양성과 생활문화 _ 최혜자(성공회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15:00~15:10	10	휴식	
지역사례	15:10~16:00	50	문화원형(역사문화인물)의 지역 활용사례 연구 _ 이하준 김포문화원장	
	16:00~16:10	10	휴식	
현안토론	16:10~18:00	110	새정부 문화정책과 문화원의 대응	자유토론

구분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8:00~18:30	30	석식장소로 이동	
	18:30~19:30	60	석식	
	19:30		해산	

2018 2차 사무국장연수
경기도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2018 경기도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 part 04_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3차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_사무국장연수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협력 : 경기도문화원사무국장협의회
-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2) 목적 및 의의

- 새정부 문화정책 흐름에 따른 문화원의 방향 제시
- 지방문화원 다양한 문화사업 구상에 관한 포럼
- 각 문화원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 네트워크 추진

3) 추진내용

- 3차 사무국장연수 사업개요
  - 일　　시 : 2018년 11월 16(금)~17(토) (1박 2일)
  - 장　　소 : Kt 대전인재개발원(제2연수관 112호)
  - 대　　상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 사무국장

■ 추진방향

- 집담회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향 모색
- 생활문화 및 도시재생 사례 탐방
- 경기도문화원사무국장협의회와 공동 협력 추진

■ 추진일정

시기		구분	비 고
		2018년 제3차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사무국장연수)	
10월	3주	기획 완료 및 공지(참가신청)	
		장소 대관 / 강사 섭외 완료	
	4주	참가마감 / 강의 원고 취합 / 자료집제작	
11월	3주	큐시트 제작 등	
		사업시행(11/16,17)	연수

■ 세부일정

▶11월 16일(금)

구분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집담회	14:00~14:30	30	연수 등록 및 접수	
	14:30~15:00	30	개회식, 일정 안내	
	15:00~17:00	120	생활문화, 지방문화원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해야 하는가 좌장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최영주 사무처장 패널 : 고영직 (문학평론가) 정민룡 (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박성희 (인천남구학산문화원 사무국장)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17:00~18:30	90	자유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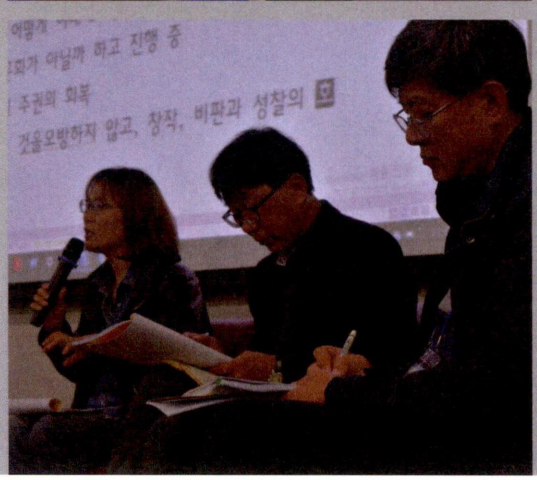
구분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석식	18:30~19:30	60	석식장소 이동	외부
네트워크	19:30		네트워크파티	

11월 17일(토)

구분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조식	7:30~9:00	90	조식	
사례탐방	9:00~12:00	30	대전 지역문화 및 문화재생 사례탐방	외부
중식	11:30~13:00	60	중식	외부

선물을 만들어가는
기록일지, 매일 사

서 시작해서 그런 단어가 탄생. 송경태


주권의 회복
것을모방하지 않고, 창작, 비판과 성찰의

2018 경기도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 part 05_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 4차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지역문화전문가 아카데미_직원연수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협력 : 경기도문화원직원협의회
-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2) 목적 및 의의

- 지역문화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지역 문화활동가로서의 전문성 향상
- 교육 마스터플랜 수립과 교육 이력관리 도입을 통한 체계적 교육관리
- 각 지역 문화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 네트워크 추진

3) 추진내용

- 1차 직원연수 사업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 장소 : 의정부시 컨벤션 센터
  - 대상 : 경기도 내 31개 시, 군문화원 직원

■ 추진방향

- 지방문화원 역량강화 교육커리큘럼에 따른 3년차 교육
- 교육이력관리(D/B 프로그램 이용)
- 경기도문화원직원협의회와 공동 협력 추진
- 문화원 직원의 공동의 책임과 목표의식 함양

■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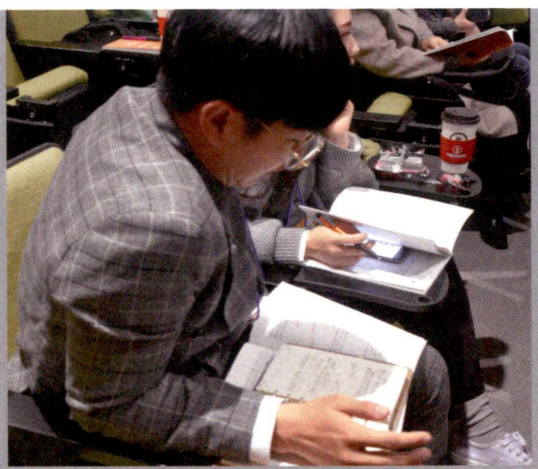
시기		구분	비 고
		2018년 제4차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직원연수)	
10월	4주	기획 완료 및 공지(참가신청)	
	5주	장소 대관 / 강사 섭외 완료	사전답사
11월	2주	참가마감 / 강의 원고 취합	
	3주	자료집제작 / 큐시트제작 등	
		사업시행(11/22)	연수

■ 세부일정

▶11월 22일(목)

구분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2:00~13:00	60	중식	
	13:00~15:00	120	1) 지역사례연구 _의정부지역 특성화 사례연구 2) 문화정책론_향토문화재 활용방안	
	15:00~15:30	30	이동	
	15:30~15:50	20	직원연수 일정 안내 및 도연합회 일정 공지	
	15:50~16:00	10	휴식	
	16:00~18:00	120	3) 문화행정론 1. 문화학교 수입, 강사료 관련 세무 회계법 2. 기부금법에 관한 이해 3. 신용카드 적용에 관한 기준 등	

구분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8:00~19:00	60	석식	
	19:00~20:00	60	4) 조직관리 및 문화기획론 <문화기획자를 위한 글쓰기 워크숍> 1. 문화기획자들의 A4 엔지니어링 방법 2. 키워드를 통한 글의 완성도 높이는 노하우 3. 담백하고 정직한 문어체를 위한 워크숍	
	20:00~21:00	60	네트워크 파티	



2018 경기도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 part 06_
경기도 문화가족합동연수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제20회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
-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1시~18시
- 장소 : 의정부 컨벤션 센터
- 대상 : 경기도 내 31개 시·군문화원 임·직원 및 관계자
-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정부문화원
-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2) 목적 및 의의

- 경기도내 문화관계자(시·군문화원 직원 및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한해를 뒤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기회 마련
- 경기도 지역의 문화, 예술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공유
- 지역문화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지역 문화활동가로서의 역량강화 방안제시
- 문화원형의 발굴, 개발을 통한 지역문화정체성 확립의 방향 모색

3) 추진내용

■ 주요 프로그램

- 주제강의 : 올바른 성(性)문화로 행복한 문화원 만들기
- 3색 주제 토론
  - 주제 1: 2019년 경기도 지방문화원 조직 아젠다 토론(원장단)
  - 주제 2: 2019년 지방문화원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협력 프로그램(사무국장, 직원)
  - 주제 3: 지방문화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임원 및 회원)
- 2018 경기도지방문화원 어워드(Award)
  - 2018 경기도 지방문화원 어워드(시상식, 관련 공문 별도 발신)
  - 2019 경기도 지방문화원 아젠다 선포식
  - 축하공연

■ 세부 일정표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0:30~11:00	30	연수 등록 및 접수	
11:00~12:00	60	개회식 - 국민의례/문화비전선언 - 인사말(회장) - 축사(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 격려사(한국문화원연합회장) - 환영사(의정부시장, 의정부시의회 의장) - 영상상영(31개문화원과 함께하는 도연합회) - 2018년 경기도지방문화원어워드 - 축하공연 - 사진촬영	메인 연회장
12:00~13:00	60	중식	
13:00~14:30	90	주제 강의 -올바른 성(性)문화로 행복한 문화원 만들기	메인 연회장
14:30~14:40	10	휴식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4:40~15:40	60	주제1: 2019년 경기도 지방문화원 조직 아젠다 토론 - 좌장: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문화 원장	5번 연회장
14:40~15:40	60	주제2: 2019년 지방문화원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사무 국장 직원	메인 연회장
14:40~15:40	60	주제3: 지방문화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 최영주 사무처장	임원 및 회원	2번 연회장
15:40~15:50	10	휴식		
15:50~16:20	30	네트워크파티 1부 - 2019 경기도 지방문화원 아젠다 선포 - 축하공연		메인 연회장
16:20~17:30	70	네트워크파티 2부 _ 석식		

■ 2018 경기도지방문화원 어워드(Award) 결과

부문	문화원	성 명	직 책
2018 경기도문화인상 도지사상	고양문화원	이재청	부원장
	동두천문화원	이성주	회원
	성남문화원	허지연	팀장
	수원문화원	김옥기	회원
	시흥문화원	박민기	이사
	안산문화원	임대성	팀장
	오산문화원	공란식	부원장
	의정부문화원	최재우	사원
	의정부문화원	이상욱	이사
	평택문화원	최실비	학예연구사
자문위원상	시흥문화원	연규자	과장
경기도우수문화원상	양주문화원		

2018 제20회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
■기 간 : 2018년 11월 23일(금)
■장 소 : 의정부컨벤션센터
■주 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후 원 :
의정부시
한국문화원연합회

2018 제20회 경기
■기 간 : 2018년 11월 23일(금)
■장 소 : 의
■후 원 :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직 원

2018 제20회 경기도문화가족 합동연수
■기 간 : 2018년 11월 23일(금)
■장 소 : 의정부컨벤션센터
■주 최 :
■후 원 :

2018 경기도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 part 07_

경기향토문화대학 2기

1. 기획의도

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문화재단의 경기학연구센터와 협력 추진한 프로젝트로 도내 향토문화연구자의 학술 역량을 강화하고,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정체 상태에 있는 향토문화연구자가 스스로 지역을 재인식하고 각성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변화한 문화와 지역 환경에 적합한 신진 전문가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지역학의 중요성과 높은 가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실현할 전문 인력의 활동성이 저조한 도내 향토사학계에 대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인식에서 도출한 교육 과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시·군 문화원장 추천인과 도내 향토문화연구에 관심 많은 40여 명이 지역학 이론부터 실무, 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방분권의 기치가 높아지는 시대에 시·군 단위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 향토무화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경기향토문화대학 2기
- 기간 : 2018년 5월 ~12월
- 대상 : 경기도민
-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문화재단

2) 목적 및 의의

- 경기도 향토문화연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학연구자들의 역량 강화
-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합한 신진 지역전문가의 확보 및 양성
-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는 향토연구자들의 의식변화 전기 마련
- 향토문화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위한 전문성 도모
- 시군 단위 지역학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3)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경기문화원연합회, 경기문화재단 공동추진
- 경기도내 향토문화연구자들을 위한 전문화과정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 3개년 3차 과정 중 2차 과정
- 실무에 필요한 심화강좌 및 현장답사로 구성
- 대학의 전공강좌방식을 원용하여 운영
- 학점은행제를 전제로 수료증 발급
- 향토문화의 조사, 연구, 활용, 콘텐츠개발에 필요한 강좌로 구성
- 2018경기향토문화연구소 신임 연구위원 참여 확대

B. 추진체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수강생모집, 관리 ·강의장소 섭외 및 대여 ·전담인력 1인 배치 ·현장강의 진행(차량임차, 부대사항) ·학사관리 및 수료증 발급	·교육프로그램 기획 ·주임강사 선정 및 배치 ·실내 및 현장 강사 섭외 ·강사수당 지급 ·현장강의 자료 준비 ·성과물 기획, 편집, 교열, 인쇄, 배포

C. 추진일정

<table>
<tr><th></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h>11월</th></tr>
<tr><td>01~5일</td><td rowspan="2">기본 계획 수립</td><td rowspan="4" colspan="3">총 15강(실내+현장) 진행</td><td rowspan="4">방학</td><td>종강</td><td rowspan="4">성과물 발간 배포</td><td rowspan="4">정산</td></tr>
<tr><td>6~10일</td></tr>
<tr><td>11~15일</td></tr>
<tr><td>16~20일</td><td rowspan="3">수강생 모집</td></tr>
<tr><td>21~24일</td></tr>
<tr><td>25~28일</td><td></td><td>강의평가</td></tr>
<tr><td>28~31일</td></tr>
</table>

4) 세부내용

■ 세부방침

- 학점은행제 방식을 준용하여 3년 과정 135시간 이수를 목적으로 매년 45시간을 이수함
- 이수 자격은 대학교 전공과목 평가방식을 따라, 100점 만점(출석 70%, 과제물 30%)에 70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함
- 실내강의 9강, 현장강의 3강 총 12강으로 구성하며, 1강의 당 실내강의는 3시간 현장강의는 6시간을 배정함
- 과제물은 지역의 문화콘텐츠 발굴과 연구를 유도할 수 있는 주제로 함
- 2018년도 강의 주제는 '경기도 향토문화유산의 이해'로 설정함
- 과제물은 특정주제로 정하여 최종적으로는 조사 성과물이 되도록 기획
  * 예컨대, 우리 고장의 사라졌거나 멸실 위기의 문화자원

■ 경기향토문화대학 강의 진행

- 5월 ~ 8월 매주 수
- 강의 내용

구분	과목명	강 사	장소
1차시	향토문화유산의 개괄	김성태(경기학연구센터)	수원 (경기문화재단)
2차시	역사문화콘텐츠론	한동현(한국외대 교수)	수원 (경기문화재단)
3차시	현장답사(영집궁시박물관, 황희정승묘, 자운서원, 파주삼릉)		
4차시	조선시대 기전지역의 봉수	김주홍(LH공사 충북지역본부 연구원)	광주 경기도자재단
5차시	현장답사(인평대군 묘역, 광릉, 봉선사, 홍·유릉)		
6차시	신라의 지방지배와 군현성	박성현(계명대 교수)	광주 경기도자재단
7차시	사찰건축의 상징적 의미	허균(한국민예미술연구소 장)	광주 경기도자재단
8차시	조선시대 문중서원과 사우	이해준(공주대 교수)	수원 (경기문화재단)
9차시	경기지역의 역사문화	김성태(경기학연구센터)	의정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
10차시	중세 고고학과 향촌사회	김성태(경기학연구센터)	의정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
11차시	현장답사(국립중앙박물관)		
12차시	수요자 중심의 지역역사문화연구의 방법론	김성태(경기학연구센터)	수원 (경기문화재단)

2018 경기향토문화대학
2018.05.09 수요일

『지속가능한 문화원 Action Plan』
2018 경기향토문화대학

2년차 진행으로 역사 강의 뿐만 아니라 문화원형활용 측면에 대한 강의를 보완하여 향토문화연구자들이 연구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산의 영역까지 자기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였다. 예년보다 높은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들의 참여로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의 연계성을 높였으며 향후 커리큘럼 개발이나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의 높은 출석률과 참여를 바탕으로 3회 현장답사와 9회 실내강의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현장답사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참여자 과제물을 정리하고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후속작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양성된 연구자들과의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처음 마련된 문화원장단 워크숍을 통해 신입원장과 선배원장이 문화원이 당면한 사안을 공유하고, 현 문화정책의 흐름을 바탕으로 문화원의 비전을 고민하는 자리로써 의미가 있었다.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를 통해 문화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사업의 방향과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무국장이 지역문화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상, 하반기 각각 2차례씩 연수를 진행하였다. 강의 중심보다 문화원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현황 공유의 자리를 만들어 문화원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화원 임·직원부터 회원 모두가 모이는 경기도문화가족합동연수는 200여명이 모여 경기도문화원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원장단, 국장·직원, 회원별 맞춤 강의 및 토론의 장을 열어 각자의 역할에서 보다 고민해야 할 지점을 숙고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원장단 워크숍의 경우 참석률이 높았지만 지역문화전문가아카데미 직원, 국장연수의 경우 여건 상 참여하지 못하거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참석이 어려운 인원이 많았다. 직원의 역량과 정보력은 문화원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2018 제20회_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구축 사업

1. 기획의도

문화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연구, 조사,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사업 중 하나이다. 그 지역을 알려면 문화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빠른 속도로 마을이 해체되고 새로운 도시형태가 정립됨에 따라 외부 인구가 영입되고,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등 인구 구성원의 변화가 대단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인구 구성원이 변한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틀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의 분위기와 생활 형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 일정 부분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없다.

문화가 사람들의 총체적 삶의 모습이라는 정의에 동의한다면, 지역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들의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이고, 구성원이 바뀐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 양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기도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문화는 '사람들의 삶의 총체'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 양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결국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찾아야 하며, 그 관계를 통해 창출되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형태의 다른 이름이다.

본 연수는 향후 문화원이 가야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 해법을 찾고자 기획하였으며, 크게 3개의 키워드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역사문화 공간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로 전략화한 사례를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고, 두 번째는 러시아에 남아있는 항일독립운동 중심지와 근거지에서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통해 역사의 현장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역사의 현장을 통해 현재적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번 기획을 통해 31개 시,군 문화원의 전개되는 사업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형성되고 전개되며,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어떻게 경기도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화적 양상이 어떻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세계적 문화흐름의 어디에 접점을 두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주요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제20회 선진지역문화정책연수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 기간 : 2018년 7월 7일 ~ 7월 11일(4박 5일)
- 장소 : 러시아 블라디보트톡,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일대
-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2) 목적 및 의의

- 도시 국가와 국가브랜드 마케팅 사례, 도시 경관의 재창조를 위한 지역브랜드화 사례연구를 통해 경기도 지역문화유산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글로벌 국제화 시대 해외 문화 교류 추진으로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영역 확대 추진
- 역사의 현장이 현재적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기

3)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해외 연수를 통해 문화원장간 교류 기회 제공, 소통과 이해의 계기를 마련
- 연수비용은 도비보조금과 참가자 부담금액으로 충당함
- 현지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사례 공유
- 연수 후 사업성과의 반영을 위한 결과보고서 제작 및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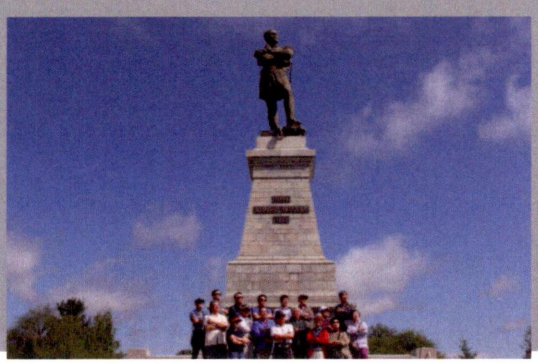
B. 추진내용

- 역사문화 공간에 스토리텔링을 더해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로 전략화한 사례 연구
- 러시아에 남아있는 항일독립운동 중심지와 근거지에서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통해 역사의 현장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기
- 우리 민족이 공존하는 해외지역의 사례를 통해 경기도 지역의 문화다양성 확대 방안 모색

4) 세부프로그램

일자	지역	일정
1일차 07/07 (토)	양 양 블라디보스톡	· (수원/의정부)에서 버스로 이동 · 양양국제공항->블라디보스톡 공항 도착(시차 1시간) · 숙소이동
2일차 07/08 (일)	블라디보스톡	●'고려인 강제이주 81년'_ 블라디보스톡의 빛과 그림자 ★2012년 APEC 개최지 루스끼섬 ▶ 루스끼섬 최대의 방어 요새 포대박물관 ▶ 아름다운 풍경 바틀리나 곶 ▶ 극동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하는 극동연방 대학교 ▶ 블라디보스톡의 심장 혁명광장(중앙광장) ▶ 전쟁 기념비, 영원의 불꽃, 니꼴라이 2세 개선문 ▶ 실제로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C-56 잠수함 박물관 ▶ 금각만과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독수리 전망대 ▶ 젊음의 거리 아르바트 거리& 해변공원
3일차 07/09 (월)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역사의 땅에서 현대적 의미를 묻다' ▶ 한인 집단촌이였던 신한촌 기념비 ★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숨쉬는 우수리스크에서 유적지 탐방 ▶ 한인이주 기념관 고려인문화센터 고려인역사관(내부) ▶ 민족의 영웅 안중근의사 기념비 ▶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마지막 거주지 ▶ 헤이그특사로 파견되었던 이상설 선생 유허비 ▶ 발해 5경 12부 중 하나인 솔빈부 발해 옛성터 ▶ 고려인 최초 강제이주 역 라즈돌리노예역 ★시베리아횡단열차 탑승
4일차 07/10 (화)	하바롭스크	●문화원형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례연구 I ▶ 현지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앙재래시장 ▶ 소비에트 연방국가(구 소련) 창설자 레닌 광장 ▶ 러시아에서 세 번째 규모 동방 정교회 구세주 성당 ▶ 2차 세계대전 전사자추모하기 위한 무명용사의 비석 ▶ 아무르강 앞에 위치해 있는 꼼소몰스까야 광장 ▶ 러시아화폐 최고고액권인물 무라비요프아무르스끼동상 ▶ 아무르강이 한눈이 내려다 보이는 우초스 전망대
5일차 07/11 (수)	하바롭스크 양양	· 문화원형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례연구 II _극동지역 자연, 민속, 고고학 전시된 향토박물관 _현지의 창고형 대형마트인 쌈베리 방문

소속	성명	소속	성명
가평	김만종	가평	위민식
고양	이승엽	고양	백은옥
군포	박계일	김포	이하준
남양주	이보긍	동두천	정경철
성남	김대진	시흥	정원철
양평	장재찬	여주	김문영
파주	우관제	평택	김은호
하남	유병기	화성	고정석
도연합회	염상덕	도연합회	신현분
도연합회	최영주	도연합회	박소현



10:44
2018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2018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2018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2018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2018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2018 선진지역 문화정책연수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경기도내 문화원 원장단이 참여한 국제교류네트워크를 러시아에서 진행했다. 2018년도에는 총 18명의 경기도 문화원 원장단이 참여했으며,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총 3개의 도시를 방문했다.

우리 민족이 남아있는 도시들에서 여전히 조국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접해볼 수 있었다. 그 곳에 남겨진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며 그들이 말하는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는 무엇일지, 국내 지역에 적용할 만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답사지는 한인촌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신한촌비와 연해주일대의 고려인들을 위한 문화시설인 고려인문화센터 고려인역사관이 있었고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생가를 방문하는 등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민족의 흔적과 역사까지 볼 수 있었다.

원장단 연수는 생생하게 시, 군 문화원이 지역문화 거점역할을 할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문화원 프로그램의 효율적 기획 및 운영 활성화 촉매가 됐다. 다만 방문국 문화기관 및 문화프로그램 교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후 관리가 요구된다. 원장단과 현지 기관 및 단체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여 백

Chapter 3

경기문화재단 협력사업

경기천년장인발굴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2기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8 학술심포지엄

2018 _
경기천년장인발굴단

1. 기획의도

2018년은 '경기'라는 이름을 사용한 지 천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천년을 기억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30년 백서에는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지난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 순서의 정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각 부문에 관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도 경기천년의 의미와 가치를 경기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획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경기천년대축제의 한 파트인 경기천년 장인발굴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경기도의 문화생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단체라면 당연 문화원이 아닐까 싶다. 경기도 31개 지역문화원들이 각 지역에서 경기도민과 오랜 시간 함께 소통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의 생활문화의 아름다움을 도민과 공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경기천년 장인발굴단 사업은 우리동네를 중심으로 사람, 문화, 역사의 의미를 재조

명하여 진정한 삶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했다. 우리동네 공동체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이어가고 실현하고 있는 우리동네 숨은 보석들, 삶의 주인공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프로젝트다. 장르 중심의 전통적 가치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당연시 여겼던 일상의 숨은 장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지역의 현장과 가까운 지역문화원들을 중심으로 일상 속 장인들을 발굴함으로써 생활문화영역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하고자 하였다. 일상의 삶이 문화가 되는 크고 작은 사례들을 면밀히 살피고 발굴하여 지역과 시대의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했다. 또한 평범한 나와 내 이웃이 주체가 되어 '작은 것이 만든 큰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했다. 이러한 경기천년 장인발굴단 사업 의도는 과거와 현재 생활문화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원이 꼭 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경기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정의내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다양성 또한 이 지역의 특징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경기지역을 이루고 있고 경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깊게 조명하여 생활문화장인으로 발굴하고자 했다. 우리가 뜻하는 생활문화장인은 소소하지만 중요한 가치를 실천을 통해 행동하고 나누는 사람을 뜻한다.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기술적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경기도 천년을 이어갈 많은 사람들 역시 평범한 우리 이웃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사업을 진행했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경기천년장인발굴단
- 기간 : 2018년 9월 ~ 10월
- 장소 : 경기도 일대
- 주최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 추진배경

- 경기도의 문화생태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인적자원 발굴
- '우리동네'를 중심으로 사람, 문화, 역사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진정한 삶의 문화적 가치 발굴
- 경기도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부심 고양

3) 목적 및 의의

- 우리동네 공동체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이어가고 실현하고 있는 우리동네의 숨은 보석들, 삶의 주인공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함
- 장르 중심의 전통적 가치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 보면 주목받지 못하고 당연시 여겼던 일상의 숨은 장인들을 발굴함으로서 생활문화영역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하고자 함.
- 일상의 삶이 문화가 되는 크고 작은 사례들을 면밀히 살피고 발굴하여 지역과 시대의 가치로 만들어가고자 함.
- 평범한 나와 내 이웃이 주체가 되어 '작은 것이 만든 큰 변화'를 이야기 하고자 함.

4)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경기도 23개 지역에서 각 5~10명(약 115명 이상)의 천년장인 추천

※ 생활문화분야 : '생태/환경', '민예/기술(생활양식)', '공동체', '기타'
※ '천년장인'은 소소하고도 중요한 가치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노동(기술)과 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삶터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나누는 사람들을 대상

- 장인 추천 시 양식(원고)작성 및 활동사진 첨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추천장인 중 천년장인 선정
- 기타 지역 기획 발굴(약 80명)
- 경기도 지역 천년장인 전문 사진작가 촬영 진행
- 발굴된 천년장인들에 관한 내용을 경기문화재단 서버에 업로드

B. 추진내용

■ 경기도 문화 생태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활동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발굴

- 경기도민(시민), 공동체, 마을의 천년일상 속에서 거듭되어 온 공공의 가치를 발굴하여, 경기 미래문화의 주역들로 자리매김하여 인물(들) 중심으로 소개
- 〈천년장인〉은 소소하고도 중요한 가치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단순한 노동(기술)과 실천으로이웃과 함께 삶터를 중심으로 행동하고 나누는 사람(들) 발굴

_생태/환경, 민예/기술, 공동체, 기타 부문으로 분류(고르게 분포되어야 함)

_23개 지역 115명 이상의 천년장인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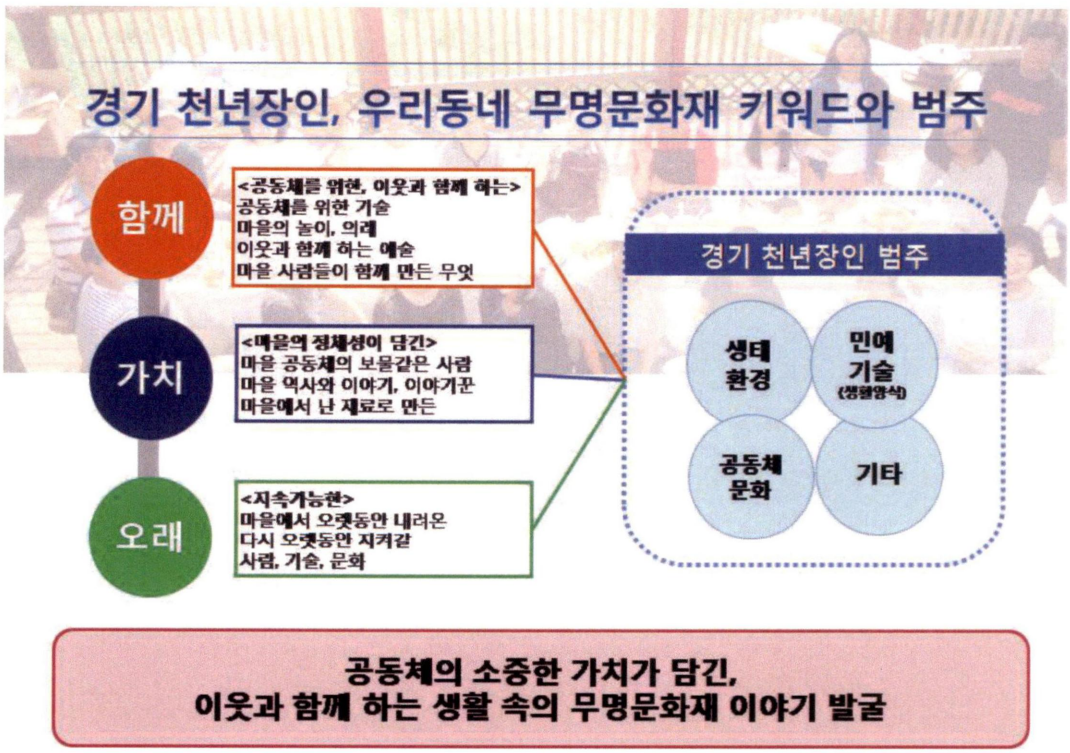
_모집 방법 : 경기도 23개 문화원에서 장인 발굴단 1인 채용
(장인발굴단은 5명~10명의 장인추천 및 추천서작성(사진포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이메일 제출(kccf-kg21@daum.net))

_모집 기간 : 9월 3주

_장인 선정 : 9월 4주 추천 리스트 중 천년장인 선발(경기도문화원연합회)

_기타 지역 80명의 천년장인 기획 발굴

C. 추진체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원 자료 취합 및 업로드 ·8개 지역 천년장인 기획 발굴 ·추천장인 리스트 중 천년장인 선발
경기도 문화원	·23개 지역 문화원 당 1명의 발굴단 채용 ·5인~10인의 지역대표장인 추천리스트 및 추천양식 작성(활동 사진 포함)

D.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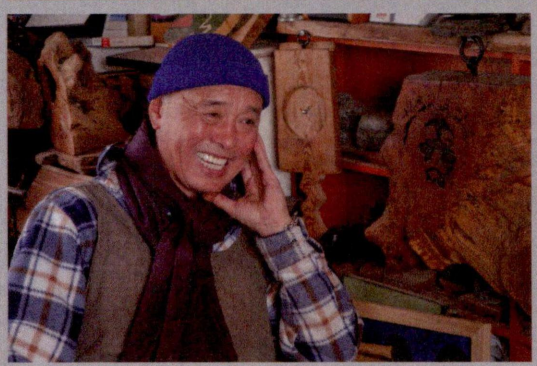
구분	9월	10월
기본계획, 세부계획 수립		
문화원 공지 -사업설명회 개최		
참여자 모집		
추천 원고 작성		
기획발굴 진행		
취합 및 검토		
천년장인 촬영		
윤색 및 편집		
ggc 업로드		
정산/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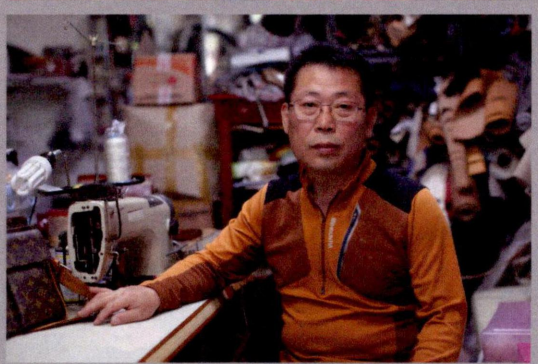
	9월	10월
경기문연		·10월 1~2주 사진촬영 마감
		·10월 2주 윤색 및 편집
	·경기천년 장인발굴단 사업 안내 ·경기천년 장인발굴단 사업 문화원 협조요청 ·장인선정 및 원고 요청	·10월 3주 ggc업로드 마감
	·9월 4주 장인선정 및 원고 취합 ·9월 4주 기획 발굴 진행	·10월 4주 이내 정산완료

5) 활동결과

3. 지역별

	생태/환경	민예/기술 (생활양식)	공동체문화	기타분야	합(계)	비고
가평	1	2	2		5	
고양		6			6	
광주		3		3	6	
구리	1	2	1	1	5	
김포	1	4	1	1	7	
남양주		2	3	2	7	
동두천		1	2	2	5	
부천		1	1		2	
성남		8	3	1	12	
수원		11	4	5	20	
시흥	1	4	1		6	
안산	2	5	6	2	15	
안성				1	1	
안양		2	3	1	6	
양주	1	1	2	1	5	
양평	2		1		3	
연천		2	3		5	
오산		2	3		5	
용인	1	5	7	1	14	
의왕	1	3	2	3	9	
의정부		2	2	2	6	
이천	2	2	1		5	
파주		1	4		5	
평택	1	7	1	5	14	
포천	1	2	2		5	
하남		6	1		7	
화성	2	2	8	2	14	
합(계)	17	86	64	33	200	





– 경기천년 생활문화장인발굴 분야별 합(계)

1. 지역발굴/기획발굴

	생태/환경	민예/기술 (생활양식)	공동체문화	기타분야	합(계)	비고
지역발굴	12	50	35	23	120	
기획발굴	5	36	29	10	80	
합(계)	17	86	64	33	200	

2. 권역별(동부/서부/남부/북부)

	생태/환경	민예/기술 (생활양식)	공동체문화	기타분야	합(계)	비고
동부	5	10	11	5	31	
서부	7	24	22	13	66	
남부	3	37	19	11	70	
북부	2	15	12	4	33	
합(계)	17	86	64	33	200	

경기천년 장인발굴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결국 이 사업은 약 한달 여 기간 동안 매우 촉박하게 이루어졌다. 문화단체들이 모두 바쁜 가을의 계절, 바쁜 와중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의 의미와 가치 때문이었다. 마침내 사업이 종료된 지금은 경기도 문화원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인적자원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경기도 지역의 세대 간 화합과 연대를 통한 도시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상의 삶이 문화가 되는 크고 작은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과 시대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삶에 시간이 더해져 일상이 작품이 되고, 마을이 무대가 되고, 관계가 문화가 되다'라는 경기천년대축제의 슬로건처럼 전통과 현재를 잇는 경기도민의 생활상을 경기천년 장인발굴단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천 삼백만이 넘는 인구 중 고작 200명의 삶을 들여다봤다. 이번에 발굴된 생활문화장인들이 단순히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발굴된 것이 아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업은 한분 한분의 삶의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한 일이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더 많은 생활문화장인들을 발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그렇기에 올

한해로 끝나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가 담긴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깊게 삶을 들여다보고 그 안의 가치를 발굴하여 후대에 이야기로 남기고 싶다.

또한 조금은 애매하고 모호했던 생활문화장인의 선정기준과 분류에 관련해서도 이야기 하고 싶다. 기획 할 당시 우리의 생각은 프로패셔널한 장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우리동네 이웃들의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조명하는데 의의를 두었기 때문에 누구나 장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생활문화장인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장인'이라는 단어의 무게는 누군가에게는 오해가 되기도 했다. 당시에는 정확한 분류기준을 나누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경기지역 생활문화장인들의 일상의 재발견을 기록을 통해 남기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가치 있는 데이터로 남기기 위해 분류의 세분화와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에는 장인선정 대상에 대한 기준과 좀 더 세밀한 분류 기준을 과제로 남기며, 앞으로의 천년 후에는 생활문화장인들의 일상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 되리라 기대해본다.

2018 _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2기

1. 기획의도

2017년부터 시행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은 올해로 2년차를 맞이했다. 지역문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문화 활동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2018년 '관계에서 시작하는 삶의 기획'이라는 타이틀로 문화원직원 및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했다.

실무자들에게는 행정위주의 기획에서 부재한 문화다양성의 시각과 설득력, 그리고 소통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고, 예비 문화기획자들에게는 기획의 현장에서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실무 에로사항과 기획의 과정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준비하고자 했다.

작년에는 문화기획자에게 필요한 필수 소양인 기획서 작성을 위주로 진행했다면,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화와 시민을 연결하는 문화매개자로서 필요한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퍼실리테이션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전에는 전문가에 의해 모든 기획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누리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예술적으로 문화와 사람을 적절히 매개하는 문화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획자가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서포트하는 역량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문화원은 전국 모든 지역에 분포해 있다. 문화원 입장에서 매개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과거에는 향토와 전통이 문화원의 주된 관심이었다면, 현재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읽어내는 일'을 해가고 있다. '어떻게 문화예술을 통해 공동체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문화와 시민을 연결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 교육이 중요하다. 전문기획자보다는 사실 매개자가 더 필요하다. 상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올바로 된 기획을 주민, 시민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 문화기획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문화매개자'를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했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　칭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2기
- 기　간 : 2018년 3월 ~ 12월
- 장　소 : 경기도 일대
-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총괄주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업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공동주관 : 경기문화재단

2) 추진배경

- 지역문화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지역문화 활동가로서의 전문성 향상
- 문화원 직원들의 지역문화전문가로서의 역량 향상
- 행정위주 기획에서 부재된 문화다양성 시각, 창의성, 설득력, 소통방법 필요
- 문화원이 지역 및 지역민들의 교류와 관계의 거점으로 역할 되어야 할 필요성

3) 목적 및 의의

- 지역문화 전문인력인 문화원 직원들의 퍼실리테이터 교육과정을 통한 소통 역량 강화
- 문화원이 지역민들의 교류와 관계의 거점으로 역할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 지역실정에 맞는 기획 개발
-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시각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회 제공

3)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문화매개자 역할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교육 진행
-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네트워크연대 구조 마련
- 참여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마련
- 향후 청년들이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로서 스스로 자립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B. 추진내용

- 청년문화단체 조사 및 심층인터뷰 원고 작성
- 온/오프라인의 기획회의를 통한 청년문화의 현주소를 현실적, 객관적 시선으로 파악하는 학습공동체 구성(기획회의 월 2회, 온라인 회의 월 5회 이상)
- 경기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기획에 관심있는 단체 또는 개인과 네트워킹 진행
- 사업진행과정 및 활동결과가 반영된 결과자료집 발간(PDF/책 100부 발간/ 영상 제작)

C. 교육생 선발 및 관리방안

1. 교육생 선발계획

- 선발인원 : 15명 이내(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통과 후)
- 교육생 선발절차

절차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최종선발 및 오리엔테이션
일정	5.2~5.11 (10일간)	▶	최종선발 : 5.15(화) 경기통합OT : 5/19(토) 오리엔테이션 : 6.5(화)

2. 우수교육생 선발계획

■ 우수교육생 선발절차

■ 선발기준

• 교육과정 종료 후 출석률(50%), 프로젝트결과(25%), 참여도(25%) 합산점수 고득점자 우수교육생 선정

■ 지원방안

• 문화재단 공모사업 및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협력사업 중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에 사업 진행 기회 제공

• 통합리더과정 (고급과정-국내연수/해외연수) 참가 기회 부여

3. 교육생 네트워킹 구성 및 관리방안(상호교류·협력)

■ 교육과정 우수자 중심으로 통합리더과정 운영예정 알림 및 문화재단 간 교류(교육 수료생 공모사업 가산점제 운영)를 위한 네트워킹 강화 공지

• 네트워크 내 참여도 점검을 통한 자격 제한 실시

■ 경기 지역 문화 전문인력 네트워크

• 문화예술기관 기획인력으로 채용 및 지역문화 관련 사업운영시 인력활용

•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관련사업 시 인력풀 추천 및 현장모니터 활용

• 연수자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 네트워크 파티 및 모임운영 지원등으로 연수자 간 친목도모 및 교류모임 독려
- 지역 문화예술기관별 지원사업 및 채용정보 공유

• 기수별 정례모임 및 향후 기수 간 비정기 모임을 유도하여 인력 간 협업 독려

D. 세부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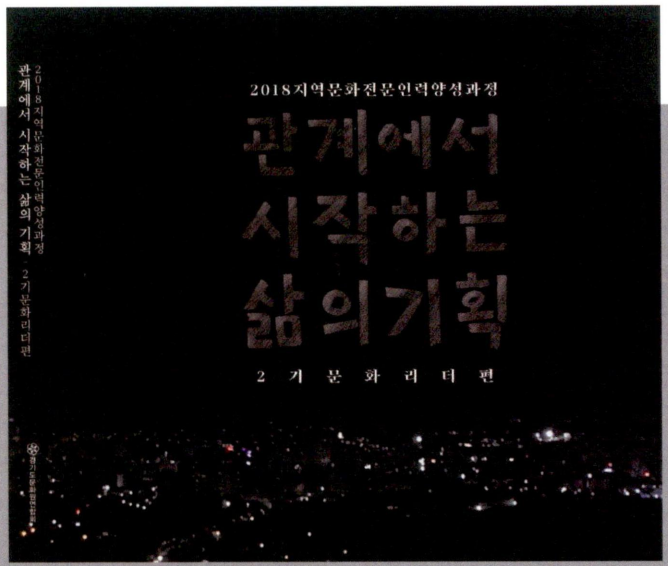
구분	차시	교육프로그램 세부내용	추진일정
통합 오리엔테이션	0	통합 오리엔테이션	18.05.19
나를 디자인하다 (이론교육과정)	1	개강식 및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다양성, 마음의 경계 넘기'	18.06.05 14:00~17:00 (3시간)
나를 디자인하다 (이론교육과정)	2	관계를 디자인하다_퍼실리테이터의 이해와 필요성 서바이벌 두뇌 트레이닝	18.06.12 14:00~17:00 (3시간)
관계를디자인하다 (현장 워크숍 I) 3	3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 현장에서 배우는 기획 '시각의 전환, 공간의 프레임 바꾸기' <과제> 프로젝트 기획안 작성	18.06.19 14:00~17:00 (3시간)
관계를디자인하다 (이론교육과정)	4	'통찰의 힘! 창의력 있는 기획 방법' BRAIN STORM 통찰의 힘! '몰입의 즐거움' <과제> 프로젝트 기획안 1차 제출 & 피드백	18.06.26 13:00~17:00 (4시간)
00을 디자인하다 (기획과정)	5	소통을 디자인하다_퍼실리테이션 실습 프로젝트 1차 발표 및 피드백	18.07.03 14:00~17:00 (3시간)
00을 디자인하다 (현장 워크숍 II)	6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 현장에서 배우는 기획 '상생, 교류와 관계의 거점 만들기' <과제> 프로젝트 기획안 피드백	18.07.14~15 14:00~17:00 (3시간)
결과발표	7	프로젝트 최종 발표 네트워크파티	18.07.24 14:00~17:00 (3시간)
통합 결과공유회	8	통합 결과공유회	18.09.29
통합리더과정	9	지역문화 전문인력 대회	18.10.11~12

E. 수료생 명단

- 16명 교육진행자 중 14명 최종수료(취업으로 인한 중도포기 2인)
- 우수 교육생: 이양우

성명	지역 및 소속(2018.05.기준)
곽인규	안성/경기도문화원연합회팀원
김경윤	시흥/품앗이안
김민기	천안/대학생
노현호	수원/수원문화원 문화사업팀대리
박효진	안산/대학생
배준영	화성/화성문화원 주임
윤동현	안산/문화콘텐츠학과 졸업 취업준비생
이송미	광주/대학생
이양우	부천/마케팅, 기획경험 취업준비생
임혜선	인천/인천서구문화원 팀장
장순옥	시흥/강사
전미란	파주/파주문화원 과장
조본희	천안/대학생
최경애	시흥/시흥문화원 과장

결과보고서


2018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
관계에서 시작하는 삶의 기획
2기문화리더편

2기 문화리더
2018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 현장답사

2018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은 지역 내 문화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총 14명의 교육생이 수료를 마쳤다.
문화기획자들이 해야 할 문화와 기획에 관한 기본적인 공부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의 영역과 대상, 연령층 등 어쩌면 생각하지 못했던 이웃들에 대한 생각까지 문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번 교육에서 다양성에 대한 고민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고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통해 어떻게 매개하고,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율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했다. 또한 문화기획자가 지역에 들어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시민들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례탐방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웠다. 지역사례로 인천과 거창지역을 방문하여 문화기획자이면서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 곳들을 탐방하기도 하며 기획자가 기획만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협업하고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것들을 접목해서 기획자의 역량을 발휘한 사례들을 공부했다. 최종 결과물로는 '지역에서 기획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교육생들의 기획서 안에 과제로 담겼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거쳤다. 심사과정을 통해 2018년도 우수 교육생으로 이양우가 선정됐다.

2018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에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교육생들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지원 사업 '지역특성화 프로젝트〈동네한바퀴〉'를 통해 프로젝트 실행과정까지 함께했다.

지역특성화 프로젝트〈동네한바퀴〉는 8월부터 12월 약 4~5개월 기간 동안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문화청년U'라는 청년기획자들의 모임이 탄생했다.

'문화청년U'는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전 프로세스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경기도의 문화에 관심있는 청년기획단체 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문화청년, 반가워U PARTY'를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진행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은 지역문화 활동가로서 문화에 대한 철학, 소신,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는 평이다. 교육 내용과 강사진도 지금 이 새대의 지역의 현안을 주제로 구성해 실질적인 고민과 시의성있는 정보 공유, 적절한 기획 아이디어 논의 등이 이뤄지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에서 생활문화가 잘 안착되게 하려면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화 퍼실테이터'라는 단어는 현재 없지만, 퍼실리테이션의 일정부분을 학습함으로써 기획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런 매개자의 역할로서 '문화청년U'가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 중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기 위해 함께 고민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화청년U'뿐만 아니라 교육생 모두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교류가 요구되며, 지역문화 전문인력 네트워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주최와 주관기관의 장기 계획이 요구된다.

2018 _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8학술심포지엄

1. 기획의도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8 학술심포지엄'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가 주관하여 경기도의 31개 시·군 문화원에서 추천한 연구위원과 함께 경기지역문화 활성화를 기하고자 준비한 첫 번째 기획사업이다.

분야별 전문가와 경기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함께 열띤 토론으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경기유학과 양명학', '경기지역 3.1운동의 의의와 현재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기획하였다. '경기유학과 양명학'심포지엄을 통해 한동안 등한시하였던 유학의 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했으며 향토사학 제23집과 맞물려 경기향토문화연구의 성과 및 전문가의 연구현황 공유에 초점을 두었다.

더불어 명년이면 3.1독립만세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바, 그동안 경기도 지역에서는 3.1독립만세운동의 연구, 조사, 학술회를 바탕으로 여러 자료가 아카이빙이 되고 그것들이 문화자원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場)을 열고자 했다.

2. 사업개요

1) 개요

- 명칭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8 학술심포지엄
- 기간 : 2018년 12월 7일(금)
- 장소 :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4층
-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주관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시흥문화원

2) 목적 및 의의

- 경기천년을 맞아 경기유학의 사상적 발자취를 고찰
- 경기유학에서 한국양명학의 사상적 가치 확인
-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기지역 3.1운동의 현황을 공유
- 항일을 통한 민족자주성의 사상사적 가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
- 3.1운동 정신의 현재성(미래전승을 포함한)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해보고자 함

3) 추진내용

A. 추진방향

- 연구소 주관 심포지엄(학술대회)의 정례화 방안 모색의 연장선상에서 추진
- 연구위원을 토론자로 적극 유치, 참여 의식 고취
- 지역 향토문화연구소 위원까지 참여토록 홍보 방안 모색 및 강화
- 심포지엄 결과 및 향후 추진 방안 도출 시 적극적 후속사업 반영위해 노력

B. 추진내용

- 경기도의 유학과 양명학의 현주소와 재조명 방안 도출
- 경기도 지역의 항일독립투쟁의 기초조사 연구 현황 공유
- 경기 지역학의 맥락파악 및 지역특성화에 따른 방향 제시

C. 추진일정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세부계획 수립				
문화원 공지				
발제자, 토론자 원고의뢰				
자료집 제작				
심포지엄 준비 완료				
정산				

4) 세부내용

■ 세부 프로그램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13:00 ~ 18:00
장소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1분과 경기유학과 양명학	
주요내용	

1. 경기유학 관련한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가?
   _ 하곡학에서 한국양명학으로 그리고 실학과 천주교와의 관계성 및 근대성에 착안하여

2. 경기유학 흐름 속에서 실학과 양명학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_ 성호학파의 양명학-벽이단론과 심신관을 중심으로

3. 경기유학 흐름 속에서 실학과 양명학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_ 하곡의 양지론과 다산의 영지론

4. 경기유학 흐름 속에서 서학과 양명학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_ 동아시아 양명학 전통과 서학

시간배정				
시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3:00~13:30	30	등록 및 준비	사회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13:30~13:35	5	개회 내빈소개	사회자	
13:35~13:38	3	인사말 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13:38~13:41	3	인사말 Ⅱ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정원철	
13:41~51	10	축사	시흥시장 임병택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 한국양명학회 회장 김세정 경기학연구센터장 이지훈 기타 참석내빈	
				사회: 김희영(성신여대)
14:00~14:20	20	기조강연	하곡학에서 한국양명학으로, 그리고 실학과 천주교와의 관계성 및 근대성에 착안하여 -김용재(성신여대, 한국양명학회 부회장)	
14:20~14:50	30	발표 Ⅰ	성호학파의 양명학-벽이단론과 심신관을 중심으로 -발표: 함영대(성균관대)/논평: 김민재(충북대)	
14:50~15:05	15		휴식	
				사회: 이남옥
15:05~15:35	30	발표 Ⅱ	하곡학의 양지론과 다산의 영지론 -발표: 전성건(안동대)/ 논평: 이영호(성균관대)	
15:35~16:05	30	발표 Ⅲ	동아시아 양명학 전통과 서학 -발표: 김선희(서울대)/ 논평: 박성호(원광대)	
16:05~16:20	15		휴식	
16:20~17:50	90	종합토론	좌장: 김세정(충남대, 한국양명학회 회장) 토론: 발표자 및 논평자 전원	
17:50~18:00	10		폐회	

2분과 경기지역 3.1운동의 역사적의의 현재화 방안모색

주요내용

1. 경기도 지역 3.1운동 관련한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가?
   _ 경기지역 3.1운동과 유적지 조사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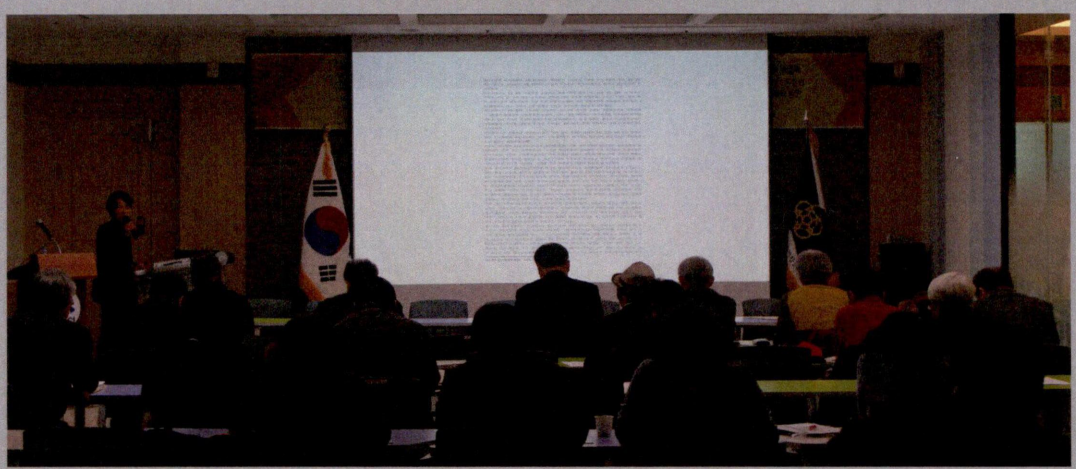
2. 경기도 지역 3.1운동이 타 지역과는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었고 어떤 의의가 있는가?
   _ 경기도지역 항일독립투쟁의 특징과 의의

3. 경기도 지역 3.1운동, 어떻게 미래로 계승할 것인가
   _ 경기도지역 및 도민의식의 사상사적 맥락잡기와 지역특성화 방안 도출

4. 3.1운동을 포함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아카이빙)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공유
   _ 지역향토사학자들의 활동 역량 제고 및 지역향토문화연구소의 역할론 정립

시간배정

시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4:00~14:30	30	발제 Ⅰ	경기지역 3.1운동과 유적지 조사연구 현황 -이동근(수원시청 학예사)	
14:30~15:00	30	발제 Ⅱ	경기지역 항일독립투쟁의 특징과 의의 -박철하(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5:00~15:10	10		휴식	
15:10~15:40	30	발제 Ⅲ	경기지역3.1운동, 어떻게 미래로 계승할 것인가? -염상균(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5:40~16:10	30	발제 Ⅳ	역사기록방법론(디지털 콘텐츠) -신창희(안양시청 주무관)	
16:10~16:20	10		휴식	
16:20~17:50	90	토론	좌 장 : 김 방 토론자 : 발제자 전원 및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 이명수, 백남욱, 신대광 3인 (총7명)	
16:00			폐회	



유학을 근간 삼아 양명학이라는 주제로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더 친숙하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며 조선후기의 선현 중에서 양명학과 주자학, 실학의 관계를 짚어보는 것은 조선후기의 학문의 상호 연관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하였다.
경기지역 3.1운동의 시대적 배경과 만세운동의 현황을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 정신을 어떻게 선양, 계승해야할지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며 경기도의 지역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향후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주관으로 진행되어 연구위원의 역량강화와 연구성과 공유에 큰 역할을 하였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8학술 심포지엄
제1분과 경기유학과 양명학
제2분과 경기지역 3.1운동의 의의와 현재화 방안
일시 : 2018.12.7(금)13:30~18:00
장소 :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주최 :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
주관 :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시흥문화원
후원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209

여 백

보도자료

문화

경기일보

문화일반 종합·전시 출판·도서 종교 건강의학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창립 30주년 맞아 '30년 백서' 발간

송시연 기자 sy6691@kyeongin.net | 노출승인 2018.04.04 | 19면 | 댓글 0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30년 백서>를 발간했다.

도문화원연합회는 1985년 창립한 이후 31개 도내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과 함께 각종 문화행사 개최, 문화원 자료 편찬,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며 지방문화원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백서는 지난 30년간의 '역사와 사업'을 총 망라해 담았다.
역사에서는 설립현황, 주요연혁, 조직현황, 시설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와 조례 제정으로 변화된 도문화원연합회의 모습, 도문화원연합회가 추구하는 5가지 가치 등을 알려준다.

특히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설립과 2016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정체성과 역할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엿볼 수 있다.

사업에서는 크게 향토문화, 생활문화의 관련된 사업을 분석하고, '키우다' '알치다' '가꾸하다' '영다' 등 4개의 키워드로 도문화원연합회가 추구해야할 역할에 대해 보여준다.
아울러 '한눈에 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사업은 구상에 대한 해설문도'도 함께 실었다.

염상덕 도문화원연합회장은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면서 "지난 30년의 역사를 통해 앞수 30년의 역적을 참아갈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송시연 기자

중부일보

전체메뉴 | 뉴스 | 지역종합 | 오피니언 | 스포츠 | 연예 | 포토 | 지면보기

HOME > 문화 > 문화종합

경기청소년민속예술제, 지난 14일 성황리 종료

백창현 | 기사입력 2018.05.16 22:24 | 최종수정 2018.05.16 15:30 | 댓글 0

'제 12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을 차지한 시흥시 대표팀이 우승기와 상장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펼치는 전통 민속예술축제인 '제12회 경기청소년민속예술제'가 지난 14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동두천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민속예술제는 점차 사라져가는 민속예술을 발굴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전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각 지역의 기량을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민속축제다.

예술제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지역의 고유한 풍습과 정서를 담은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 풍물 등의 대표 민속예술 축제로 경연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축제에는 경기도 26개 시군대표팀이 참여했다.

대상을 차지해 전국 대회인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출전한 자격을 갖게된 팀은 시흥시 대표팀이다. 시흥시 대표팀은 '시흥 월미 농악'으로 대상인 경기도지사상을 거머쥐었다.

시흥시 대표팀과 함께 전국대회에 출전할 최우수팀은 양주시 대표팀이다. 양주시 대표팀은 '양주 큰오미집터다지는 소리'로 경기도의회의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차지한 팀들은 오산시, 광주시, 양평군 대표팀이다.

오산시는 '오산 외미 거북진 놀이', 광주시는 '광지원 농악', 양평군은 '양평 두레농악'으로 각각 출전했다.

문화

경기일보

문화일반 종합·전시 출판·도서 종교 건강·의학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다음달 3일 화성 궁평항 광장서 '제5회 페스티벌31_봄별화성 4913' 개최

송시연 기자 dvd991@hanmail.net 노출승인 2018.10.02 댓글 0

'제5회 페스티벌31'이 다음달 3일 화성 궁평항 광장에서 열린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매년 지역문화원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페스티벌31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공연 및 전시, 체험 등으로 선보이는 축제다.

화성문화원과 공동주관으로 준비한 올해 페스티벌31은 '별별화성4913'을 주제로 화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화성시 4개동 5개면 13개동에 살고 있는 화성 시민들이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이끌거나 이어나가는지 보여준다. 문화원 동아리뿐 아니라 화성시의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재단 소속 18개 생활문화동아리가 워크숍과 사전공연, 플라보레이션 등 축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총 6개로 운영된다. 약관 공평랑 광장 무대에서는 '열기 다른 공연'과 '첫 릴의 공연'이 펼쳐진다. '열기 다른 공연'은 '별리댄스, 실버밴드, 한국무용, 난타, 스포츠댄스 등 5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화려하고 신명나는 무대가 잔뜩릴 예정이며, '첫 릴의 공연'은 각 지역문화원을에 소속된 동아리와 예술가의 플라보레이션 공연이 펼쳐진다.

시연장에도 이루어지는 체험 및 놀이 부스도 빼놓을 수 없다. 놀이기록자 고무신과 함께하는 '안팔이 노는 힘★(법)놀이터'와 북한수학을 이용한 '직조짜기 별별체험', 사진 잘 찍는 법을 알려주는 '노심 사진 교실', 내 사진을 맞추면 기저갈 수 있는 '역퍼는 저기 임자와 같은 증심 거리가 준비돼 있다.

아울러 화성문화원의 역사와 활동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엮은 아카이브 전시 '목★(법)은 전시·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를 도 함께 전행된다.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은 "페스티벌31은 지방문화원이 그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문화원이 지역 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화성의 곳곳에 살아있는 향토문화와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송시연 기자

문화

경기일보

문화일반 종합·전시 출판·도서 종교 건강·의학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오는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서 '시가예찬 詩歌禮讚 2018 in 오산-기억의 상상' 열어

송시연 기자 dvd991@hanmail.net 노출승인 2018.10.03 댓글 0

▲ 제신적 시개에찬 포함

'시가예찬 詩歌禮讚 2018 in 오산-기억의 상상'이 오는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오산문화원이 준비한 이번 행사는 '기억의 상상' 이라는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오산의 이야기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펼쳐간다.

먼저 1부 '기억의 풍경-시간의 겹쌓'에서는 오산 시장들이 애틋담겨 담겨진 시가 낭송된다. 소대 오산문화원장 조석구 시인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장들의 시낭송이 이어진다.

2부 '기억의 상상-오래된 성처럽은 퍼포먼스로 오산의 과거를 되짚는다. 몽의 학교의 시노래를 시작으로 여운남의 시극이 예정돼 있다. 무용가 이정은이 무용퍼포먼스를 전행하고, 경기시낭송협회가 '넘의 정목' 합송으로 마무리 된다.

▲ 제신적 시개에찬 포함

3부 '기억의 문류-보라보 목란주'는 재즈 콘서트로 하나되는 장을 만든다. 오산필하기사나이합창단과 재즈싱어 해장이 참여하며, 하우스밴드 루나합이 함께하는 시노래와 김준호·이진원 교수가 시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은 "인문학은 남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게 하며, 거기에서 비로소 새로운 상상이 시작된다"면서 "경기도지방문화원이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의 중심에서 지역을 일깨우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들어가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8회 차를 맞이하는 시가예찬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기획한 대표 그랜드 공연이다. 매년 지역문화원들과 함께 지역의 이야기를 시를 소재로한 다양한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

송시연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송시연 기자

경기신문

HOME > 문화

압축된 언어로 표현 3·1운동 아픔 예찬

정연수 기자 | 승인 2018.10.07 19:28 | 댓글 0 | 12면

오산문화예술회관 10일 공연
초대 문화원장 조석구 시인 시낭송
무용가 이정은 퍼포먼스 참여
물향기시니어합창단 등 시 노래

시가예찬 2018 in 오산-기억의 상상

올해로 8회 차를 맞이하는 '시가예찬(詩歌禮讚) 2018 in 오산 - 기억의 상상'이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경기도문화원연합회이 주최·주관하고 오산문화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억의 상상'이라는 주제로 오산지역의 역사와 그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자유정신을 중심으로 오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본다.자유를 갈구했던 투정 3.1운동의 아픔을 시의 압축된 언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역사와 자유정신을 연결하며 이를 통해 오산지역의 인문학적 조명을 표한다.

'1부 : 기억의 풍경-시간의 켭질'은 시낭송 중심의 마당으로 오산의 시간과 역사, 즉 기억이 축적돼 만들어진 '시간의 켭질'이 있는 오산이라는 지역을 만난다.

그리고 오산 사람들이 아름답게 담겨진 시가 낭송된다.

초대 오산문화원장 조석구 시인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장들의 시낭송이 이어진다.

마지막 순서인 문화원장들의 합송 퍼포먼스를 통해 오산 외 경기도 지역의 '오산 사람 읽기'를 완성시켜 보고자 한다.

'2부 : 기억의 상상-오래된 성처럼'은 퍼포먼스 중심의 마당으로, 오산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과거에 집중한다.

[경기정명(京畿定名)천년] 경기 천년의 시간여행, 경기천년대축제 놀러오세요

-수원역 환승센터~대평파크(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 주차장)~경기상상캠퍼스> 무료 순환 서틀버스 운영

정병철 기자 | 입력 : 2018.10.12 09:44:20

2018년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의미 특별한 해이다.

경기도가 경기(京畿)라는 이름을 얻 지 1,0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경기정명(1018년, 고려 현종) 천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새천년 미래경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어내고 도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향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경기도내 10개 기초문화재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문화의 집 총 31개 시·군과 협력해 12월까지 경기도 천역에서 생활문화와 인물·역사를 묘두 담아내는 지역문화축제를 연다.

시·군 릴레이 축제라는 별도로 10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일대에서 '경기천년 대축제'가 개최된다.

경기도민의 이슬림 한마당이 될 경기상상캠퍼스는 옛 서울대학교 농언생명과학대학의 부지로 현재는 생활문화와 청년문화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행사와 축제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지역 전년의 전통문화와 생활문화, 미래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획된 이번 축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다양한 생활문화 동영과 함께 각 지역의 음식을 나눠먹는 '천년밥상' 등의 행사가 진행돼 다양한 즐거리는 물론 먹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생활문화와 미래문화를 표방하는 일환의 장인 '경기천년 생활문화 홀로키움, 청개스트 '천년의 사람'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특히 핫케스트 '천년의 사람' 공개방송에는 송경의 퍼포먼을 가진 가수 박원구가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유쾌한 시간도 가진다.

이 외에도 경기도민이 직접 뽑은 '경기그페이트북스 100선'을 만나볼 수 있는 슬속도서관과 북문서트 등이 진행되어 경기상상캠퍼스 곳곳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행사 3일간 메인무대와 서브무대에서는 가수 김구봉주, 정종하, 빌트, 신현희와 김루트의 축하공연은 물론 보사노바, 아루스틱 팝, 인디 팝 공연과 함께 마술공연이 진행된다. 경기도문화의전당 'DMC 2.0 경기청년 자유 버스킹 공모' 경기콘텐츠진흥원 '2018 인디스맛스쿨 홍택 선발된 팀의 공연도 열린다. 또한 경기천년을 축하하기 위해 연해주 우스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예술반과 카자흐스탄 고려인예술단 약 40여명이 방한하여 그들이 역동 이어 온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그 외에도 31개 시·군의 특색을 살린 특산품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예관 함께서는 생활문화공연이 진행된다. 남양주의 하이키 플라멩스팀 '플라멩스', 광명 요가러너 연무팀 '소리바람', 수원의 '비트우고', 성남 마징댄트 '블랙스틱스', 화성 '벨리댄스팀 '마니아벨리' 외에도 원곡고등학교 뮤지컬동아리의 청소년 창작뮤지컬 등 경기도 천역의 생활문화 공연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

뿐만 다양한 전시 솔거리도 마련된다. 주제관은 천년장인 사진·영상전, 기획작품전으로 꾸며질 예정이고 경기도 각 지역의 특색있는 생활문화와 특산품,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예관도 마련될 예정이다.

경기천년 대축제는 방문객 안전을 위해 행사기간 중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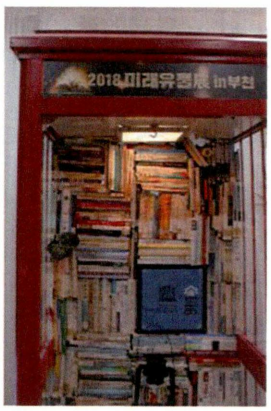
중부일보

≡ 전체메뉴 뉴스 지역종합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포토 지면보기

HOME › 문화 › 부천문학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미래유물전',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천문학 돌아보기

김종성 | 기사입력 2018.11.01 17:54 | 최종수정 2018.11.01 17:54 | 댓글 0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오는 5일까지 부천 송내어울마당 아리솔갤러리에서 '미래유물전_문학과 사람의 도시 부천'을 개최한다.

'미래유물전'은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재구성' 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바로, 지금'을 지방문화원과 함께 새롭게 이야기하는 열린 전시기획다.

이번 전시가 열리는 부천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설정받은 1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부천이 연구 8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기까지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해 왔다. 특히 문학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신시(新詩)의 선구자이자 민족시인 변영로, 한국 대표아동문학가인 목일신, 여성작가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 정지용, 1980년대 한국 현대소설을 대표하는 '원미동 사람들'의 양귀자 등 수많은 문인들이 부천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1977년 시로 승격한 이후 부천의 문단과 문인활동이 발전해 오늘날 다양한 문인단체가 설립됐고 문인을 주도의 문학행사와 동인문학지 발간, 타 지역 문인단체와의 교류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래유물전에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의 설명과 향후 발전과제를 소개하고 부천과 인연을 맺은 문인들의 소개와 작품 전시, 부천 관내의 문인단체 소개 등으로 이뤄진다.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은 "부천시민이라는 공통감성을 나누는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부천의 정체성을 매솔로 기획된 전시로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예술감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의 032-651-3739.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중부일보

≡ 전체메뉴 뉴스 지역종합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포토 지면보기

HOME › 문화 › 문화종합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반가워U파티 12월14일 개최

김동성 | 기사입력 2018.12.09 16:28 | 최종수정 2018.12.09 15:28 | 댓글 0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오는 14일 청년단체 네트워크 파티 '문화청년 '반가워U' 네트워크 파티'가 파주 헤이리마을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 네트워크 파티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지역특성화-동네한바퀴'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경기도라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청년들과 만나고, 발직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연합회는 이 사업을 통해 "대대손손 지속발전 가능한 청년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경기도 청년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5개의 소그룹 토크쇼를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 독립적, 창의적 일거리 창출을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선다.

이번 네트워크 파티 '문화청년 '반가워U' 파티'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키움프로젝트'를 통해 2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거친 청년기획자들의 모임 '문화청년U'가 직접 기획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크다.

오프닝 '반가워U'를 시작으로 자유토론파티인 '톡 투 U', 커뮤니티 댄스파티 'Fix U', 힐링상담소, 해장토크 '또만나U' 등의 다채로운 기획으로 펼쳐진다.

염상덕 연합회장은 "앞으로 청년들이 만들어 갈 경기도의 문화지형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크다"며 "본 사업을 통해 문화원이 청년들과 함께 지역문화를 새롭게 전망하고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행사는 사전신청으로 이뤄지며 도 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http://kccfgg.org)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동성기자

여 백

에필로그

에필로그

2018 지역(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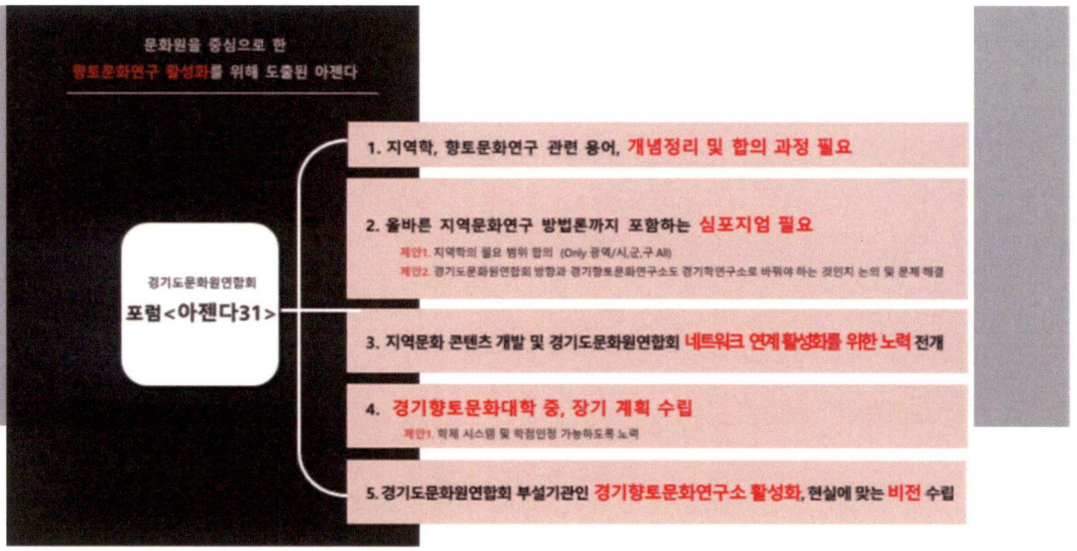
이 글은 2018년 7월 2일(월)~3일(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기관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워크숍에서 발표한 것을 재구성한 것임

1. 들어가며

그동안 이 자리를 마련하고자 개인적으로 약 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역시 시흥문화원장님이시기도 한 정원철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님의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도연합회가 참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지난 시기동안 지방문화원과 함께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외적(특히 경기도에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브랜드 사업 개발에 우선적으로 공을 들여왔다. 그러다 보니 '문화원'이 가진 본연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는 부분에 힘을 덜 쏟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변명을 좀 하자면, 도연합회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5년 전 지역연구, 향토문화, 역사조사, 연구의 큰 틀을 잡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도연합회의 체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어쩌면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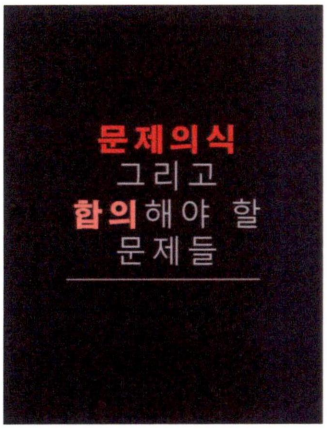
안정적인 조직, 직원들의 역량, 문화원간 네트워크 구축, 문화단체(특히 재단)와의 협력구조 마련, 경기도청과의 관계 개선(역량 평가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문화원의 안정과 역량 강화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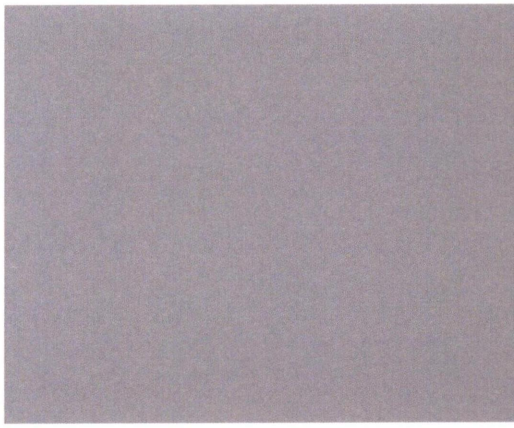


사실이다.
이 글은 경기향토문화연구소가 향후 어떤 원칙과 방향, 즉 어떤 로드맵을 가지려 하는지에 대해 도연합회의 구상을 공유하고 협의하고자 했다.

2. 문제의식 그리고 합의해야 할 문제들

더 많은 문제의식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5가지의 고민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선 문화원에 위의 5가지 질문에 대한 합리적 합의구조가 그동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인가, 지방인가의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지역문화원'이라는 개념을 선택했을 때,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역문화원진흥법으로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법을 바꿨을 때 기존 '지역문화진흥법'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지에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즉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표법인 〈지역문화진흥원〉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근거하여 광역단위, 기초단위 문화재단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역문화원진흥법'으로 개정한다는 전제 하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지역문화진흥원과 경기문화재단, 기초(수원, 화성, 부천 등)문화재단과 동일한 지역 내 위상으로 동일한 법적 힘을 갖게 되었다 가정한다면, 대등한 협력관계 및 기획이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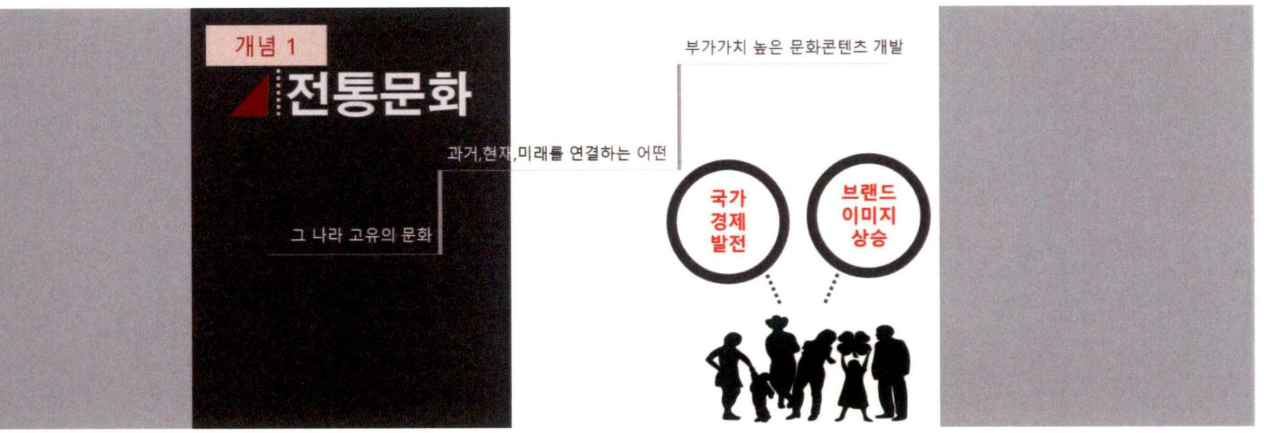
지방문화원의 조직구조나 역량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연합회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지역'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문화원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른 의견이 존재하게 된다. 각자 다른 의견들이 논쟁의 과정을 거쳐 합의과정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 구조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지방문화원의 한계를 노정하는 부분이었다.

"개념이 반드시 진실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개념은 중요하다. 어떻게 개념설정을 하는가에 따라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중 한 가지만 가지고 논리 전개를 해보고자 한다. '논리전개'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은 개념은 선택의 문제이지 진실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정답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 의견이 합리적 논쟁을 거쳐 원만한 합의의 과정이 지금 문화원에는 필요하다.

3. 전통문화 vs 향토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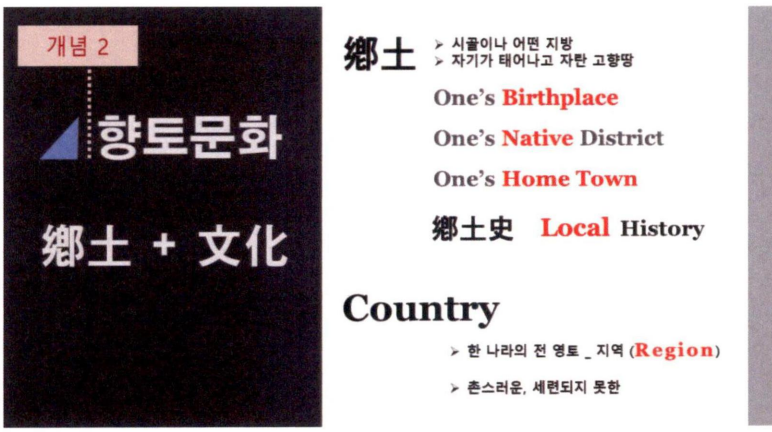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곳인가, 향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어느 것에 방점이 찍히느냐에 따라 문화원의 향후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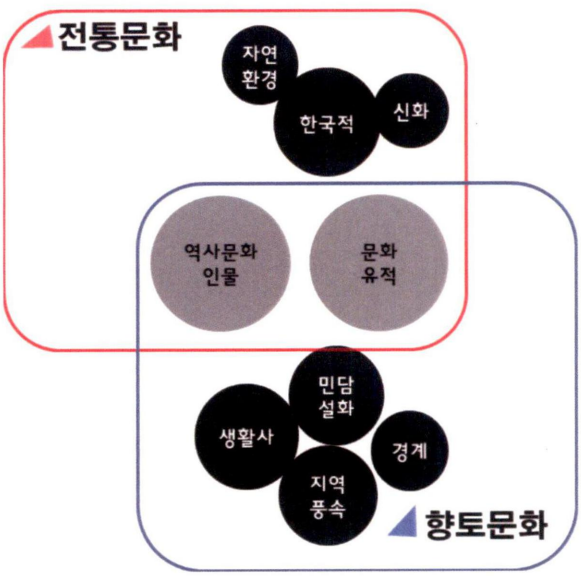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서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브랜드, 이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적'이라는 개념이 '전통'이라는 개념에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지방)문화원이 전통문화 활성화의 기치를 건다는 것은 지역의 단위를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단위, 민족단위의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 지점이 그동안 지역(지방)문화원이 '다 빼앗겨 왔다'는 피해의식이 작동하는 지점이다. 즉 국가의 문화적 브랜드는 지방문화원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향토[1]라는 개념은 아직 사전적 정의가 없다. '향토'라는 개념이 독일어 하이마트쿤스트(Heimatkunst)의 일본식 번역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어난 곳(birthplace), 토속적(native), 고향(hometown), 특정 지역(Local)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역(지방)문화원이 지향해야 할 지역특성화라는 측면에서 개념정리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인다.

풀이해보면 향토문화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특정 지역(District)의 토속적 고향의식을 고취한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다.

1) 정치적인 용어로서의 '향토': 조선시대 문헌에 '향토'란 말은 잘 등장하지 않는다. 간혹 나올 경우에도 왕의 영역에서 벗어난 주변부를 가리킬 때 사용했다. 그렇다면 '향토'란 말은 오래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실 '향토'란 말은 독일어 하이마트쿤스트(Heimatkunst)의 일본식 번역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산업혁명과 근대적인 국민국가 형성이 늦었던 19세기 말의 독일에서는 갑자기 불어 닥친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이 해체되는 국면을 맞이했다.
이때 도시에서 활동하던 일군의 지식인이 벌인 사회운동이 바로 '향토예술운동'이다. 문학이나 미술 작품은 그 작가의 향토를 반영해야 한다는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지리학자이면서 민족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1844~1904)은 근대도시인이 지닌 고향에 대한 향수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고향에서 살아온 경험에서 유발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한 나라의 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이른바 '향토학(Heimatkunde)'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당시 독일에서 유학하던 일본의 농업행정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일본으로 곧장 수입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 근대농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1862~1933)다. 일본 역시 독일과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농촌사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가 내세운 주장이 '향토보호(郷土保護)'였다. 니토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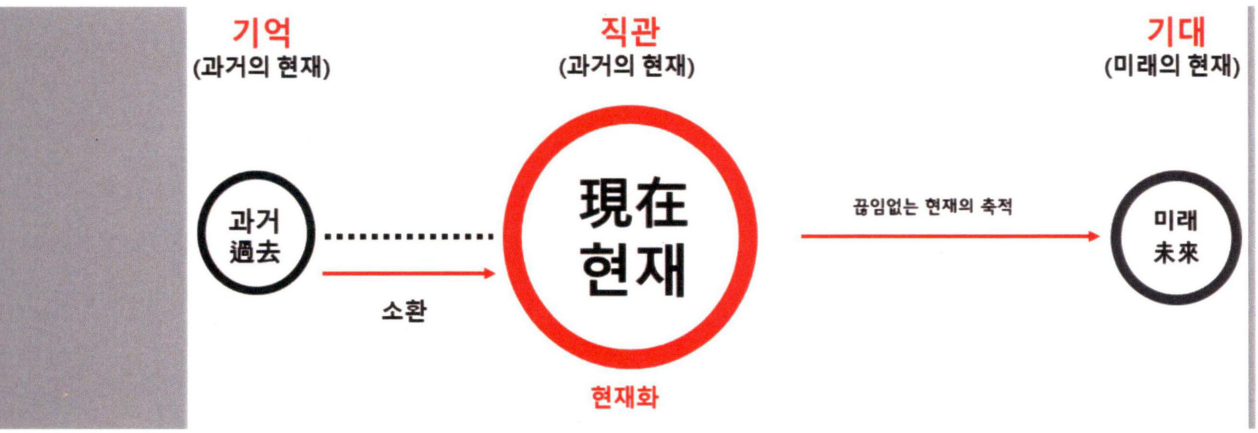


전통문화와 향토문화를 비교해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전통문화의 영역이 지역(District)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연환경, 한국적 이미지, 신화, 역사유적, 역사문화인물, 문화재 등이라고 한다면, 향토문화의 영역은 지역의 풍속사, 생활사, 민담설화의 영역이 중요하다.

그동안 지역(지방)문화원은 문화유적, 문화재, 역사문화인물 등이 교집합을

이러한 주장은 이후 일본 민속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1875~1962)에게 이어져 그로 하여금 '향토연구'라는 분야를 개척하도록 만들었다. 야나기타 역시 원래 농업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산업화에 의해 농촌사회가 전에 없던 변동기로 접어들자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몰두했다. 그는 1910년대 일본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는 농촌의 변화를 통해 도시화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농촌을 살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결국 야나기타의 연구에 의해 '향토'라는 말이 학문적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와서 야나기타가 내세운 '향토'는 결코 농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의 일본을 만들 필요성이 군국주의자들을 배경으로 쇼와(昭和) 천왕에 의해 제시됐고, 이에 부응해 야나기타는 다양한 일본의 향토문화에서 공통점을 도출해 하나의 향토, 즉 일본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당시의 '향토'는 매우 정치적인 용어였다. 그래서 '향토'라는 말을 붙인 '향토식(鄕土食)'이란 용어가 대중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다만 도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지방의 이름을 붙인 '명물요리(名物料理)'혹은 '명식물(名食物)'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됐다. -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부교수·민속학 (신동아 2008. 8월호 인용)



이루는 부분에 집중해 왔다.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예를 들면 수원 화성, 구리 동구릉 등)가 되면 지자체나 정부 단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위 전문가들이 '전통문화'적 맥락에서 국가브랜드화, 콘텐츠화 시키는 형식으로 전환, 그 과정에서 지역(지방)문화원은 배제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이 지점이 그동안 지역(지방)문화원이 느끼는 피해의식의 근원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4. 지역(지방)문화원은 항상 '과거'를 다룬다 _ 시간의식의 재정립

"현재는 만약 언제나 존재하는 현재이고 과거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현재[시간]가 아니고 영원이다. 그리고 현재의 시간은 마음속에 아로 새겨진 것으로서, 과거의 현재인 기억, 현재의 현재인 직관 혹은 지각, 미래의 현재인 기대로 이루어진다." – 에그문트 후설, 〈시간의식〉

지역(지방)문화원은 항상 '과거'를 다룬다. 그동안 지역(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를 말해왔다.
전통문화는 항상 과거를 전제로 한다.
브랜타노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술어들은 비실재적 술어들이며, '지금'이라는 규정만이 실재적이다. 과거나 미래는 관념적이고 비실재적이다. 어찌 보면

지역(지방)문화원은 그동안 실재하지 않는 환상, 관념을 부여잡고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향토문화'를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2]'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 전통문화와 향토문화 담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의미부여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가 되는 개념으로 설정하고 현재를 기록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고향'을 만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향토문화연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며, 과거를 현재로 소환(현재화)하여 과거의 기억이 '지금, 여기'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며, 지역 사람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기여하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커뮤니티가 지역을 어떻게 디자인하게 될 것인가를 기대(미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특성화'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진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의 중요 포인트는 '분권과 자치'다. 권한을 나눈다는 것과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중앙집권형에서 지역분권형으로의 전환.
지역을 연구한다는 것은 다른 곳과 구분되는 어떤 지역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지역의 향토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삶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토문화연구는 특정 지역의 Local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Region 태어나, 토착의 native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사람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향토문화연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현재화하고 현재를 축적하여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역다운(지역특성화 한)'것들을 생활권, 문화권을 연결시키는 일(네트워크).
그것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그리고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미션이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어쩌면 공허하게 들리는 슬로건에서 이제는

2) 지금'이라는 규정만은 예외를 갖는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A는 확실히 현실적 A이다. 현재는 변경하지도 않지만, 다른 한편 결정하지도 않는다. 만약 내가 '인간'이라는 표상에 '지금'이라는 것을 첨가한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새로운 어떠한 징표도 획득하는 것이 아니며, 혹은 '인간'이라는 것에서 어떠한 징표를 표시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지각의 경우 지각이 어떤 것을 '지금의 것'으로서 표상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질, 강도 그리고 장소적 규정성에 아무것도 부가되는 것은 아니다. 브렌타노에 따르면, 변양시키는 시간술어들은 비실재적 술어들이며, '지금'이라는 규정만이 실재적이다. - 에드먼드 후설 <시간의식> 중에서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집중하고, '대한민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의 패러다임이다.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별하고 좋은 문화.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특별하고 좋은 지역문화를 일구는 것. 이것이 지역향토문화연구의 방향이 아닐까 한다.

2018
경기도문화원연합회
Annual Report

발행인 : 염상덕
편집인 : 최영주
기 획 : 오다예, 박소현
발행일 : 2018년 12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화 : 031-239-1020
팩스 : 031-239-3785
홈페이지 : www.kccfgg.org

본 보고서는 〈경기도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화 : 031-239-1020
팩스 : 031-239-3785
홈페이지 : www.kccfgg.org

본 보고서는 〈경기도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